朝鮮日報
夕刊 七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人兼發行人 方應謨 /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直營刊行物 月刊雜誌『朝光』 同『女性』 同『少年』

支那軍費調達次 米國에海運業讓渡

船舶、開港場、倉庫等廣範圍

我軍反對로難境招來?

【香港六日發同盟】上海在住米國 資本家 한도ㅣ氏를 首班으로하는 米國金融團과 支那의國營海運業 招商局과의 間에일직부터 進捗中이든招商局所有의 商船二十五隻及上海、廣東、汕頭、廈門、鎭江、溫州、長沙、漢口、南京、天津、靑島의 各開港場及 埠頭倉庫(紡績工場을 包含) 總額一億弗에갓가운大規模의 全財産讓渡에 關한 交涉이成立을 보앗다고 報道되고잇다 讓渡될 財産中의 船舶은 英國이匯豐賠償金에 依하야 建造하야 同社로하여금 運營에當케하고 잇는 三隻을除한外全船舶計二十五隻이다 그中 約十隻은 이미 日本海軍의攻擊에 依하야擊沈된것을 包含하고 또埠頭倉庫中 天津、靑島、南京、上海等은 이미 日本軍의 占領地區內에 包含되어잇스므로 日本軍의敵産讓渡不承認宣言으로 本條約의 實施되면種種困難을伴하리라고 보인다 如何間 國民政府當局이 如斯한 態度를 取하는以上匯豐事件에依한 三隻도 英國側에서賣却되엿스리라고 보인다 이에잇서 支那는 一八七二年以來營營히築上하야온 近代 海運事業을 些少한 軍費代償으로放棄하는結果에 陷入하게 되리라고보인다 的示威를보이는것으로 今後의展開가 注目된다

香港米領事는否認

【華盛頓六日發同盟】米國신디케이트團과 支那招商局과의 間에 全財産讓渡에關한 交涉이 成立되엿다는 報道는 招商局에 保有하는 全船舶을 第三國에 賣渡함에 依하야 日本을困境에모라너으려는 意圖에서 나온것이라하야 多大한 注目을이끌고잇는데 六日 데일리·엑스푸레스紙 香港特電에 依하면 香港駐在 米國總領事 고레이氏는 讓渡交涉成立의 事實을 否認하야 六日 左와가티 言明하엿다 政府의 訓令을 바덧스므로 余는 이點에對하야 아모말도할수업스나 支那船으로 登錄되어잇는 船舶이 米國側의船舶으로 登錄될수는업다

議院과選擧制度의 改革에積極進出

既往研究破毀코獨自案提示

近間調查委員會開催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第七十三議會에서 協贊을經由한 豫算案施行과 各種非常時立法施行等當面의 準備도 完了하엿스므로 結局內政問題의 全面的改革에着手하야 그第一步로 爲先 貴族院制度와 衆議院制度及 選擧制度의 改革에 進出하기로되엿다 即貴族院制度와 衆議院制度及選擧制度改革에 關하야는 政府는 議會에서 屢次 그改正을 斷行하기를言明하엿는데 閣內에서도 大谷拓相 有馬農相等 貴族院出身閣僚는 速히 貴族院制度 衆議院制度 選擧制度의 三調查會를열고 改正案의 調查研究에着手할것이라는 强硬한意見을開陳하고잇고 近衛首相도 이에 關하야는 積極的 意圖를가지고잇스므로 今月末 或은五月初에는 오래동안 休業狀態에잇든 三調查會를 續開하기로될 模樣이다 그리고 政府로서는 右三調查會의 再開에當하야는 既往의研究의 成果는 一旦이를 破毀하고 새로 現內閣獨自의 改正案을 作成하야 提示하야 各調查會에附議할 方針이요 近近欠員이된 貴族院制度調查會의 副會長에 末次內相을 任命하는外에 三調查會委員에對하야도 再詮衡을加하야 適任者를補充할 方針이다

政民兩黨 首腦部會同

【東京電話同盟】政界의耳目을集中한政民首腦部會同은 町田總裁招待下에 六日午後六時부터星岡茶寮에開會하고 民政黨으로부터 町田總裁以下 櫻內 小川 俵 大麻 賴母木 小泉의諸氏와 政友會側으로부터 鳩山 前田 島田 中島四代行委員外에 砂田 大口 堀切 岡田의十五氏가 列席하야 爲先町田總裁로부터 議會中 政民兩黨의 緊密한連繫에依하야 無事히 會期를終了한것은 感謝에不堪한다 今後도繼續하야 友好關係를 持續하야 政界의實勢力으로 時艱克服에 邁進하고싶다 고人事가잇고 晩餐을 가치한後 여러가지懇談을하고 同九時 지나散會하엿는데 政友會側에서는 近近答禮의意味로 代行委員의名義로써 民政黨首腦部를 招待하기로되어잇서 政民兩黨은더욱 連繫에依하야 政界의 實勢力으로 時局收拾에邁進할 意思가더욱鞏固하게보여 其結果 小會派를中心으로한 新黨運動은 그發展이 制限되고 또政府側이新黨을企圖할境遇에잇서서도 兩黨連繫를無視할수업게되어 當日의會同의內容如何는 政界에多大한潛勢

李王殿下 十八日御入京

李王殿下께옵서는 妃殿下와同伴 御展墓를하시기爲하사 來十八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아까쓰기』로 御入京 二十五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 御發御歸東하시옵실 御豫定이시라고拜承되는데 二十三日에는 때마침 入京中인 伊太利訪日使節團을 御引見하옵실터이라한다

陸軍의重大方針 杉山陸相이口演

師團長會議第三日

【東京電話同盟】師團長會議第三日은 七日午前九時부터 陸軍省所管事項에 關하야 同省會議室에서 開會하고 中央側으로부터 杉山陸相 梅津次官 町尻軍務局長以下 各局長及 關係官이出席하고 中村東部 谷中部 兒玉西部各防衛司令官과 飯田近衛師團長外 各師團長이 參集하야 杉山陸相으로부터 事變下의 軍의重大方針、訓練、精到、軍規緊肅、軍의團結强化、出師準備의完璧、銃後指導及軍事扶助强化及 陸軍豫算의施行에對하야 別項과가티 口演을하고 梅津次官으로부터도 所管事項一般에關한 口演을 하고國家總動員法運用에 對하야도 特히隔意업는 意見을 交換하고 同十二時에 會議를 終了하엿다

陸相口演要旨(陸軍省發表)

事變은 아직도 遼遠하고 國際情勢의 變轉은또 逆睹하기難함에鑑하야 內로는 國力을 總動員하야 더욱戰爭威力을 强化하는同時에 外로는 縱橫의戰略을다하야 益益皇威를 宣揚하고時局解決에對하야는 기피그根原에 遡及하야 禍根을芟除하야 將來에 다시此種의流血의 慘禍가업게 하기爲하야 眞正한東洋永遠平和確立에 萬萬遺漏가업기를 期하지안흐면안된다

一、訓練의 指導 軍規의 緊肅에對하야

軍隊의 眞價는專혀訓練의精到에 俟할것은勿論이다 只今軍隊는 教育訓練上諸種의 困難이 甚하나 皇軍現下의 要務는 凡百의手段을다하야 萬難을 排하고 어데까지든지訓練의 精到를 期하지안흐면안된다 또軍規는軍隊의 命脈이므로 浸透한訓練도이에 依하야 다시實戰場裡에 그精華를 發揮할 수잇다 聖戰에從軍하는 皇軍의威信도 이에依하야 그光彩를 發揮할수잇다

二、軍隊團結의强化에對하야

軍隊는 隊長을 核心으로하는 統帥系統에 準據하야 常時에 牢固不拔의 團結을 保持함을 要한다 그리고 團結强化는專혀 指揮官 特히將校의高邁한 意志와 崇高한人格에 率由하므로써 特히 將校以下를 教化指導하야 指揮官은 恒常部下敬仰의 焦點과 軍隊團結의中核이되고 軍隊는 指揮官을核心으로하야 一系不紊한牢固한 團結을完成함을 要한다

三、出師準備의完璧을期함

動員業務는 出師準備中의 根幹이다 今次 事變의實踐에徵하면 各官의適切한 指揮와指導者의 不斷의努力에 依하야大略順調로 實施된事變의 經驗은 將來에 對하야 數多한重大指針을 주엇스므로 此等을 即時取하야써 改善의資料에 俟하고 그內容을 充實히 하야 出師準備의 完成을期함을要한다

四、銃後指導軍事援助의 强化에對하야

今次事變의 解決은 眞正으로 擧國一致軍民一致의努力에 俟하지안을수업다 그러므로銃後施設과 指導를더욱强化하고出征將兵으로하여금 一意奉公에 精進케하야 秋毫도後顧의 憂慮가업게하지 안을수업다同時에 錦旗下에 或은作하고 或은傷한 多數의將兵에 對하야는 哀情의 慟을참으로 禁할수업고 어에諸官과 함께 衷心으로敬弔의意를 表하는同時에 그遺家族과 戰傷者等을 將來에亘하야 物心兩面에 그安定을엇게하야써 此等忠勇義烈한 將兵의 武勳을 永劫히 榮光잇게함은 어 銃後의 責務요또어에 依하야 더욱 兵役義務의 崇高性을確立하고 眞正으로 軍民一如國防을 完整할수잇슬것이다 如上의主旨에 鑑하야 널리關係當局과 協力하야 最善의努力을 傾注함을要한다

五、豫算의使用에 對하야

昭和十三年度 陸軍豫算總額의 一般會計와 臨時軍事費를 合하면 巨額에達하야 그運營에 際하야 그資源關係에 엇서서 또한 金融關係에잇서서 直接으로 國民經濟에 及하는影響이至大하다 特히 이때문에惡性의物價騰貴를보게되면 그結果는即時作戰補給或은 軍備充實에도 緊要及할것은 明白하다 豫算運用上 深甚한注意를 하지안흐면안된다

杉山陸相

時事解說 오렐스키ㅣ氏

去四日駐蘇大使 重光葵氏는 蘇聯外務人民委員 리트비노프氏를 訪問하고 蘇聯飛行士의支那援助에 對하야 嚴重한抗議를提出하엿든바 蘇聯政府는即時타스通信社를 通하야 對日戰에參加시키기 爲하야 蘇聯軍隊或은 兵士를 支那에 派遣한일은 全無하다고 事實을否認하엿다。그러나 蘇聯의 對支援助가 蘇聯政府의 直接命令指導下에 遂行되고잇슴은 疑心업고 特히 新任駐支蘇聯大使 오렐스키ㅣ氏의 活動은 注目할만하다。

◇

日支事變에 際하야 레이펀武官과 함께 明暗兩方面에서活躍을 繼續하야 世人의 注目을 끌든 前駐支蘇聯大使 보고모로프氏가 突然本國에 召喚된後突然 오렐스키ㅣ氏가新大使로登場하게되엿다。그러나 그는 如何한 人物인지 아는사람도 업고 今日에 어르러서도 그正體는 依然 수수꺽기로되여잇다。보고모로프 前大使의 失脚을 轉機로 當時의 對支軍事援助說이 流布되여 蘇聯人民委員스미루노프氏의 名義까지 傳하엿스나 그後日支事變의 進展에따라 國民政府가 潰滅에 瀕하게되자 蘇聯의 對支活動은 콤민테른에 重點을 두게되엿스므로 오렐스키ㅣ氏는 有力한 共産黨員인것이 틀림업다。

◇

數次의 肅淸工作에 依하야 職業外交官은 모두 蹤跡을감추어 人物難이 생기게되여새로 任命된 外交代表는 新進이 만타。오렐스키ㅣ氏도 이部類에 屬한者이다。蘇聯이바로 요전에 對日挑戰說을 否定하야 日本과 衝突을 避하는一方 스탈린氏의名義로「世界赤化를 抛棄하지아니한다」고 宣言한것에 依하야 보면 支那를 콤민테른의 有力한 舞臺로 하고 따라서 오렐스키ㅣ氏가 이 重大任務를 가지고 잇슴은 疑心할 餘地가업다。一說에는 그는 일즉 新疆省의 赤化에 非凡한 手腕을 發揮하엿다고도하는데 外國語로는 英語를 多少 理解할뿐이나 年齡은 四十歲가량으로 키가 크고 頑强한 그體格은 역시 鬪士요 한個의 怪物이라는 印象을준다。

總督巡視動靜

京畿道管內의 農村狀況巡視第三日의 南總督은 七日 午前八時 淺城臺官邸를 出發 一路京畿道를 달리어 坡州郡으로向하야 그로부터 長湍郡 開城府 開豐郡을 視察하고開城驛에서汽車로午後六時四十分歸京할터이다

視察日程一日延長

目下 京畿道內의 地方狀況을 視察中인 南總督은 日程을 一日 延長하야 九日에는 第五日次의 視察을 하게되어 同日午前八時官邸를 나와 爲先 水原에 어르러 郡廳 農學校를視察한후 水仁鐵道로 仁川松島驛에下車 松島에서 晝食을 取한後 富川郡의 朝鮮製鋼 朝鮮木材工業等을 巡視하고 仁川驛發午後五時二十三分 京城驛着 歸京하야 京畿道內視察을 完了할터이다

谷正之公使北京向發

【上海七日發同盟】上海에잇서서 現地外務機關을 統轄하고 잇든 谷正之公使는 田尻書記官을帶同하고 七日 上海發 飛行機로北京으로向하엿다 約十日間의 豫定으로 事務協議를 兼하야 北京、天津、張家口、各地를 視察할豫定이다

財政案下院通過나 上院通過至難

불룸內閣危機에直面

【巴里六日發同盟】佛國下院은六日午後三時부터 昨日에 繼續하야 財政全權法案의 審議를 續行하야 表決한結果 同法案은無事히 下院을通過하엿다

【巴里六日發同盟】불룸內閣의運命이달린 財産全權法案은 六日午後에 겨우下院을通過하야 結局八日 急進社會黨의牙城인 上院에附議하기로되엿다 下院의表決에際하야 多數急進黨議員이反對投票或은 棄權을하야 불룸內閣不信任의態度를 明示한結果 全權委任法案의 上院通過는 結局困難視되게되엿다 一部에서는 벌서불룸內閣의即時總辭職을 云云하는傾向도보인다 社會黨出身閣僚는 六日下院에서 表決에入하는同時에 長時間에 亘하야緊急閣議를開催하고 現政府의態度에對하야 協議를 한結果 現政府는 現在 即時辭職을 決行하지안코 堂堂히 上院에 臨하야 現下의財政危局에 對處할 政府의方針을 闡明하야 上院의好意的支持를 要望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上院이豫想대로 財政全權法案을 否決할境遇에는 結局總辭職을 決行할터인데 社會黨으로서는 後繼內閣의構成과 綱領을본後 人民戰線內에잇슬것이나 或은反對派에설것이냐를 決할意向이라하고 政局의推移如何로는 人民戰線은 이에分裂의危機에 當面할것이아니냐고 觀測되고 後繼內閣의 豫想에對하야는 떠라디에說 그他各種觀測이잇스나 如何한 內閣이 組織되드라도 財政再建策에 對하야는 結局 불룸內閣의 財政委任法案과 同一한 主旨의 政策을 取하지안흘수업다는것이 消息通의一致한觀測이다(寫眞은 불룸佛首相)

防衛同盟結成코 췌코援助를提唱

佛國大公使會議開催

【巴里六日發同盟】봉네外相은六日 午後에 요전에 現地狀況報告를 爲하야 本國歸還의 命을받은 駐波大使 레옹·노엘氏、駐蘇大使로베ㅣ르·쿠ㅣ롱들氏 駐췌코슬로바키아公使 빅톨·도라구로아氏 駐유고公使 레이몽·부류캐일氏及 駐루마니아公使 아드리앙·쳬리이氏의 五大公使를 外務省에 招致하야 大公使會議를 開催하고 前日에 繼續하야 췌코援助策에 對하야 各各 現地報告를 基礎로 重要協議를하엿다 席上 봉네外相은 獨逸이 췌코를 攻擊하는 境遇에對備하야 佛國政府는 蘇聯、波蘭、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를 一團으로한 췌코防衛同盟을 結成하고싶다는 意向을 漏洩한模樣이다 政府側에서는 右報道를 首肯하야 左와가티 述하엿다 今日의 大公使會議席上에서봉네外相은 蘇聯、波蘭、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와 協力하야 췌코를 援助할案을 提唱하엿다 그러나 此等四國은 現在佛國에對하야 同一程度의 友好關係에잇는것은 아니요 特히 波蘭政府의 態度가 一切를 決定하게될것이다

工部局改革을 即時實行督促

【上海六日發同盟】日高總領事는六日午後에 共同租界市參事會議長 프랭클린氏를 訪問하고今年一月四日에岡本前總領事가 提出한工部局警察行政 機構改革에對한要求에關한 三月十八日附 工部局回答에 對하야 即時實行하기를 督促하는同時에 日本側의最低限度의 要求와 希望을述한覺書를 手交하엿다 同覺書에依하면 日本側의 要求는 現在의緊迫한 時局이 緩和되고 또工部局財政이 許하는時期에는 全面的으로 實現을 要求할터이나 現在工部局의 財政狀態와 一般情勢를 考慮하야 今回 同覺書의條項에 끄친다는뜻을 附記한點은 注目된다 覺書의 內容點은左와갓다

一、日本人을 特別調査主任으로即時任命할것 그地位는 警視總監의다음으로할것

그리고日本人吏員에對한 命令權과 監督權을 保有케하고 또日本人의 利益을 代表하야 工部局警務와 一般行政에干與할것

二、虹口、楊樹浦區에서는 副總監補의 地位를가진 日本人을 參與로任命할것

右에對하야 日本側에 그適任者를推薦할準備가잇슴

一、日本人權益關係가 큰警察署長은 日本人中에서 任命할것

一、日本人警察官의 欠員을 速히 補充하고 또가까운 將來에 擴大增員할것

一、日本人副事務總長의 地位에 關하야는 工部局의 申請과職權에 敬意를表함

滬江大學校長 遭擊即死

【上海七日發同盟】上海滬江大學校長 劉湛恩은 七日午前九時五十分에 共同租界 靜安寺路、戈登路角에서 二名의 支那人 怪漢에게襲擊되어 拳銃의射擊을맞고 現場에서 即死하엿다 附近에잇든 警官은 即時犯人一名을 捕縛하얏스나 他一名은 英國警官을 射擊하야 그틈에 逃走하얏다 그리고 劉는 콜럼비아 大學出身의 哲學博士로 上海Y·M·C·A에도 關係가잇고 일즉부터 排日家로 有名하야 屢次 外國新聞雜誌等에 排日評論을 揭載하얏다

造船施設不備로 三萬五千噸級建造

漸次四萬五千噸級으로移行

米國建艦方針轉向?

【東京電話同盟】大艦巨砲主義를 絶對的으로 主張하는 米國海軍當局은 只今 第二次빈손案의上院通過를 爲하야 努力하고 엇서 五日 월쉬海軍委員長은 秘密會에 엇서서의 리ㅣ作戰部長의 說明內容이라하야 目下 建艦中 或은 設計濟의 主力艦四隻과 빈손案(第二次)에 包含된 二隻은모두 三萬五千噸을 超過하지안는다고 發表하엿다 그러나 리ㅣ作戰部長은 前日의秘密會에서四萬五千噸級 主力艦三隻의建造를力說하고빈손案建造噸數의 修正까지要求하엿스므로 右리ㅣ作戰部長은 겨우 二日間에 全然 相反되는說明을하게된것은 極히注目된다 四萬五千噸級은 新倫敦條約의 制限免除條項發動의 最大眼目이요 따라서米國海軍은 熱心으로 이것을主張한것이며 實際의 國內造船施設과 그他의 技術的點으로보아 即時十八吋砲搭載四萬五千噸級의 大艦을 建造함은 不可能한것을確認하엿기때문에 不得已爲先三萬五千噸級主力艦의 建造工事를進行하고 그동안에잇서서 四萬五千噸級大艦建造의 準備를 한다는方針으로 轉向한것으로 觀測된다

리ㅣ作戰部長 言明內容發表

【華盛頓六日發同盟】米國上院海軍委員會는 連日秘密會를 열고 海軍擴張計劃에 對하야 리ㅣ作戰部長의 意見을 聽取하고잇는데 월쉬委員長은 六日 리ㅣ作戰部長은左와가티 言明하엿다고 新聞記者團에 發表하엿다

一、余는 海軍擴張案의 內容을 明白히 함은 國策이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米國海軍의 目的을 如斯한것이라고 一律로 斷回함에도 反對이다 다못 米國이 英國에 對하야는均等한海軍을 日本에對하야는優勢한海軍을保有하면 戰爭은이러나지안흐리라고생각한다

一、下院을通過한 빈손案은 一萬五千噸級 航空母艦의二隻建造를規定하엿스나 이航空母艦의噸數는 各各二萬噸으로增加하는 빈손案의修正을勸告한다

一、海軍當局에 大西洋艦隊創設을考慮하고잇다는 消息이엇스나 빈손案의規定에는 米國艦隊는大西洋、太平洋兩洋艦隊로 二分함은 不許한다고생각한다

一、빈손案에 依하면 艦艇建造中 職工賃金은 從來보다도 一割을增額할수잇다고생각한다

一、四萬五千噸級主力艦建造費는 如何하나는 質問이잇스나 海軍當局은 그가튼 主力艦建造의 豫算을 세운일은업다

以上 리ㅣ作戰部長의 陳述에對하야 委員會는 여러가지로 協議하고잇섯는데 特히 米國海軍政策을 融通自在하게 할것이라는 點에對하야는全員의 意見이 一致하엿다

定期敍勳

【東京電話同盟】惶懼하옵시게도 六日 後藤海軍少將以下 文武官一千四百五十二名에 對하야 定期敍勳의 御沙汰가 계시옵시엇다 主要한者는左와갓다(朝鮮關係의分)

京城帝大敎授 小田 晋
敍勳三等 授瑞寶章
朝鮮總督府忠淸北道參與官 楊在河
朝鮮公立實業學校長 江副正治
敍勳五等 授瑞寶章(各通)

人事·集會

▲兒島高信氏(咸北知事)六日夜入京 朝鮮호텔에投宿 四、五日間滯在할豫定

▲金埈泰氏(釜山商工會議所副會頭)六日入京人事次本社來訪

八面鋒

勞働時間에 얼마나기냐、最低賃金이 얼마나 적으냐가 問題거리려니와、

◇

勞働行政을 厚生省에서 確立코저 企圖。

◇

企業家의 自由에 매껴 勞働者를 酷使함은 不可。

◇

産業協力委員會、團體契約權도 善用하면 好結果를 可期。

◇

어름만 가지고 採掘은 안는 休眠鑛山은 닥치는대로 整理할方針이라고。

◇

鑛業權만가지고 조흔 염자나기만 기다리는 投機業者를 退治하자는 意思에는 贊同。

◇

그러나 資金이 업서 못하는이들에게 資金을 融通하야 成績을 내게할 方途는 無乎。

◇

그것은 안코 採掘만 하라면 大鑛業의 中小鑛併呑이란 批難을 難免。

◇

紙價高로 朝鮮오는 敎科書는 一割을 引上한다고。

◇

百物이 비싸지는데 勞賃、給料는 어찌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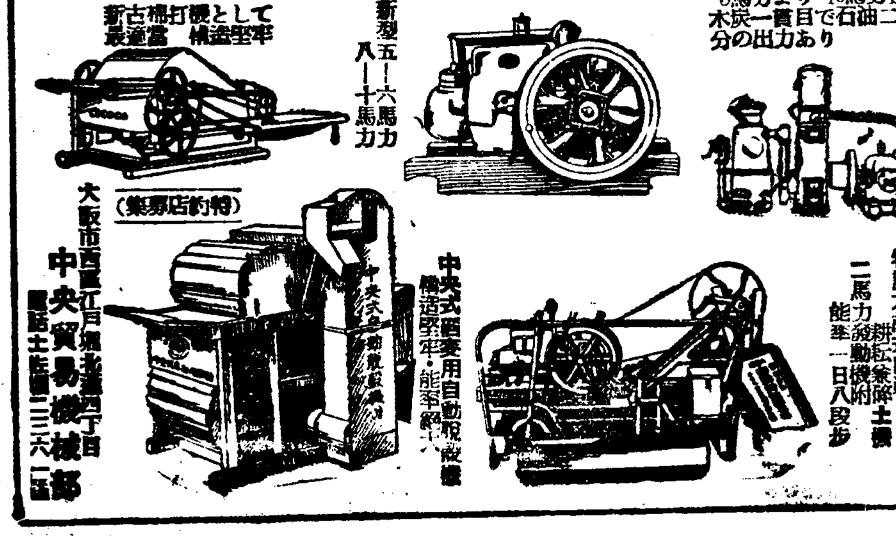
有名新書籍 六割引提供

和英併用ペン字入 新式辭典 定價2·00 特價·80 送料·12
和英併用ペン字入 机上辭典 定價2·00 特價·90 送料·12
ペン毛筆三體入 明解新辭典 定價1·80 特價·90 送料·12
音訓書引 模範漢和辭典 定價1·50 特價·75 送料·12
新式六法全書 定價2·20 特價1·30 送料·12
英語入り日常用語漢和併用 新辭林 定價2·00 特價1·20 送料·18
ペン字入現代 書翰大辭典 定價3·00 特價1·45 送料·21
加除式現行 書式大全 定價3·00 特價2·10 送料·45
ベスト英和辭典 三木春雄編 定價2·50 特價1·20 送料·12
ペン毛筆 七體字典 定價1·50 特價·70 送料·18
十分間大演說集 定價1·30 特價·70 送料·18
生殖器圖解와性交論 白羊社編輯部 定價1·80 特價·90 送料·18
新語常識辭典 定價1·50 特價·95 送料·12
新明解式 漢和大辭典 定價4·50 特價2·30 送料·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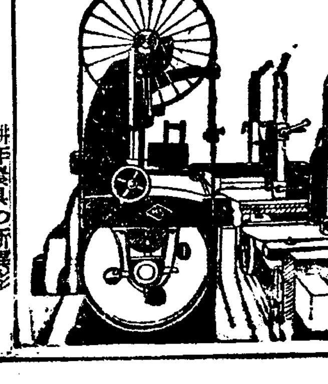
注文法 ●特賣期間ガ切迫シマシタカラ至急注文下サイ●特價販賣ニ付振替或ハ爲替ニテ書籍代ニ送料ヲ添ヘテ前金注文ノコト●代金引換ヘ一切御斷リシマス

三省出版部 東京市向島區東三ノ一六 振替東京一六三三九番

鹿牌製綿機 各種鐵製 木製あり 新古棉打直しとして最適當 構造堅牢
機動發油重油 ウエム 取扱簡單 一槓型 重油完全燃燒 新型五ー六馬力 八ー十馬力
經濟燃料 木炭發動機 精米·製材·農工用最適 5馬力より40馬力迄 木炭一貫目で石油二升分の出力あり
特許大前式自動耕耘除草機附 中央式脫穀機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機械部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五具類製材用品 直輸入商
品質保證 國産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二四



機械と工具製造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八木機械工具合名會社 電話新町二六〇四番 振替大阪二九〇四九番 商報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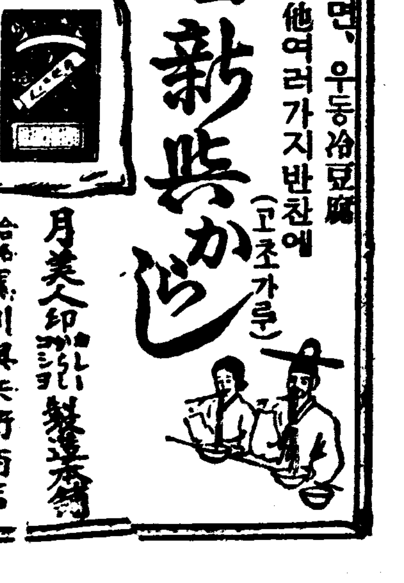
サンコウ 噴霧塗裝機 材料と器具と塗裝法
三黃商會

玩具仕入은一次當店에
百般教育玩具卸問屋 新品在庫品豐富
大阪市東區住吉町五十五番地 大阪玩具卸問屋勉強會 會員 角木商店 電話東一五八二 振替大阪五九六〇番 (型錄進呈要三錢)

婦人子供服用 ボタンバックル (郵券五十錢要ス新見本送)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中川釦店 電話東一五二一·一五二二番 振替大阪三五六二三番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綵、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二三號 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一九 振替大阪二八六三番
商報進呈 見本은五十錢要(切手)

소면、우동 冷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에 今新兵からし(고초가루)
月美人印からし 製造本舗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實業學校十七校에 支那語講座開設(必須科目)

最高學年에 每週三時間乃至四時間

六日附로 各道知事에 通牒

총독부당국에서는 지나에대한 정세의 변화에따라 국책에 순응토록 위선조선으로부터 유망한 청년을 지나에 진출시키려는 방책을 강구하게 되엿는데 이에대하야 먼저 간이하고 또 실제적인 지나어의 속성회(速成會)를 도모할필요가 잇스므로 금년도부터 각전문학교(專門)사범학교 중등학교(주로실업학교)에 지나어강좌를 개설하기로하고 작일부로 중등학교에 지나어강좌 개설에 관하야 관계도지사에게 다음과가튼 통첩을발하엿다

一、支那語는 商業學校及農業學校의 最高學年에 課하고 每週授業時間數는 商業學校는四時間 農業學校는 三時로함

二、支那語는 必修科目으로함 그結果 最高學年每週教授時間數가 商業學校規定第五條(三十時間以內)又는 農業學校規定第五條規定(二十四時間以內)의制限을 超過하는 境遇에는現在의學科目及每週教授時間數를 考慮하야 此를適當히變更할것

三、講習開設國庫補助(對道費)는 如左히補助、但所講이 遲延되는 境遇에는 月割로補助함

1、講師給 年額의五割(二四〇〇의五)

2、經費 一學級當年의 五割

四、支那語를課하는學校(一〇〇의五割)

1、京城農業學校二學級 教師一人
2、京畿商業學校一學級 同一人
京城商業學校二學級 同一人
仁川商業學校一學級 同一人 京畿
5、裡里農業學校二學級 同一人全北
6、木浦商業學校二學級 同一人全南
7、大邱農林學校二學級
8、大邱商業學校二學級 同一人慶北
9、釜山第一商業學校二學級
10、釜山第二商業學校二學級 同一人慶南
11、平壤農業學校一學級
12、平壤商業學校一學級 同一人平南
13、鎭南浦商工學校二學級
14、新義州商業學校一學級 同一人平北
15、咸興農業學校一學級
16、咸興商業學校一學級 同一人咸南
17、江景商業學校一學級 同一人忠南
計 一七校 一二名

京城平壤間複線 五月에工事着手

三個年繼續事業·總經費三千八百八十萬圓

大田、三浪津間도逐次施行

철도국에서는 승객화물등의일반적교통량의 증가와 시국관계에 따라 삼천팔백팔십만원의 예산으로써 금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 경의선(京義線)경성 평양(平壤)사이 이백륙십『키로』에 복선(複線)공사를 시행하기로되엿는데 그동안 측량도거의 완료되엿스므로 오는 오월부터 실지공사에 착수 하기로 되엿다 공사진행순서구역은 아직결정되지 안햇고 어데든지 하기 쉬운곳부터 먼저 착수하야 뛰엄 뛰엄 건너서 진행할 예정이라한 그러고 일방으로 현재 진행중인 경부선(京釜線)영등포(永登浦) 대전(大田) 사이의 일백오십팔『키로』와 삼랑진(三浪津) 부산진(釜山鎭)사이의 사십륙『키로』의 복선공사는 금년안으로는 준공되기로되엿스므로 다시 소화십륙년도부터는 대전 삼랑진사이의 이백삼십사『키로』도 복선을 부설할계획으로 불원간에 측량대(測量隊)를 실지에 파송하야측량에 착수하게될터이라한다 여대전 삼랑진사이에는 추풍령(秋風嶺)의 노픈고개와 생현(省峴)의 긴『턴넬』등 공사진행에 어려운장소가 만히 잇서그공사비도 사천만원가량이나들게될터이며 공사에한도 아무리빨리 진행한다더라도 삼년반내지사년은 걸리게 될터이라한다 그래서 철도국에서는 이구간(區間)의 복선공사에착수하게되는때는 일층면밀한 과학적설계(設計)를 하여야 될터이여서지금부터 그중대한임무를마틀기술자를 엄밀히 선택하고 잇는터이라 한다

(사진은 수송렬차안의광경)

窃盜職工

부내인사정(仁寺町)칠십이번지 우신(友信)양복점직공 김수용(金壽容)(二○)은 륙일새벽 여섯시 라사양복감일곱벌 약삼백여원어치를 훔처내다가 마츰 갓치잇든 직공에게들킨바되여종로서에 검속되엿다

無錢取食하고 暴行

부내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오백칠십사번지 [illegible]

各學校合格者

東新中等商業科

朴[illegible] 李光雨 徐任玉 尹永[illegible] [illegible] 金相演 金正九 李彰[illegible] 金武基 咸允植 金仁煥 黃中林 朴[illegible] 金子斤 宋[illegible]柱 朱基元 尹[illegible] 鄭[illegible]永 [illegible]

公立商業實修學校

(以上九十四名)(百八十名)

[illegible] 以上

高等法院에新判例兩件

直接責任者아니라도 賠償의義務가잇다

鷄林自動車部相對慰藉料請求訴訟 被害者家族에게勝訴判決

자기가 직접경영하는 사업이 아니래도 그사업을 감독지휘할 때에는 그사업을 집행함에당하야 자기사업의 피용자(被用者)가 제삼자에게가한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잇다는신판례——부내 [illegible]정(町)구십일번지 강금이(姜今希)(三○)라는 여자는 작년사월에 부내 황금정(黃金町)삼정목 이백구십일번지 게림자동차부 경영자 좌좌목영삼(佐佐木榮三)과 운전수장 (中澤手藏)을 상대로 피고들의 사용인 운전수 안재구(安載逑)의 운전하는 자동차에 그의 외아들 유근원(柳根源)(六)이가 치여죽엇다하야 위자료로 피고들은 각각오천원식 내라는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야 일심에서 원고는승소 피고들은각각 원고에게 위자료천원식을 주라는판결이 내렷다 그런데피고중의 한사람인 좌좌목영삼은 자기는 영업의직접책임자가 아니라 다만자금만 융통한터 불과한터로 영업자가 책임을지는데 자기가도 책임을 지는것은 부당하다고 불복상고하야 고등법원에서 흑백을가리게 되엿는바 도변재판장은 비록피고는 직접 영업을 하는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나 그사업의 지휘감독을 하는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잇다하야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다음과가튼 신판례를지 엇다

强制執行에 關한異議……

『유체동산(有體動産)을 차압할때에 채무자의소유가아니고 제삼자(第三者)의 소유라고 이의(異議)가잇슨것을 채권자가 아럿다하여도 그당시의 사정과밋제시된 증거자료에따라 제삼자의 소유란것이 일반에게 알수업는상태에 잇슬때에는 채권자가 그진가를조사할의무가잇다고 말할수업슴으로 다만제삼자의 소유라는 구두(口頭)이의가잇슴에대하야 집행을중지하야 경매수속을진행하엿다하여도 채권자에 불법행위의책임이잇다고 볼수업다는 신판례가 지난오일고등법원에서 일반의주목을이끌게되엿다

소화십년사월팔일 평양부축전리(竹田里)합자회사 축전(竹田)약방대표사원 리정오(李廷梧)는 선교리(船橋里)하헌희(河憲熙)를 상대로 피고인 하헌희가소화십년이월이십이일에 개인리정오의 채무관계로 원고회사의 소유물을강제차압하야 이의함에불구하고강제집행을해버린것은 불법행위라하야 손해배상을 평양지방법원에 제기하엿는데 일심에서는 승소하엿든데 피고의공소로 이심에서 패소하고 다시상고하야 그간고등법원에서 흑백을다투어 오든바도변(渡邊)재판장은 원고는 피고인 리정오의개인의 소유가아니라 합자회사 축전약방의 소유라고주장하나 리정오의세사람이 경영하는회사로서 리정오가그대표사원이되고도사무소가 다른곳에잇는 만큼 어떤것이 리정오개인의소유이고 회사축전약방의소유인지 명확치안타 그러고 유체동산가치권을 가지고 집행하는것으로 채권자를 집행관리가 가령 제삼자의 소유물을 잘못하고 차압하엿다하여도 채권자에게 그가집달리로하여곰 잘못하게한 특별한 불법행위가 잇섯다고 인정되지안는한 그에게 책임을지라함은 부당하다하야 전기한바와가튼 신판례를지어 상고기각판결을내리엿다 여러하야 축전약방은 결국패소하고말게되고 채권자인 하헌희는 책임을 지지안케되엿다

輔仁學校生徒 執行猶豫判決

학교에서 노는시간에 동무와 말놀리기 작난을하다가 말다툼이생기여 찻우든끼에 동무를어통판에 미여치고 한번때려로찬것이 원인이되야 죽게한혐의로 상해치사죄에걸리여 법정에서게된 부내돈암정(敦岩町)사백사십이번지 보인(輔仁)보통학교오년생송순택(宋淳澤)(十七)에관한 언도공판은 칠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복본(福本)재판장수석 행산(行森)검사 관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징역이년구형에대하야 징역이년에 집행유예 사년간의 동정잇는판결을 내리엇다

思想犯激減

昨年의治維法違反受刑者中 轉向者는七割以上

소화십이년중의 치안유지법위반수형자(受刑者)수는 백구십명인데 이것을 전년에비하야보면 륙십칠명의 감소이오 소화팔년에비하야보면 실로 그삼분의일도 되지못한다 그들수형자에관하야 조사한바에의하면 구할가량은 초범(初犯)인데 교육정도로본다면 초등교육을 바든자가 륙할이요 중등교육을바든자가일할륙분 무교육자가 일할륙분고등교육을 바든자가 륙분을 점하고잇다 그리고 년령상으로본다면 이십세로부터 삼십세까지가 수형자의 칠할륙분을 점하고잇다 또이들수형자의 전향(轉向)상태에 관하야는 그중 구십삼명은 아직조사가되지 못하엿스나 그외의백이명중에서 그칠할 즉칠십이명은 이미전향을맹세하얏거나 또는전향할것이 확실한자라한다

北行"女禁列車"

朔州로품파리가는南朝鮮勞働者千餘名

異鄕의봄차저今朝京城驛通過

총독부사회과의알선에의하야평북삭주수풍언제(水豐堰堤)공사장을향하는 남조선로동자의 제이차수송렬차는 봄비가청승궂게나리는 금칠일아침열한시에 경성역을통과하얏다

이수송렬차는 어제륙일저녁여섯시에 경부청도(淸道)역을출발하야 도중 대구(大邱)김천(金泉)대전(大田)등의 각역에서 각각그군치로동자 일천구십사명을 열네대의 객차에담아실코래일아침칠시까지 신의주(新義州)에직행하는도중 룡산역(龍山)에서 점심변도를 도르기위하야 잠간정거하엿다

차가 『홈』에닷자 일제히 차창박그로 얼골을내여밀고『서울이다』『서울이다』하고 웨첫다 한강철교를건너서는 곳서울이라는말만듯엇는터이라 룡산역을경성역으로 아는모양이다 차안은 비교적 말숙하엿다 다만화장실과 헛간에는 지개! 지개의산덤이다 팔개월한정의기한으로 타향에 품파리가는길이라 가족은 모두고향에남겨두고 지개하나식만가지고 가는길이니 이민렬차처럼 바아지 가는것은 가질뿐요가 업서다 일천구십사명 가운데 단신으로가느니가 구백구십두사람 가족을다리고 가는이가스물일곱명이며 가족을 가지고잇느니 칠십오명이니 여기에 라고잇는사람의 대부분은 총각이나 홀애비뿐이다 어린아히가 한두명 여자가십여명에 불과하니 여기는『금남의집』(禁男家)이어니라『금녀렬차』(禁女列車)엿다 시골농사들은 어떠케하고 가느냐고 물어보앗더니『걱정할만한농사 일이잇다면 무슨청성으로가다닙니까』하면서 모두들 믹우서버렷다 차가여유고 경성역에닷자 그들은『경성서울은 여기다』고하면서 모두 꿈에본든서울을 신기해하면서『홈』으로 밀려나오랴하엿스나 인솔자의주의로 하는수업시 얼골들만내여밀고『야! 야! 서울이다 서울이다』하며 웨처기만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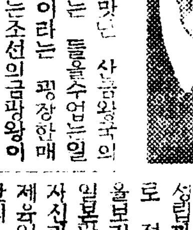
그러고 어둠은 신의주에서공사현장까지 이백오십리는 트럭으로서 수송하리라 하는데 인솔사는 각도에서 삼사명식게원이 따라왓고 총독부에서는 사회과의 문등오(文藤午)씨가 현장까지 가게되엿다

(사진은 수송렬차안의광경)

一攫！六百五十萬圓

鑛山王崔昌學氏의平北鑛山을"日本鑛業"에

賣買價額으로超巨彈



황금광시대를맞난 사금왕국의 조선이아니고서는 들을수업는일금육백오십만원이라는 굉장한매매가잇섯다 이는조선의금광왕이라는 일홈을밧고잇는 시내죽첨정(竹添町)일정목 최창학(崔昌學)씨가 가진평안북도벽동(碧潼)삭주(朔州)구성(龜城)초산(楚山)의 네군내에잇는 칠십여개광구(鑛區)를 일본광업주식회사(日本鑛業)에 파는데 그대금이 일금육백오십만원이라는것이다 매매성립까지에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절충도만핫든모양이나 성립을보기는 삼월삼십일동경(東京)일본광업회사본사에서 최창학씨자신과 회사책임자간에성립되여 제육일부터 광산현지에서는 광산의 설비전부와 종업원에이르기까지 최창학씨손으로부터 일본광업에 인계하는중이다 그동안 조선에도 금광매매로 백만원이상 가는것은 누차잇섯다하나 대금육백오십만원의 매매라고는처음되는일이라 가난하다는조선의 일로서는 과연 이야기꺼리가 아닐수업다 그러고 그광산은 약백만원의설비를하고 일년에 백만원가까히 채금을 하여 왓다는것이다 이에대하야 일본광업회사경성지점에 물으니『우리회사에서 맛기로된것만은 사실이나 아직자세한 계약내용을 못드렷습니다』고 금액을 말하기를 꺼리고잇섯다 또최창학씨의 사무소에서도『네넘겨서 인계중인데가격은 아직모르겟는데요』하고말하엿다 (사진은 최창학씨)

봄의裏叛者！

本町署管內에自殺沙汰

본정서관내에 자살사태!부내 명치정(明治町) 일정목사십번지 [illegible]는사람 도전구지(島田久之)의제자 전중정회(田中正輝)(二○)는 유일밤 다량의『아다링』을 먹고 자살한것을 칠일오전일곱시엽 집안사람들이발견하고 본정서에게출하엿는데 원인은 조사중이라고한다

▲경기도양주군미금면 지면리(楊州郡渼金面芝綿里)손운순(孫[illegible])(一七)은 유일밤 가족파 다소말다툼을한후 부억에 나가서 양잿물을먹고 고민하는것을부내『세브란쓰』병원에 다려다가치료중인데생명을건지겟스리라고한다

▲강원도춘천군동산면 (春川郡北山面)에본적을두고 삼월하순부터 부내 봉래정(蓬萊町)일정목 영락려관(永樂旅館)에 묵고잇든 광산업 리정우(李正宇)(三三)는륙일밤 외출 하엿다가 도라와서 고민 하는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상촌병원(上村病院)에 다리고 가서 치료중인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안허 수면약을먹고 자살하려든것갓다고하며 생명에는 이상이 업슬것갓다고한다

色鉛筆

▲특히전차정류장에서 만히볼수잇는 더러운 풍경의하나▲침과가래가입안에서 넘치는것을어떠케하느냐하면 배앗던가 생켜버리던가 하는 두길박게 업는데▲그중에서도 생켜버릴수업는것은 배아터버린다고 시비의 여지가 업겟지만▲그러타고배아터 버리기만하면 그만일까。궤… 궤…。 아무런데라도… 그러키야하지 땅이넓고밟고 다니는 곳이니 침한번 배러버리는것이니 아무런곳인들 어떠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나▲어떤 정류장에서 보면 그한사람의 한번식 배아터 버린침파 가래가 너더분하니 여개무는 풍경이라▲보기에 더러운 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날도 따뜻해지니 그침과 그가래에무엇이 섯기어 엇던지간에 휘날려서 춘풍에 다시 사람에입에 들어갈것은 어떠커나▲심지어 전차안에서 까지 퀘하는양 반이 잇스니 말이됩니까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黃海關東州滿洲樺太等地에잇서 不連續線을伴하야 徐徐히 東進하고잇다 高氣壓은東邦及蒙古方面에擴大되고잇다 北滿洲는개이고 南滿洲及朝鮮은 흐리고半島는國境에 小雨가나리고잇다 西日本은 개엿는데 大部分은天氣흐리고잇다

豫報 京畿地方은 오늘밤은 가랑비가나리고 明日은 흐렷다개엿다한다 京畿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一六度六
同 最低 三度五
今朝最低 六度八
今日正午 十度二

各地天氣(今朝六時現在) 京城曇 仁川晴 新義州曇 中江鎭曇 元山曇 江陵曇 釜山曇 全州雨 木浦雨

自轉車時代遂ニ去ル

オートサン号自轉車オートバイ出現

外交ニ・配達ニ・通勤ニ

機關(エンジン)絕對保證付販賣

輪業界の大革命 世界的新發明

1ガロン 130哩
1キロ 3厘弱
スピート 45キロ

各地販賣店大募集

市內外交員募集

東京遞信局納品車

¥260.00

各官公署商店必需品

自轉車ニ乘レル人ハ誰デモ乘レル

稅金自轉車同樣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〇

株式會社オートサン發動機製作所 朝鮮總代理店

オートサン商會

電光四八〇番 振替二九一三六番

漁港新浦의飛躍相

海岸線의屈曲無雙 無二天然的良港
府制의實施를唯一한目標로 大新浦建設에邁進

新浦는 天興의 防波堤인馬養島를 抱擁하고잇스므로 水產興隆의第一條件을 具有한天然의良港이다 海岸線의 延長은東으로西까지 五里十八町馬養島周圍四里八町合九里二十一町 屈曲이 甚할뿐더러 暖寒流地點인 關係로魚族의分布가 넓고 또無盡藏이기때문에十個里의 漁村이되엿고 絶好의錨地及漁場이 形成되엿다。沿岸에는川南工業會社를 비롯하야 朝鮮漁業、朝鮮水產、能美漁業會社等大財閥들의 豪華한工業陣과 大規模의 鰮肥油工場들이櫛比하야 水產工業都市로 新浦의新興氣分을 充滿케한다。

新浦는 地形上大工業地帶가될充分한資格을 具有하고 잇는바 一、廣大한地面(新浦와靈武一圓)을잡고잇는것 二、豊富한 水源(龍源面豐南里東大川)에서 引水하야 工業用水 할수 잇는 것 三、原料獲得이 便利한것等을 들수잇다。今番에는新浦와靈武間中央地에 水產加工業인 日本油脂工業會社가 設立될것이고 馬養島에는 全朝鮮第一流의 造船工場이 設置工事進行中에잇스니 大新浦建設階段에 一步一步前進하고잇는 現狀이다

이제 沿革、地勢、產業關係를一瞥하면 이러하다

沿革

中古에陽化社라稱하고 現陽化面과 合體하엿든바 距今九十年前小陽化社라稱하고 陽化에서 分離하다 然而明治十四年에至하야 小陽化社로부터 南陽化社라稱하는 別社分離를하고 更히 小陽化社로부터 中陽化社로 別社分離하고 三個社가되다。明治四十三年 面制施行에 依하야 新浦面이되여 昭和十一年四月一日 咸南第一號行政區劃의 變更에依하야 邑上里富昌里의 二個里를 陽化面에 編入시키고 昭和十二年七月一日邑制를 實施함에 至하다

歷代의 面長 邑長 朱鳳元 馬濟河 朴寬熙 朴東駿 李楨燮 毛利由

歷代里長 禹 現 禹鼎九 李成學

面積人口

面積二九四六方里 人口 昭和十年八、八二八人 戶口一、三五二七戶 昭和十一年二一、八八人 戶口 四二〇四戶 一年間人口 三三六六 戶口六七七戶激增

右人口膨脹相은 即新浦市街의 隆昌을 表詔한다。이와가티急激한人口增加는 他都市에서 그類例를볼수업다 地方的 一漁村에不過하엿든 面이一躍邑으로 昇格을보고 道內의 大邑과 억개를나란이하고 將來大進展을 目標로現在에 꼿다운 行進譜를奏하는情狀은 文字그대로 飛躍的發展이다 昭和十二年漁期의 人口는約三萬六千名을 突破하엿다 如斯히 新浦는 邑制가 實施하야不過幾個月內로 雨後竹筍勢로 澎湃한成長을보이고 잇는바 今後邑民의 齊把努力과 相俟하야 不遠한 將來에 府制實施의 最終點에 突進하고야 말것이明若觀火의事實이다

位置地勢

北靑郡의中央에서稍南端西部에 位함 北部는 高丘山陵으로起伏하엿고 南部는日本海에面하야 馬養島를 抱擁하엿다 上寶珠、寶珠、芦坪、蓮湖四個里는邑野로되며 農產地가되다。

交通

交通은一般的으로便利하다 新浦ー馬養島間每日定期發動船來往 新浦ー北靑ー六臺間每日數次連絡 新浦驛乘降者數 二四九、八五七人(昭和十一年)元山、咸興다음가는 旅客驛

敎育機關

公立學校	收容人員
公立尋常小學校同	六七八人
私立小學校 同	八四人
寶珠簡易學校同	一四六人
私設學術講習所	七九人
書堂	一八〇人
幼稚園	一二一
	二四四

校는志願兒童의五〇%以上收容을 不可能케하는現象이니 敎育機關擴充은 急先務에 急先務이고 또新浦는水產中心地인 關係로 水產敎育機關의急設은 絶對必要하다하겟다

官公署

邑事務所、警察官駐在所、漁原組合、金融組合、郵便所、鰮油肥水產組合支部、仁川稅關新浦出張所 煙草販賣所、新浦驛、登臺、巾着網組合、無線電信局

行政區劃

新浦一、二、三 四區新湖里、蓮湖里、六臺一、二區、芦坪里 寶珠一、二區、文岩里、中興里、土城里、島西里、石井里

產業

水產高昭和十一年集計表에依함

鰯	三、四四二、〇〇〇圓
鯖	七一、二〇〇圓
明太魚	四四〇、八八〇圓
其他雜漁	三九九、五四〇圓
合計	四、三五三、六二〇圓

水產製品高

(乾明太)明太萊干	一、一二八、〇〇〇圓
明太卵	三〇六、九〇〇圓
鰮鱗詰	三七六、一六五〇圓
鱈鱗詰	二二〇、八〇〇圓
鰮粕	二、一四六、九七五圓
鰮油	一、九四四、九四六圓
肝油	三〇五、〇三〇圓
合計	七、五七八、五九八圓

右漁獲及製品高 一一、九三二、二一八圓의 巨額으로 本道(咸南)總生產額의 七割을占擴하고 新浦總生產額의 九割餘란 劃期的數字를示現한다 新浦는 水產에 依存하엿스므로 將來의 繁榮策은 水產興隆이 中軸이될것인바 新浦府制實施도 水產業者의 一致團結한 奮發에서 招來될것이므로 一般漁業者의 奮起를바래서 마지안는다

工產高

燒酎	一〇八、〇〇〇圓
金屬製品	六〇、五〇〇圓
木工製品	四四、九〇〇圓
明太堋樽	三三、四五四圓
陶器	五、三〇〇圓
其他雜	七七、四二〇圓
計	三三九、五七四圓

農產高 米、甘藷、粟、麥、 七四六三〇七、九五〇圓 畜產四三、五〇〇圓 林產四、三五〇圓 蠶產三、四〇〇圓 이統計에依하야 工、農、林、畜產物은全產額의八分에不過한다

貿易 昭和十一年度

輸移入	一二、二九五、二〇〇圓
輸移出	一二、二二二、〇〇〇圓
合計	一四、五一七、二〇〇圓

港勢伸長의關鍵 懸案解決이急務
築港、上水道施設等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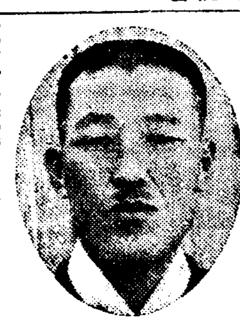
新浦에는 火急한施設을切要하는問題가만타 即築港、上水道、下水道、市街計畫、銀行務致問題等인바 그中築港과上水道는 가장緊急한것이다(築港問題는 幾年前에 發表하엿기에 玆에省略)上水道問題는 龍源面豐南里의東大川引水案이 具體化하야 昨秋新浦邑長을中心으로 上水道設置期成會를組織한後 三十萬圓(十五萬圓地元寄附十五萬圓은 邑起債)의工費를投하야 急速히實現하고저 目下猛活動을開始중인데 更히汎濫을要하는 築港問題마저此際에實現을期하게된다면 그야말로 新浦萬年의發展을 招來하는根幹이고 永遠한繁榮의基礎工作이 이로서된다고할것이다 上水道만解決되드라도 新浦名物의하나인 傳染病이解消될것이고 各種水產物品의淸潔、品質이向上되야 一層聲價를노피될것은勿論 水揚이豐富하므로 漁期渠中船外의多數船舶이 給水때문에 寄港할것이事實인바 上水道實現은 이곳繁榮에 一大拍車를加하게된다 따라서 財閥의關心處가되는同時에 新浦ー靈武ー六臺一圓의 廣大한地面은 大工場들이 續續進出하야 大新浦로 連繫될것이決定的趨勢이다

이地方의主人公들

水產界의成功家로 新浦會社功勞者
新浦漁業組合長 金鍾祜 氏

新浦水產界의長老이라면 누구나 먼저金鍾祜氏를들게될것이다 그만큼氏의存在는크다 氏는新浦의 馬養島에서태여나 島中에서唯一의大成功家로 斯界에君臨한立志傳中의大事業家이니 氏가今日의地位와巨萬의致富에成功한 裏面에는七顚八起의 不屈한奮鬪가숨어잇다 氏는當五十一歲로 幼時漁文을修得하고 少年時부터水產界에投身하야 今日에 이르기까지 不休不息의 難關을 突破하야 水產界의 巨人的榮冠을 獲得하엿다 氏는 現在 大規模의 鰮肥油工場과 巾着網漁業을 兼營하고잇는바 昨年에 四萬三千圓 數日內로 二萬桶漁獲高를 突破하엿다하니 氏는 또한 幸運兒이라 안할수업다 氏는 大正十二年度 新浦漁業組合創立時 首動의 一人이되여 第一期組合監事에 推選되엿고 大正十五年度間組合長으로 新任하야 今年까지 十三年間을 一貫하엿스니 어一事로水產界에 얼마나 盡瘁하는가를想像할수잇다 이와가티 氏가水產界의發展을 爲하야 貢獻하는그功績은 不朽라할것이다 即水產發展中心機關이고 漁民의指導機關으로 偉大한成果를 發揮하는 新浦漁業組合이 道內의第一位의 레-벨까지 오르게된은氏가 그養育에 獻身的努力한結果에 基因한것이니 그功勞는 燦然히 빗나고잇는것이다 氏는天賦이 仁慈하고 同情心이 남달리 豊富하야 社會事業에 對하야 賢明한 理解를 가젓슴으로 必要한事業에는 自潮하야 率先寄附하는일이 許多하다 最近新浦上水道敷設期成會에 二千圓巨金을 喜捨한것을보아도 氏의아름다운精神을 알수잇다 當地에서 富豪富稱을 바드면서도 事業上 守錢奴로 알려진 몃몃巨富들과 比較할때 氏의 存在는그들의 規範이 되고 模範이되야 喜捨하는金額이 年에五千圓이 超過한다하니 氏의美德에는누구나 讃揚하고敬意를 表하여야할것이다(寫眞은金鍾祜氏)

極貧에서大成功
朝鮮水產工業株式會社取締役 金用浩 氏



新浦實業界에 赫赫히빗나는 大成功家로 金用浩氏를 들게된다 氏는 極貧한家門에 태여나서 남달리 쓴맛을 보앗다 새삼스럽게 過去를 一瞥컨대 氏는 新浦商界外小規模雜貨商을하야 貧困과싸우기를 二十餘年이엿다 그러다가 當時의海陸物產業인 森野商店에 二年間奉職하고나와서부터 貧窮을 克服하는幸運은 드디여오고야말엇스니 昭和元年鮮魚와明卵貿易商을自營하야 萬餘圓利益을獲得한것을비롯하야 鰮肥油、乾明太貿易商에서 數萬의致富를한것이 現今의成功을 가저오게한基礎가되엿다 이가티 一躍成金家로된 氏는 現在朝鮮水產工業會社專務取締役에 着任하야 資本金十萬圓이고 從業員百數十名인 同會社를運轉하야 氏의卓越한經營方針과 能達한商業的手腕은 더욱同會社의繁榮을 促進한다고한다 그뿐아니라 理財에賢明한頭腦를가진氏는 新浦幼稚園及義成學院

古岩里의開拓者
努力의人 金萬吉 氏

勤勉한努力으로 一貫하야 今日의 地盤을 차진 金萬吉氏이다 氏는 慶南釜山府東萊出身으로 今年四十三歲의 漁業家이다 일즉이 鄕里普校를 良好한成績으로 卒業하고 二十歲부터 漁業界에 進出하야 斯界에猛活動하엿스나 二十八歲까지 何等의成功을 보지못하얏다한다 그리다가 當時에 海產物이 豐富하다는 名聲을듯고 新浦에移來한것이 昭和元年이엿다 氏는最初新浦四岩에 根據를잡고 刺網漁業과 鰮油工場을 經營하엿다 말하면 新浦鰮肥油製造業界의한 先驅者이다 그리하야 이곳에서 氏는過去의千辛萬苦한 報酬를맛드시 昭和二年度에 所期의鰮魚豐獲을하야 一躍今日의成功을 하게된것이다 그後昭和六年古岩里에移住하야 漁業兼農業에 注力하는一方 古岩里의 開拓을爲하야 粉身碎骨의 努力을하야 當地의發展에 적지안흔 功勞가잇다

實業界의巨星
朴南柱 氏

氏는 新浦水產界에 雄飛하는 一大巨星이다 現在明太製乾 明卵及肝油製造 鰮肥油製造等多種의 工場을經營하고잇다 그中明太製乾場은 宏大하기로 新浦第一이고 明卵製造場의 規模크기로 有名한터인데 此等製品은氏가 北海道工場을 視察하고와서 改善에全力을 傾注한結果 그製品은 各地方에 好評이자자하다 氏는 吾光原漁商店 新浦出張所의主任으로 活動하는一面에 北靑邑會議員 咸南倉庫會社重役 新浦漁業會役員 公普校學務委員公職에잇서서 公共方面에도 多大한 努力을하고잇다

新浦發展에對하야
邑長 毛利由太郎

我新浦邑은 東海岸屈指의 良港이고 鰮、明太魚 大漁業의 中心地로 年產一千餘萬圓의 漁獲高를보이는 吾等邑民의자랑으로 할바다 昨年七月一日을 期하야 一躍邑으로 昇格을 하엿고 漁業方面의 飛躍的發展에 基因함이 크다 如斯한 天惠를 大大的으로 活用하야 斯界의 隆昌에 努力하여주기를 바란다 即新浦는 바다의 發展과 同時에 陸地方面을 無視하여서는 안되는바 現今北朝鮮各地에는 化學工場이 簇生하고 잇스니 新浦도 蓮湖里六臺方面의 大平野는 天惠의 良港으로서 洪原東大川을 利用할수잇는바 工場要地로서의 要素를 具備한바 本邑은 發展을 期함과 共히 大工場을 誘致하는 것이 最大事이며 海陸兩面의 發展에서 大新浦建設과 繁榮의 永遠性을 가저올수잇다 此等 發展의 基礎事業으로 上水道와 新浦六臺를 合한 市街計畫 防波堤 護岸工事를 施行하야 下水整理等은 最大急先務인바 邑發展을爲하야는 今後邑民의 負擔 增加가作할것이요 邑民의繁榮과 幸福을爲하야 또相當한 犧牲에 伴할 것은 不得已한 事實이니 邑民各位는 큰 抱負로써 벗처말고 援助하기바란다

名所舊跡

新浦公園 市街의 西部에在하야 新浦全景을 一眸下에 展望할수잇스며 櫻花가 滿開하는 春節에 觀櫻客이 雲集하고 夏期의 夜間大會는 年中行事의 하나로有名하다。

金州丸碑 明治三十七、八年日露戰爭時 馬養島近海에서 露國艦隊에게 擊沈當한 我運送船金州丸乘組員의 忠魂을 記念한 碑로 新浦公園頂上絶景地에 建立하엿는데 伯爵長谷川好道大將閣下의 揮毫인 同碑文은 莊嚴觀을 보한다。

燈臺 馬養島東端部바다가淸澄하고 風光이 明媚한 山頂에位하다 同燈의 着工은 明治四十五年 開燈 大正元年十一月十五日 事務、航海標識 暴風雨警報 氣象及海洋觀測 光力一萬四千燭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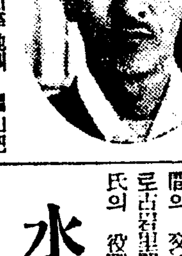
新浦蓮華庵 同庵은 市街北部怪巖奇石의山中에잇는데 佛堂이頹廢하야今年寺宇를改築하고저現今運動中에잇다고한다

實聖庵 은新浦上實珠里에在하야그景致조키로有名하고觀客이不絶하다

靑年實業家로
金光百貨店 金命根君

新浦中央에서 開業한지 不過三年에 飛躍的人氣를 集中하고 百貨店界를 席捲하는 店主는 金光百貨店이다 同店의 經營主는 今年二十七歲된 新進氣銳한 靑年金命根君인바 君의 拔群한 商業手腕은 新浦中央地帶에 뿌리를 박고 進出, 今春에 新浦中央에 現代式모던二階店舖를 新築하리라하니 君의 飛躍은 크게 期待된다

水產業界의重鎭
果斷性만흔 崔河允 氏



率直하고 活潑한中에도 果斷性잇는 人物에 崔河允氏가잇다 氏의事業을보면 明太底角網、鮫動漁船刺網、巾着網漁業、그리고 馬養島、科原群仙等地에 鰮油肥工場을 所有하고잇스니 그機關은 水產界에 巨星的存在임에 틀림업다 氏는 果斷性이 豐富하고 熱性잇는 人物로빗나는 業績의 가지가지가잇다 昭和十年檢湖道路改築、陽化私立誠一學校創立者 一人、同校의 名譽校長에 二年間在任하야 村落의 兒童敎育事業에 功獻함이크다 昭和六年에는大敷網에쓰는「オビキ網」의用道와製造方法을 鄕里의漁民에게 敎導獎勵하야 年產八、九千圓의鄕土陽化의重要特產이 되엿다하니 그功績은不朽히빗나리라 氏가가지고잇는抱負漁村振興과 漁民의 致富二大問題에 對하야 氏의 理想을實踐되여지기를 希望하는바이니 氏의更一層發奮하야 漁民을爲한뚜렷한結晶體가 出現하여지기를確信하야 마지안는다 (寫眞은 崔河允氏)

섯다 例事하면 昭和八年度以來 新浦古岩里鰮油肥製品에 對하야 現地檢査制로하게한것 同十一年古岩里에 電燈을 誘致케한것、同十二年黃榮潤氏等과 發起하야 商龍山을 中斷하고 新浦古岩里間의 交通路를만든것 등인바 實로古岩里開拓者로 또新浦發展上 氏의 役割은자못 큰功獻이라할

水產業界의巨星
水產界先進者 金榮吉 氏

躍進 水產新浦에 一助役者로 巨星的存在는 金榮吉氏이다 氏는 十九歲부터 漁業界에 投身하야 四十四歲의 今日까지 獻身的努力을해오던바이니 長久한歷史로보아 水產界의元老이다 投機業에서 成長한 氏는 一擧手一投足이 過敢하고 大膽하야 義俠心이만흔主人公이다 氏는數次悲運에빠젓스나 그때마다 猛然히 反撥活動하야 今日에 確乎不拔한 地位를 獲得한 熱烈한 鬪士이다 氏의 八字수염은 堅固한意志의 所有임을 表詔하는바 現在 巾着網 漁業 鰮油肥工場等 自來에 奔忙하면서도 恒常貧弱한 漁民에對한 同情心이 豐富하야 三萬圓되는 漁民의債權을 消滅시켯다 그뿐아니라社會公益事業에 對하야서도 年數千金을 앗기지안는外 氏의 重厚한 人格에 一般은 敬慕하는터이다 多事多端한 우리新浦地方에 어느方面으로든지 氏에期待하는바 자못크다 (寫眞은 金榮吉氏)

靑年界模範人物
黃柄化 氏

新浦靑年實業界에 萬丈의氣焰을 吐하고잇는분은 黃柄化氏이다

新浦社會指導者
商務協會長 禹鼎律 氏

高潔한 人格者로 靑年의 敬慕를 한몸에 集中하고잇는분은 禹鼎律氏이다 新浦社會의 暗黑面을 機會잇는적마다 大聲疾呼하야 깨우처주는 大雄辯家이고 今日新浦社會의 어느角度로보든지 氏의公正한 頭腦와 圓滿한 그人格은 社會의 至寶的存在임을 늣기게된다。氏는當年四十九歲 新浦胎生 明治四十五年 京城私立普專法科를거처 大正四年까지 敎任에 奉職하고 爾後는 社會事業에專力、公職新浦商務協會長、義城學院長、學父兄會副會長等을 歷任하고잇다 우리社會를 爲하야 發射하는 爆彈的氏의 獅子吼는 今後 더期待되는點이만타 (寫眞은 禹鼎律氏)

社會의일이라면 빠짐업고 第一線에서 努力하는 無我의人이다。氏는 世上에 알려진바와가티 信義가두텁고 責任感이 만흠으로 一旦公約을 매젓다면 赴湯蹈火도 不辭하는性格의 所有主이다 아직一般의記憶에 새롭거니와 年前新浦市民大運動會開催의直前 氏의唯一한 令息이 不意의慘變을 當하엿슴에도 不拘하고 氏는 運動會長으로서의 職責을 끗까지다하엿다 小我的인 凡人으론 到底히 想像할수업는 偉大한 氏의面影은 여기잇다。그리고 昨年新浦商務會長으로 被選될때 年來로 會長年俸이잇는것을 一切밧지안키로 宣言하엿다 이는오로지 商務協會의 公事를 私事와가리하고 無報酬努力을意味한 氏의 尊敬할無我的精神의 發露라할것이다。

實業界의重鎭
黃泰潤 氏

當年五十九歲의 老軀임에도 不拘하고 實業界에 勇躍하야 靑年의 氣槪를 보이는분은 黃泰潤氏이다 大正十年부터 昭和五年까지 明太貿易商을 하엿고 同六年부터 五年間은 咸南永興文川二個所에 製鹽工場을 두고 꾸준한努力을 하엿스나 利害別無하엿다고한다 昭和十一年度氏와 密接한 連絡이잇는 元山大盛商會의 廉田鐵作氏와 合作하야 鰮油肥製造業界에 轉業한것이 今日에成功한 導火線이 되엿다한다 氏는 現在新浦古岩里에 一萬七千圓投資로 工場設備하고 鰮油肥製造를 經營하고 잇는바 契約巾着船一隻으로 昨年에 一萬七千桶鰮魚를 油肥로 製作하엿다한다 如何히 同工場의 設備具全함을 推知할수잇다 氏의 唯一한 希望은 巾着網許可인데 今後一層一規模의事業案을 樹立하야 健鬪하고잇스니 所期의計劃이 未久에 達成될것을 確信하는바이다

釀造界最高權威
新浦邑會議員 高治完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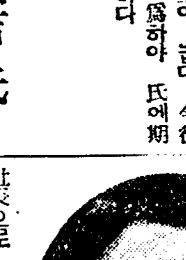
北靑郡內十二個所釀造中에서 最高權威이라고하는 新浦湧泉釀造場은 新浦驛頭一角에位한바 躍進新浦產業界에 燦然히光彩를發하고잇다 同工場의 經營主인氏는 天才的頭腦와 多年의累積한經驗에 依하야 製品은飛躍的으로 그聲價를올리고 製造高도每年激增하야 年三千數百餘石에達하며 賣上高年十五萬圓을 突破한다하니 氏의非凡한手腕을 窺知하기足하다 昭和六年度咸南釀造品評會에最首位에入選되여 赫赫한賞狀을바덧스며 爾來에도數次入賞되여 斯界에覇權을잡엇스므로 그販路는 咸南各地을爲始하야 他道에까지及하고잇다 이가티氏는實業에熱烈할뿐만아니라 新浦邑會議員 北靑郡學校評議員等公職에잇서서 諸方面에獻身的努力을하여오는中이고 社會事業을爲하야서도 年四千五百圓이라하는 巨金을喜捨한다하니 氏의仁慈한 慈善心에 感激할을마지안는바이다 (寫眞은 高治完氏)

溫厚正直
金炳憲 氏

氏는 淸貧한 農家에 태여나 十九歲까지 農業에 從事하얏다 그러다가 뜻한바잇서서 商界에 轉向하야 小規模로 雜貨商을 經營하엿든바 天來의 人品이 溫厚正直하고 親切、叮嚀을 本位로 顧客의人心을 收攬하엿스므로 今日은 新浦商界에 屈指하는 店舖가 되엿스며 氏의明敏한 商術은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야 船具業刺網業明太子製造業을 兼營中인바 商業界에 뚜렷한 地盤을차젓다 氏는當年四十歲의 靑年實業家로 世態의쓰린經驗을 맛보리만큼 同情心도만코 人望이 놉다 今後商界의 發展을 爲하야 氏에期待되는바가不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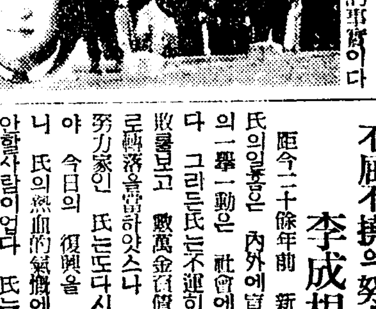
海產物委託販賣業鰮油肥工場을 兼營하는外에 新浦唯一의業場을 하고잇는바 當年三十六歲로 敏腕한才略과 敏捷性은 氏로하여금 더욱이 發하야 前途가 有望한것이다

波瀾曲折한一生
料理業界大王 金命濟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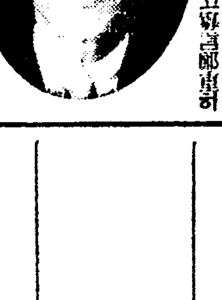


官界에서 實業界에、實業界에서 料理業界에로 轉轉한 氏의 一生은 文字그대로 波瀾曲折이다。氏는 今年五十六歲、京城富裕한 家門에태여나 明治三十四年 日本大學을 卒業한後 警視廳三年間在勤、東洋拓殖會社光州支配人으로 一年間勤務、過去의 京城蓬萊町 朝鮮運送株式會社社長으로 一年半就任한氏는 過去經驗에비추어 智略兼備한 偉才임에틀림업다 元來好事男兒의 性格의 所有主인 氏는 一處에 固定되을 滿足치안는 多角的活動의 才腕家엿다 그리하야 氏가 新浦海產業과 料理業界에몸을던저 活躍하엿스니 때는 二十二年前이다 당시의 新浦는 明太豊獲으로 時運이조흔때이지라 氏의經營한 網船十隻은 十七萬八千圓의 利得을 하엿스나 그後鰮網十五隻의 大凶漁로因하야 二十二萬餘圓의巨金의損失을보아 當時의 元山大盛商會와 興原社의

流行界의總本營
橋本洋服店主 李成律 氏



(寫眞은 李成律氏)



씨는 運動界에 李成律씨라하면 모르는사람이 업스리만치 그이름은 有名하여젓다 昨年 全朝鮮씨름大會에 二等賞冠의 制覇를비롯하야 每年咸南各地의 씨름大會에出戰하야 勇名을 날리고잇는 君은 當年二十八歲로 體軀長大한 運動家이다 氏가經營하는 橋本洋服店은 新浦洋服界의 流行과技術의 最高權威인바 그着數로보아 年四百着이니 斷然 리-드하고잇다 그리고 斯界에 時代의流行과 技術의向上을 圖謀하야 東京의洋服社와도 連絡이잇고 每年京城洋服界의 動向을 調察하야 斯界發展에 不斷한 努力을한다하니 더욱 洋裝界에 寵愛를 바들것이 決定的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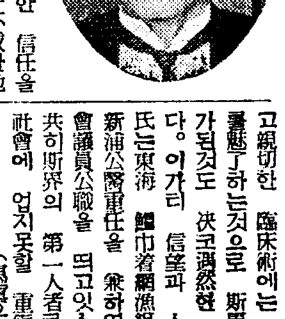
勤勉한漁業家
全男律 氏

일즉이 北靑農業學校를 修業하고 醫術界에서 五年間奮力한 氏는 뜻한바가잇서서 水產界에 轉向하야 明太卵製造 大敷網業 鰮油肥工場等을 兼營하야 健實한 奮鬪를해오든中 昭和十二年六月에 崔河允氏와함께 巾着網許可가 나오자 順風에돗단格으로 氏의 事業은 大繁榮을 招來하엿다。氏는 陽化出生으로 今年四十六歲로 仁慈하고 寬高한 人物이며 每事에 經濟的精力家인데 社會事業에도 만흔關心을 갓고잇는 분으로 鄕里의 代表的人物로 推薦하야 足하다 氏는 鄕里의振興啓發의第一線에서 活躍하는 外에 金融評議員等公職을帶하엿다 (寫眞은 全男律氏)

不屈不撓의努力家
李成根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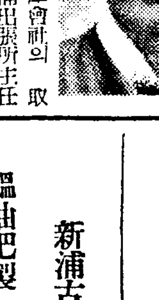
距今二十餘年前 新浦의巨富로 氏의일홈은 內外에宣傳되엿는데 一擧一動은 社會에 波紋을그럿다 그러든氏는 不運히 事業에失敗를보고 數萬金負債를지는身勢로轉落을當하엿스나 不屈不撓의 努力家인 氏는또다시 惡戰苦鬪하야 今日의 復興을 招致하엿스니 氏의 熱血的氣慨에 感服하지안할사람이업다 氏는當年六十三歲의 年長者로水產業에 再次進出하야 獻身的努力을하고잇다 또一面新浦의開拓者인 氏는多方面에 燦然한功績을나타내고잇다한다

醫療界의覇者
公醫 李檀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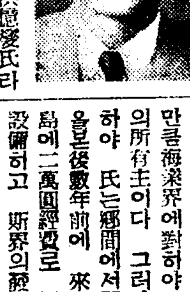
新浦醫療界의 絶大한 信任을 한몸에 集中하고 確乎不拔한地盤에잇는 第一人者로 漢山醫院長李檀氏가잇다 氏는醫術에 適當할뿐아니라 明朗한 處世術을가진社交界의 花形人物이다。氏는新昌面 昇平里生 當年三十八歲로 大正十二年 京城醫專을 卒業하고 總督府醫院 外科에서 一年間勤務하야 醫術에 實地鍊磨를한後 三水郡三水面 公醫로 任命되엿다 그後北靑邑에서 最初에開業하고 努力을 하다가新浦에 移轉한것이 於焉十年前이니氏의 能熟한 醫術은 수만흔患者를 回生시키고 特히 親切한 臨床術에는 一般患者를感服하는것으로 斯界에 權威가된것도 決코偶然한 일이아니다。이가티 信望과 人氣를 어든 氏는東海 鰮巾着網漁組의 托醫新浦公醫重任을 兼하엿고도 邑會議員公職을 띄고잇스니 名實共히斯界의 第一人者로서 우리社會에 업지못할 重鎭이다。(寫眞은李檀氏)

多角的活動家
朴南鉉 氏



富貴榮華四福이 가진분은 氏일것이다。氏는 當年五十一歲로 十萬長者의 地位에 잇스니 今日 新浦公論은 氏를 거치지안흠이업다 即 新浦金融組合長、同邑會議員、同漁業組合通常委員等을 歷任하야 어느方面에 關係치안흠이업다。氏가 知才兼備한 人物임을 이一事로 可히推知할수잇다。이外에도 咸南倉庫會社의 取締役이고 同會社新浦出張所主任으로 活躍하는中이니 氏의活動範圍는 多角的 多方面으로 期待할바가만타 (寫眞은朴南鉉氏)

活動的事業家
洪億燮 氏



新浦鰮油肥製造業界에 洪億燮氏라면모를사람이업스리만치 氏의存在는뚜렷하다 氏는慶南胎生으로當年四十四歲 人情味가豐富한好印象을주는活動的實業家이다 일직이海產界에投足하야 爾來二十年間斯界에서 鍊磨成長하엿스니 만흔海業界에對하야 該博한頭腦의所有主이다 그러나幸運이未達하야 氏는鄕間에서不意의 打擊을보든後數年前에 來新하야 馬養島에二萬圓經費로 鰮油肥工場을 設備하고 斯界의發展에꾸준한努力을하고잇다 氏의抱負는新浦에 뿌리를박고水產業에 獻身할것뿐이다 우리地方의發展上氏의進步的活動을 크게바라마지안는다 (寫眞은 洪億燮氏)

新浦展望版發刊辭
新浦支局長 禹淸洛 白

本展望版發行計畫은 昨年이엿스나 不得已한周圍의事情으로 遲延되여 本意아니 不拘하고 玆에發行하게되엿습니다。人物紹介는主로 人物手腕業績을本位로하고 筆者로하여금 心琴에올리는바잇고 生活上 조곰이라도 參考가된다면 千幸으로하겟습니다。筆者는 本紙에紹介한 當面問題에 對하야 有力者諸氏에게 敢然히 呼訴하옵는바 우리地方有力하신분들中에 衣食住가豐足하고 巨萬의致富만으로 能事로알고 獨自의 快哉를 謳歌하는분들이 잇다 地方에對한認識을 正當히把握하고 一時라도 我利我慾을떠나 社會에寄與貢獻하는 熱과誠을發揮하신다면 當面問題等은 그러케 實現못될것이 아니바 무엇보다도 富豪諸氏의奮發이 必要하고 그實施는 現下新浦展望의 緊急事라 하나이다 끝으로 本展望版發行에 援助하신 有志諸氏에게 衷心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祝新浦紹介版發行

新浦邑古岩里 鰮油肥製造業 李陽洙 姜亨燮

新浦邑 救世醫院 院長 金昌鎬

池豹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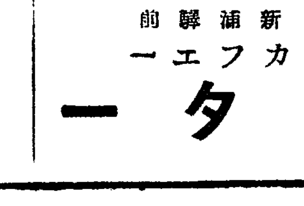
魯錫禧

新浦邑 機船底曳網 機船巾着網 鰮油肥製造業 及海陸物產 金淳默商店 新浦出張所 本店 江原道三陟港 支店 元山

元炳善

湧泉釀造場 電話十八番 私書函十八番

社交의殿堂 美給總出動써-비스 新浦驛前 カフェー スター



新浦古岩干 鰮油肥製造工場 元胤洙 金台鎭 千鍾祐 李相哲

新浦邑 洪壽星

新浦邑 李鳳昇

家庭

사월하고 오월은 홍역이 돌때입니다

세살아래는사망률이七十五퍼센트

예방주사를맞게합쇼

해마다 사월로부터 오월에 걸처서 홍역(痲疹)이 가장 만히 류행합니다 홍역에걸리기는 다섯살 이상의 어린애들에게 가장만흔데 어와함께 사망률도 나이가어릴수록만흔데 통게를볼것가트면 백에칠십오는 두살이하요 그다음 세살이 백에 열넷 다섯살이상은 사망률이 극히적습니다.

예날사람은 홍역은 어릴때할수록 쉽게치른다고 햇읍니다만 이것은 큰잘못이고 될수잇는대로 크도록까지감염되지안케해서 여섯살이상이되어 면역(免疫)을 엇도록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집안에서 언니누나가 걸린 경우에 그동생이 감염안되기란 여간곤난한일이아니니까 이병이유행되는철에는 어린애에게 예방주사를 마치도록 하면조흡니다.

홍역예방에는 아직 리상적인 방법이 발견되어 잇지안습니다만 오늘날 까지연구된것으로는

1、홍역에걸렷다가 막나은 환자의 혈청을취해서주사하는법

2、어른의 피를 뽑아서 만히 주사하는법

3、다른사람의 혼합혈청(混合血淸)을 쓰는법

어러케 세가지 방법이잇습니다.

이중에서 제일먼저의 방법으로는 홍역을 알코난아이의 피를뽑는것이니까 좀가연간일이 실행하기어려운일입니다.

그러고보니 그다음의어른의피를 뽑아주사하는것은실행하기에매우 손쉽습니다 즉 어버이나형제의 피를뽑는것이니까 그러한들것이업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될수잇는대로는 나이적은사람의 피가조코 또 한사람의 피보다는 두사람 세사람의 피를합처서 맨든것이 리상적입니다 어머니의 피로서 삼사십년이나지난 면역성이 적은피는 효과가 역시적은수가 잇습니다

셋재번의 방법은 젊은튼튼한 사람의 피에서 혈청을취해서 주사하는법인데이것도 떡상려되고 잇습니다 이상의 주사는 이미홍역에 감염되어 잠복되고잇는 기간에도 조코혹은감염되기전에 해버리면 홍역에걸리댓자 떡쉽게치를수잇습니다. 홍역을 한번알키전에는 영속적인 면역을어들수 업스니까 주사를 마젓다고해서 평생에 홍역을 안할수는업습니다만 알드란도 극히경하게치루는방법 즉 주사로해서 수얼케홍역을 치르도록하는것이 조켓지요 그런데 어린애몸에 피를 이삼십그람이나 혈청을 넛는것이라해서 공연한겁을 먹을필요는

풍미진진한 현미커피차

……게실지 모르나 결코 해가 되는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요

『커-피-』가 수입제한을당케되여 갑시폭등햇습니다. 그러드래도 매일 커-피-먹는데 습관이 부튼분은 담배처럼 조석으로 안먹고는 못배김니다. 어러분은 커-피-대용으로 잘볶은현미 잇스면 될께데 영양이되고 국산품이고맛이 그럴듯한 현미(玄米)커-피를 잘맛게 하십시요. 이것이면 가정에서간단히 맨들수잇스며 커-피-처럼 머리와 위를자극하는일이 절대업고 영양가치도 충분합니다 너무오래된것은 향취가 업스므로 조금식맨드러서 차단는통에 담어두도록하면 조켓지요

재료로 현미한홉, 콩한홉깨빈홉을 준비합시요 현미와콩은 빨가케되도록 볶가서 연에다가려 가루를맨듭니다. 그다음에는 깨를볶가서 다른그릇에 너코 비벼서 가루가되게합니다. 여기에다가 먼저맨드러둔 현미와 콩가루를너코 다시한번 잘갑니다. 이것이 현미커-피-인데 커-피-찬을 맨드는데는 치사시로하나 당목떠서 찻잔에너코모당(角砂糖)을 너코 뜨거운물을 부으면됩니다

시금치

다듬어먹을때

나물가운데 싱싱하는 사람의게 제일 조흔것입니다。그런데 우리는 그것을국을끄리거나 데처서 무처거나하는데 아시는바와가티 나물은 너무삶으면 자양분이 빠지지 안읍니까。그러니까 반드시 데치거나끄러서먼 먹을게 아니라『스끼야끼』가튼걸 할때는 생으로 그낭저처 접어너어서 먹으면 맛도잇고 대단히 조습니다。다만 그대로 너흐면 뿌리쪽에 흙안에가 잘 붓는지 안흐므로 거기를 칼로 엷게자로 어여서 너흐면 조흡니다。또는 물에다 잘 씻지안흐면 흙니세기 나기 쉬우니 그점도 주의합시다。

봄의행락중에 맞기쉬운도적

마음과 눈을밧작밝힙시요

인제 꼿철이되여오니 창경원으로 덕수궁으로 여러분 가정부인들께서도 구경을 다니실때가 되엿습니다。

그런데 꼭 한가지 걱정이잇지요 집을 죄다 비여노코 문에다 잠을쇠나 덜컥 채여노코 가보십시요。집안이 죄다빈틈엔 어떠케든지 도적이 뛰입니다。이런것을 잘 단속하시지안흐면 구경이 되레 곡경이되는수도 업지안흐니 이아래 적는것을 자세 보시고 주의해주십시요。

빈집노리는패

一、할수잇는대로 집을 비우지말일。

二、부득이 온집안 식구가 통털어 외출하게되는 경우에할수잇는대로 거트로 보기에 답박 빈집처럼 뵈이지 안흐게해야합니다。되도록 비지안흔체해둘 필요가잇습니다。대문에다 커드란 잠을쇠를 채여둔다든지 밤에 전등불을 꺼두는것은 이것은 빈집이라는 광고를 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三、집을 비우게될때는 경찰잘 살되얼이올시다 혹이 도적놈은 무슨 장사인체하고 기웃기웃 안을 살핍니다。

四、이웃에 집좀 돌봐주기를부탁하고 또 집을 마른 이웃에서는 무슨 수상스런 사람이 눈에 뜨이지안나 잘 살필것입니다。

소매치기

一、귀중품은 공연히 거례 가지고 다니는것은 대단 위험합니다 사내들은 양복 속기안주머니에 넛는것이 조습니다。

二、시계줄은 거트로 보히지안케 너흘것

三、사람만흔데서 공연히 거려와서 어릇거리는 작자가잇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릴일

四、전차나 기차가운데서 자기가방이며 그와비슷한 가방을 갓다 놋는자는 단단히 주의하셔야합니다。

五、마루에다던지 문간에다 함부로 물건을 두지말고 구두나 고무신을 죄다 얼든에 보히지안케 가져들여둘것입니다。

六、상점에서는 반드시 어린애라도 하나안처노는것이 아주 비어두는이보다 낫고。

七、물건값은 할수잇는대로안에다 감치도록。

八、핸드빽 그밧게 무어든지손에 들엇거든 단단히 절일이며 행여핸드빽을 남의아헤서 속이 보히게든지말것입니다

세수비누

세수비누를 끌느는데는 대개 갑만흔것이 조흔줄 알지만 다그러치는 안습니다。즉 비누가 광택이잇되 너무 번쩍거리지안코 몸이 보드랍고 고흔것이 조흔것이고 처음에번적 번쩍 빗나며 몸이 거칠어보히는것은 나쁜것이올시다。

세수비누엔『오리브』기름을녀허 만든것은 때도 잘빠지고쓰고난다음 살결이 부들부들하게 유해서 썩소치만 납분것은그러치안습니다。

납분비누는 재人물이 약간드는데 때는빠지나 쓰고난다음살결이 빽빽해지고 거칠어지는흠점이 잇습니다。

이러한 조치못한 비누는 사실에 혀끄츠대보면 짠맛이약간납니다。그리고 대개 써보시고아시는바와가티 조흔비누일수록 가는거품이 만히나는데납분비누는잘일지안습니다。때를빼는것은 이거품인데 거품이 잘일지 안흐면 때가 잘빠지지안흘건 한리치가아닙니까。그리고 나쁜 비누는무겁고 오래두면 터지기잘합니다。

지차리우

내꼴부텀보자

남의 우수운꼴을 보고 놀리고 욕하고 하면서 제꼴 사나운것은 도무지모르는 사람이 잇습니다。남의 얼굴에 무든것을 손고락질 말고 제콧등에 부튼 바풀어나떼어라

(글쓴사람 정진수)

시앗본젊은새댁

직업소개소찻는젊은여인네들

집버리고 나선길이 오모니사리

분얼굴분홍저고리는구직비결

월급은팔원부터십오원

서양사람 빈민굴――우리는가끔『스크린』우에서 구경합니다 허름한 채림새에 캡을 꺽구로쓴자 벙두루 쓴자 여덩이가쪽째진 바지를 입은자 모다모혀서 오속한 골목길을 끌리잡고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저기에 맛처『왈쓰』를 추고잇습니다。

이러한 정경을 볼때 우리는 한업시 엑소틱하고 때카타니한 생각을 가지게되는데 그러한장면은 외국에만 잇는줄 알엇드니 웬걸요。

어느날 황금정 이정목 경성부 직업소개소엘갓드니 거기엔 우리가 영화화면에서보든바와바슷한 사람들이 잇지안켓습니까。

경성부 직업소개소란 문패가붙튼 조고마한 건물은 몹시때가끼고 응달저 보기에 을손년스러웟습니다。

그러한집 대문밧과 마당안에는 사람으로 갓득합니다。사람이라야 성년아니 젊잔은 어른은 뵈이지안코 그저 십오륙세로 어십세 전후의 사나히아어 둘어 모엿습니다。

그들은 하나가티 겸경고구라 양복에 맨머리人바람 혹은 모자라고 겨우 형용만 남은것을 올려노코 양지쪽에들 웅크리고 섯거나 안젓거나합니다。

모두 어직업소개소에 구직하러온 청소년제군이엿습니다。그들은 양쪽바지주머니에 손을찌르고 유리창가튼데 걸려안저낫선사람이라도 가면 눈이 뚜러지게 바라보는데 생활에 쪼들닌 사람들이라 무사기하고 부드러운맛이업고 어쩐지 그눈들은 독수리와가티 번쩍거렷습니다。

다시 안으로 드러가서 어꾓소장되시는이의 여러가지 자상한동게와 말씀을드르면서 기자는 연해 사방을 살폇습니다。

『이곳은 어려니 저러니해도실직자의『미까다』지요。』

『부인구직자 즉 남의 식모로가는이들은 어디에 잇습니다 그분들을 맛나고 싶습니다』

『오머니 말슴입니까 저쪽에잇습니다』

기자는 류리문 넘어로 드려다보니 뚫안 분홍비단저고리에 분세수까지 말숙하게한 젊은녀자들이 그득히 들안저는데 뉘집 맛며누리들이 모인자리갓지 이러케 직업을 차저 온사람들 갓지안습니다。

『대개 생활이 어려워서 와지요?』

『반드시 생활곤난으로만 오지 안햇습니다。여기에 통게상으로 보면 가정의 파탄으로 다시말하면 남편이 첩을 엇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온 사람이 만습니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또그러케만 보히지안습니다。무엇보다도 생활난이 첫재겟고 다만그들이 그러케 거치장을 홀린스럽게한것은 그것도 한개의 장사속일것입니다。겸모양이 얌전해야 얼른얼른 잘 뽑혀가겟스니까 그것도 일종의 상업수단으로 밀모치안흔것은 아니겟습니다。

『취직률은 조습니까?』

『네ー그건 해마다 사람구하는 주인보다 고용인으로 갈사람들이 부족합니다。다른 취직보다 별다른 현상일것입니다』

『월급은 대개 어떠케됩니까?』

『조선가정으로 가는 사람은 제일 아래가 사원으로부터 칠원까지고 일본내지 가정으로 가는사람은 팔원으로부터 십오원가량입니다』

『조선가정으로 만히 갑니까그러치안흐면 일본내지 가정으로 만히갑니까?』

『조선가정으로 가는사람은 거이 업습니다 최다 내지 가정으로 가지요』

어때 저쪽 류리창 엽헨 엇던 안경쓰고 스푸링을 입으신 풍한 브인한분이 테불 엽헤안젓습니다 그리고 그아페는 아래우로희게입은 마나님 옥색저고리에머리를 따아내린 색씨 도합 오륙명되는 사람이 그귀부인 아페 느러섯습니다。

『옳지 식모 시험을 보는게로군』

가만히보니 부인은 사람구하러온 분이고 그아페 고용은러는 사람들이 벌려서서 제각기 저를 써달라고 선을 보히고잇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제일 희망하는바는이소개소가 국영으로되고 어머니보다도 소학교를 갓마추고 어데갈데업는 아동들을 지도하고싶습니다。아므로 그러케 되겟지오。지금은 이러케 빈약하니까요』

저ー쪽 끄테 웬 마누라가갓난 어린애기를 아프로 돌나업고 젓을 먹이는데 그경경이대단히 가궁합니다。

『애기 머리와 손이 따끈해서 열이 엇군요。어듸 알치안어요』

『아-니요』

그어린애는 극도로 영양이조치못하고 잔병치레에 밧짝말럿는데 그래도 어머니 젖꼭지를물고 한손으론 다른 젓꼭지를 맨작맨작하고 잇습니다。

『이런애기 다리고 어떠케 남의집을 살겟소?』

『그리게 말얘요。나가든건 안되겟지요?』

가만이보니이런 여자는 어데갈데 업슬건 뻔한일입니다。

우리일반 가정에서 대개는식모를 쓰는데 점점더 사람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형편인데 거기엔 여러가지 원인이 잇습니다。

첫재 월급이 적은것 둘재 말과 그박게 여러가지를 너무 소홀히 하기때문에 잘오지안흐려 합니다。이러한 점을고려하여서 소위『안잠자기』라는 식모에게좀더 친절하고 우대를 한는것이 조흘줄로 생각합니다。

(사진우은 직업소개소에 모인녀자들 아레는 사무실에서 문답하는것)

長篇小說

愚氓 【2】

朴泰遠 作 洪祐伯 畵

輕便鐵道風景(2)

차가 역구내를 완전히 버서낫슬때에야 옥화는 백주사의마주편으로 가서 안젓다。그러나 그에게는 외면을 한채, 게집은 눈물어린 눈을 들어 창밧게편산만 바라보다 남자는 잡깐무어하고는 망을 부처볼까 하엿스나 즉시 단념하고 생각난듯이 권연에다 불을부처물엇다。

쉬사이 업시 소리만이 울려올 뿐으로 차실안어 잠간 잠잠하엿슬때

『아、이、맹가녀석 오래간만에 보겟구나?』

인사체면 차리지 안코 벌럭질르는 거츤목소리가 바루 백주사의 등뒤 두어간통에서 들려온다。돌아다보니 술은 아침부터 어디서 그러케 먹엇는지 곤주이된 얽음뱅이 친구 하나가 좌석을 차저 아프로 나오다가 한구석에 안젓는 조그만 사나이를 발견하자 눈을 똥그러케 뜨고 한번 그 어깨를 잡어흔들드니 그대로 마즌편 빈자리에가 덥석 주저안저버린다。

『아 이거참 얼마만이여?』

맹가는 인사성잇게 고개조차 한번 끄떡 하엿스나 얽은친구는 술이 아니라도 원악이 탈벗룩이 고약한 모양이다。

『그래 맹가야。이번엔 어딜또 가는 길이냐? 제엔장할 돈버린 이놈 경치게 헌다。』

『돈버린 내가 무슨 돈버리야……』

『엇다 어놈。내가 다안다 다 알어。너 가을에 일백오십원이나 들여서 번쩍허게 새집 젓지。서울 갓든김에 네여편네 비추비나 사다 주엇다。그나 그뿐이냐? 왼통 번견하부다에 치마저고리에……』

누가 들으면 대수나는듯키, 한바탕 소리를 질러가며 주서대는동에 맹가는 술먹은 사람만큼이나 얼굴이 벌애가지고,

『원, 괘ー는소리……』

겻눈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돌려보는것이엿스나 술주정꾼은그런것을 어루 알안곳 안한다。

『뭐? 괘ー는소리라? 하、하하……이녀석아、내가 팔찐 알구잇는걸 그래?』

바루 제자리 여페 타구가 노혀잇건만 그는 그냥 마루바닥에다 침을 퇴ー뱃고 갑작이 바루 은근한 목소리로

『허지만、맹가야 너 이녀석아 나니깨 일러주는기지만 정신바짝 채려라、바짝 채려』

정신은 무슨정신을 채리라는것이냐고 물어볼새도 업슬뺑이 얼굴을 잔뜩 찌어다보앗스나,

그러나 맹가는 그말을 곳까지 듯지안햇다。그만 귓바퀴까지 샛빨애가지고

『아 이건 자꾸 웬 쓸데업는 소리야?』

몰멘소리를 버럭 질럿다。

그 조고만 친구에게서 그러케 꾸지람을 들을줄은 파시뜻 밧기엿든듯시게, 주정꾼은 잠깐 눈을 똥그러케 뜨드니,

『하、하、하、원 자식두 용열허이。다ー 저위해 일러주는 말인데 골을 웨 내며? 그러지 말구、애ー、끌련 잇건 하나 다우。』

맹가는 이맛살을 잔뜩 찌프렷스나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주머니를 뒤저 담배를 끄내 주엇다。그리고 분명히 행실이단정치 안흔 안해를 집에 혼자 버려두고 나온듯시픈 그는주정꾼이가 주책업시 늘어노흔말에 그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또우울한 모양이다。

그꼴을 발아보는동안에 옥화는 저도 몰으게 조금전의 서로을 이젓다。백주사와 눈이마조첫슬때 그는 턱으로 그편을 가르치며 상끗 우섯다。남자는 기다리고나 잇섯든듯키 홍 하고 코웃음을 친다。계집이 다시 맹가편으로 눈을 주려할때 그러나 그는 바루 백주사뒤에 안저잇는 한젊은사나이를 발견하고 잠깐동안 정신업시 그의 얼골만 발아보앗다。개집은기생사리 오년에도 열칠어 그만큼 탐스럽게 잘생긴남자를 본일이 업섯든것이다。

맹가는 그속시 얼굴이 밝애가지고

『아-니 어드메서 이러케 약줍자셧소?』

술꽤 먹앗을 한마디 끄내보앗스나 꼼보는 막무가내다。바루 술기운과 함께 한숨비슷한 것을 토하면서,

『제엔장할 이녀석은 친구 술한잔 안사주구, 그저 돈푼이 모아서 녀편내 꽁양이 극진허건만 흥 그걸 누가 알어줘야 말이지?』

맹가는 좀녀 당황하여

『아 그래 섭녑。해주엔 왜갓든거요 무슨 볼일이 잇섯나?』

이번에는 술그머니 혀닙이라고 존대를 하여보앗스나 술취한 사람은 그런말쯤 귀근처에 범접도 안시킨다。

『허지만 맹가야。그것두 따져보자면 네잘못이다 네잘못이야。애당초에 인물 하나만탐내가지구 장가들기가 불찰이요 또 그런 미인을 밤낫집에다 혼자 내버려두구 나댕기기가 불찰이요……』

資生堂化粧品デ(데)ー 開催

四月一日부터末日까지 ◆ 右記의販賣店에서

資生堂化粧品一圓分買上하시는분마다 抽籤으로 빠짐업시 粗景呈上

更히下記와如히 **特別大奉仕**를하옵니다

四月中은 價格引上을 아니합니다

마츰내 四月一日부터 化粧品課稅가 實施되여 不得已價格引上을하기에이르럿습니다 그러하오나 弊社는 永年의愛顧에 報答하려하와 多大한 犧牲을不顧하옵고 四月中에限하야 從前價格으로 奉仕하겟습니다

化粧品데ー는從前價格과景品의二重써ー비스

期間中의 買上은 從前價格奉仕와 景品과의 二重써ー비스로 됩니다

■花椿會員인분들에게는三重써ー비스

會員인분들에게는 上記한 二重써ー비스外에 구ー폰券을 添加해서 特別三重써ー비스를합니다

◆五月一日부터定價略改正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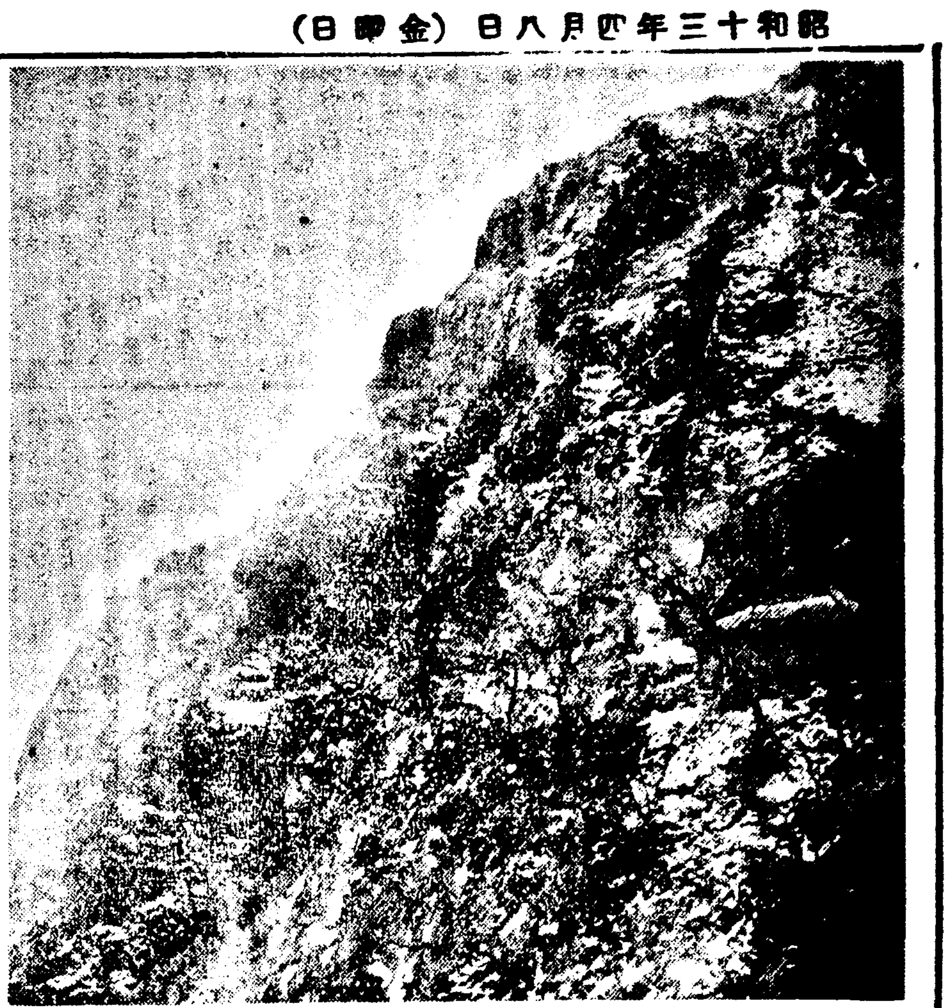
化粧品데ー參加체인스토아

京城府 本町 三越
同 山岸天佑堂
同 平田百貨店
同 夏川支店
同 三中井
同 保谷洋品店
同 愛生堂
同 齊藤小間物店
同 北島藥局
同 文化研究所
同 黑田信盛堂
同 川濱濟生堂
新町 白石商店
同 宮島屋
南大門通二丁目 丁子屋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局
鐘路通り 和信
同 韓靑化粧品店
同 德永商店
同 東亞婦人商會
苑南町 大學堂藥局
濟洞町 天濟堂藥局
堅志町 坪倉藥局
黃金町三丁目 橘本藥局
同 黃金堂藥局
總督府賣店 協和會
西大門通り 西大門藥局
義州通り 中島義生堂
竹添町壹 小山田藥局
鍾路五丁目 山崎仁壽堂
湘町一丁目 本田商店
南大門通り 更生堂藥局
吉野町一丁目 岡田永盛堂
練兵町公設市場 金丸洋品店
南山町 翠山莊アパート賣店
漢江通三角地 杉本藥局
同一三 蒔田天壽堂
同一六 宮本洋品店
同 資生堂藥局
龍山元町 大和屋洋品店
仁川府新町 山城屋
宮町 小西小間物店
同 百石小間物店
同 福岡藥局
本町 淸水小間物店
水原邑本町 谷口百貨店
開城府南本町 孫洪俊商店
同 金在鉉百貨店
海州南本町 村田洋品店
黃海道延安 井上百貨店
春川本町 佐々木百貨店

同花園町 江原道高城 鐵原本町 元山府仲町 同 同 本町 仲町 同 咸興府本町 同 同軍營通 本町 咸南興南本町 北靑 永興 利原 城津 本町 吉州吉州邑 鏡北永安 羅南 本町 牛騎町 淸津府彌生町 同 敷島町 港町 雄基 本町 會寧 本町 同 西門外 咸北 上三峯 羅津 同 同 阿吾地 圖們市 銀河街 同 間島省延吉 同 龍井村

松村洋品店 藤原藥局 野田商店 鐵原藥局 夏川分店 一宮小間物店 富三屋 飯山洋品店 明治屋 三中井 三中井 花月堂 夏川分店 ペニヤ商店 東洋百貨店 杉田小間物店 窒素會社供給所 田代藥店 岩田商店 利原鐵山供給所 吉市藥店 福圖商店 窒素會社供給所 カガシ屋 伊勢屋百貨店 浦本百貨店 夏川分店 中村洋品店 丸見屋百貨店 毛利商店 中丸洋品店 間島貿易 上田小間物店 津田商店 稻垣藥局 カガシ屋支店 小山支店 窒素會社供給所 平喜洋行 紅屋小間物店 永樂號 倉藥店 木崎藥房

(昭和十三年三月現在)



秋=月=山=記=(一)=

秋月山의菩提庵

李殷相

金城山城의 西門을 벗어나니 山길마다 어걸어지속오로 溪澗의 물소리가 아름답다.

山城터앞으로 지나다가 시냇물에 상(穰)배는 老媼을 만나「베틀노래」의 六十餘句 長民謠를 採集할수있섯음은 넘우나 재미잇섯다

濟昌街路를만나 얼마쯤가다가 酒滿川을가로건너 深月里라부르는 조고마한 山村을 돌어서니 보리밭는處女가 마치중달새갓다

西으로 音희솟은 峰이虎圓峰인데 여것이 秋月山의 最上峰이다. 絶壁으로 기어오르는三十里 上峰中턱에 재비집가티 지어붓친것이 菩提庵.

사람의 작난도 저만하면 鬼神을 울릴것하다. 어서 올라보고시픈마음에 다리는 더 다

옷이거워지고, 아직도 산골바람이 차거운데 등에는 땀이솟는다.

숲으로 얽은사다리, 고리지어드리운 쇠줄, 새끼줄, 나뭇가지, 바위틈, 이러것이다 菩提庵오르는 方便이다

오르고오를 인제는 다와다할목세 危險한 岩壁으로 겨우길이나고 그아래는 千丈의 絶壁인데, 岩壁에새긴刻字「金宗壯光偉夫人興陽李氏殉節處」라한것이 발을머물고 읽고기란듯이 눈아페나타난다

興陽李氏는 金將軍의夫人으로서 十八에 同甲으로서로만나 將軍은二十九에 戰死하고 그夫人은 當年二十二 寃讐에 붓잡히하야 지금 이 殉節巖絶壁에서 떨어져죽은이다.

菩提庵은 寶慶禪師의 創建이라 傳하거니와, 城內와 峰中에는 景으로 이만한 자리를 擇한것이 드물거다

黃昏의뒤를이어 山城쪽으로부터 조용한재로 야단스런 닭벗이 알려거리오는 소리어저 열어제킨다.

木枕을 세워다 뉘엇다 밤이깊도록 잠못이루엇다. (菩提庵에서)

鄕土文化를찾저서 (20)

學芸

觀燈의朝鮮的故事

그時日과 習俗의變遷에對하야 (上)

權相老

四月 八日은 우리들의 大導師이시고 大慈父이신 釋迦牟尼世尊의 降誕하신 慶日이므로써 敎團으로서는 記念의 式典이잇서서 佛前에 齋供養을올리며 一般社會에서도 奉讚을하야 왼世界에서 歡喜를 다하거니와 特히 朝鮮古來로부터 一般이 年中行事로 하여오는것은 곳 四月 八日의 觀燈이다 다시 말하자면 四月 八日은 다만 佛敎人의 慶祝하는 날로만 되지아니하고 一般民俗에 慶節이 되여서 이를테면 正月上元이나 五月端午나 八月 秋夕과 한가지치는 名節로 되여서 士農工商이 그하로는 慶祝하기 爲하야 休業을하며 男婦老幼가 모다새衣服을 가라입고 愉快와 歡樂으로 그하로를 보내기爲하야가진 興行이 잇스니 例를들다면 白日場을보인다 씨름판을부친다 줄을다린다 편싸홈을한다 하는等等이며 京城이나 開城가튼都市에서는 燈을만들되 紗나조히로써 形形色色이 奇妙를 다하야 家家戶戶의 自己집에만 달뿐이아니고 大道通路에 줄줄건네매고 줄줄이달매 鍾路에는六矣廛에서 出資하야 鍾路네거리 한곳판에나 노픈 燈棚을세이고 數百個의 燈을 高低層層이 다라 煇煌燦爛하게 불을켜며 四大門外에 亦然함으로 드듸어四方鄕邑에서 그것을 구경하려오는 사람들이 人山人海를 이루나니그럼으로 四月八日은 드듸어 觀燈하는名節이되어서『燈夕』이니『燃燈節』이니하는 名稱까지생기엇다 燈은 元來 佛敎에서大端히 重要하게 보는것이니 佛前六種供養에도 香燈 花果 茶米로 一數를 차지하고 佛祖의法을 繼繼相傳하야 오는것도傳燈이라하는等이 枚擧하기에 未遑하거니와 朝鮮古語에는 神佛께 致誠하는것을『불컨다』고하나니 寺院에 獻供하러가는것도『절에불컨러간다』山神에 致誠하는것도『山에불컨다』하야神明을 삼기는데 唯一한 代表物이 되여오것은 오즉 燈그것이다 그럼으로 燈에對하야 가진 技巧와 精誠을 다드려 만드나니 桐山居士(尹達善)의歲時風謠 四月八日條에

初八燃燈似上元。如來生日舊風存。往看浴佛遊何寺。不是新興卽奉恩。

處處呼聲似挐河。幡竿競秀簇於廠。六衢樓畔高棚柱。絕勝城中四萬家。

新燈賣買市門傍。高價爭看別樣精。金碧紗羅千百類。半歸蕭寺半佛堂。

雕刻形形畫彩箋。飛禽走獸總依然。求魚緣木非難事。怪底長竿懸鯉懸。

鷄卵輕明似玉釘。蓮花蓮葉護輕嬰。尋常雖蒜何鉛樣。不數昇來滿路紅。

影子翻旋圈子燈。森然獵騎去騰騰。笑看瀛頭棚頭掛。寸馬豆人不能行。

觀燈時節動京鄉。無數村婆上漢陽。要看火城全幅勝。鬪頭高處走忙忙。

黃昏齊放萬竿燈。微月籠光瑞彩凝。認得人家多女子。聯珠火點譁層層。

市樓簷角照玲瓏。一字懸燈萬點紅。截路橫欄星宿列。行人穿過火雲中。

橋欄挾去結華棚。水上燈沈水底明。忽有中間叢火發。漫天飛散萬星繁。

別設燈戲白門前。外市繁華似列鄽。對對廚棚橫截處。太平萬歲字高懸。

蕭寺蒲萬三夜揮。人家誰効佛前祈。一城落落竿頭火。比看前宵漸覺稀。

이것이 定히四月八日 燈制의形形色色奇奇妙妙하게 爭技鬪巧한 것과또는 그날의 盛況이든것을 알수잇는바이다

漢詩募集

題 梨花

押 香

限 四月二十五日

로…로…르…다…ㅣ…슈

移民部落見聞記 (一)

李泰俊

車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끌리어 平壤에 나리어 하로를 묵고 다시 平壤서탄 奉天行은 밤車가 되엿다.

平壤以北은 二十餘年만이요 安東縣以北은 生後 처음이다

少年때 無錢旅行이랍시고 徒步로나오던 安州、定州、宣川、義州、다 한번 내다보고시픈 追憶의風土들이나 밤車窓이라 커튼을 나리고 잠이나 請하는수밧게 업시되엿다.

三等寢臺의 下段, 기여서오르나리는 曲藝는 하지안허도 조흐나 내 얼골에서 섯자도못되는 距離에 다른사람, 그사람우에 또 그러케 한사람, 내가 때미테서 그들을 떠밧들기나 하는거처럼 무겁고갑갑하다. 주머니세간 만흔 저구리를 어븐채 누엇스니 도란두을때마다 거북하다. 벗자니 거리노릇이가 벤벤치 안코 개켜노흘 자리는 더욱업고 아무런 맵시를 고치려 이러나니 정수리가 딱부딧친다. 한참쉬다보니 그래도 놈는편이 훨신편하다. 놈는以上에내어 찌신편하다.

三等寢臺만한 空間이면 足할것인데 事實인즉 시렁에 얹진 가방처럼 無心해지지 안는다. 桶속에서 산 哲人의 생각이 낫다. 三等寢臺에서 自安하기에도 多少 修養이必要한 모양이다。

○

大陸 그리워하지 오랜風景이다. 東京의 文展에서 한번 新興露西亞美術展이 잇섯다。에 온이란 사람의『무지개』라風景畫는 지금도 머리속에 심심한 印象이잇다. 雨後에 鮮明한 色彩로 빼더나간 꿋업는 地平線 길여서 흐러저버린 放牧의 무리 무지개도한낫 흙에묻처덤 두바퀴가 平原에 바뀌엇음으로 最大의空間을 展開시킨 繪畫이엿다.

그後 다른 美展에서도 가끔 風景畫를 구경하엿스나 그런 巨大한 空間은 다시 보지못하엿다.

巨大한空間 ― 露西亞小說들이 엿다。過去 여러世紀동안 大陸이 海東半島를 누르는것도 그것들이엿다. 우리를 누르는것도 그巨大한 空間의 농간이엿슬것이다.

그런 大陸, 그러空間을 向해 내車는밤을 갈르고 다라난다. 처음으로그에게 간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거나 自然이거나 물시 이쪽을興奮시키는모양으로 구교어 가까이와도 잠이 오지 안는다. 車가 安東縣에 이르니 改札員가 뛰여오르며 車안이 와자해진다 사람은 모두 일어나고 짐은 모조리 끌리운다. 나도 손가방을 열어노코 해태엿갑에 도장을 바덧다。停車二十分 擴張은 雪時에는 警備이라는듯 어 半時동안을 紛擾이와ー하게 騷擾했다.

車는 다시 떠난다。密은 모두 다시눕는다. 이곳을두어서 지나거니께다르니 문득나의머리엔 成三問의생각이 떠오른다. 世宗께서 明의翰林學士黃瓚에게 音韻을 물으러 다니게 하섯는데 黃學士의 遼東謫所에를 凡往返十三度(?)이라 傳하는것이다

그때는 고작 말을 타엇슬것이다 日行 不過 七八十里엇슬것이다 이제 누어 夜行千里를하면서 생각하기엔 너머나 아득한 傳說이 아닌가더구나 一二往返도 아니요 凡十三度라 하엿스니 成三問의 奉仕도 끔직한것이려니와 世宗의 그 억세신 經綸에는오직 머리가 숙여질뿐이다

車는 해결 카브가 업시一直線으로만 달리는듯하다 巨大한 陸地、巨大한 空間 그우에 더핀 밤도 巨大한帳幕일것이다 어서 이 巨大한것들을 내다보고시프나 車窓어밝을 時刻은 아직 멀엇다

麗人頌

李善熙

石造殿 흰집은 주추人들우에 벌처 쨍쨍할수록 그안은 더 陰沈하더랑 아름드리 圓柱가 보지도못한 公主의 모습을 그리고 王宮의 窓들은 아름다운 彫刻들을 어마우에 새여 못첫스나 나는그아고로 가까이 가지못한다.

『독개비야』―

번집은 무섭더랑 대나제도 鬼神이 막나온다。女王님의 寢室은 지금 몬지가 밤이빠진다.

어덕우에 앙청스런 나무도 바위도 동산으로 뚤린적은길우에 사람의무리 떼를지으니 어제야 행결 孤獨하지가안타.

연못속에 어 아가씨네야진주사 박회장 저고리 왜어리꼰수.

물속에 떠러진 그네의 그림자― 숨쉬할줄모르는 불하늘도 그속에 잇다.

陽春風物詩

現代的短篇小說의相貌 (中)

◇…眞實의探求와詩의境地…◇

李孝石

大體로 從來의短篇小說이 더만히 事件을 取扱하얏슴에 反하야現代의 그것이 性格과動機를 取扱하야온것이 事實이기는하나 短篇이長篇과 區別되여야하고兩者의 사이에

歷然 한 性格的差異가잇는以上 短篇에 잇서서도 언제나 역시 形式에對한 一定한 體貌가 必要한것은 當然하다 아무리『形態가 自由로운 現代에 잇서서라도 그것이 短篇인以上 形態에對한 確乎한認識과 修練은 항상 充分히前提的으로 準備되여잇서야할 不可欠의것이다。이點에잇서서短篇作家는 지난날의 포오의 短篇劇式論이나 或은 포오의 하이제의形作理論에 다시 한번 귀 기우리기를 부끄러워하여서는 안된다 大體 短篇이長篇을 拒否한理由는 構成의 緊密을期하고저함에잇섯다。勿論 時代的要求도잇섯고 쩌날리즘의 迷適도 短篇發達의 重要한 要因이엇지만 自體的理由는 形式이自由로운長篇과는本意를달리해서 統一된形態와 集中된印象의强烈을求함에잇섯다。單一한 主題를 巧妙한 構成과 익숙한話術과 新鮮한感覺과 詩的想像力의驅使로 統一된效果를 내도록 表現함에잇다. 敏捷한理智와 똑바른 觀察眼과 아울러 毅然한形式美가 短篇의

特質 이며 長篇과袂別되는 特點이엿다。短篇作家는 性急하고 潔癖하야서 材料를 料理해서 讀人을대접한다。마치 매를 못니겨 사랑하는 마즈막 매에 騎士는 그래도 애꾸는情이 하로 落魄의騎士를 차저슬것을 疑인이엇다。가엽게녀여 讀人手中에 사랑하는 매 한마리를남긴 의財物을 蕩盡한騎士는 나중에는 한讀人의사랑을어드라고 所持하고잇는것이다 고 人生의斷片을 機敏하고正直하게 表現하고저하는 性癖을가젓다 間或 장황한이야기나 지리한변론을할때가잇드라도 主題와印象의統一的效果만은 닛지안케생각할때에 어려한 短篇自體의特質을 論은 現代에잇서서라도 如前히 傾聽할만한 不朽의價値를 內包하고잇는것이다

轉해서 오래동안 固執해오든사랑을 騎士에게바친다 한마리의 매가 事情을一變시킨것이다。運命轉換의動機가된 어 매가 短篇作法에엿서서도

絕對 로必要한것이며 한 事件을 取扱하야運命의轉機를 巧妙하게料理하는곳에 短篇의妙法이잇다는것이다。하이제는 往往形式主義者란는 非難을맛기는하나 이 매의理論은 短篇小說史에잇서서 그어느때에나 應當나야할 理論이엿스며 그어느時代를거치드라도 陳腐해질理가업는 卓見임은 再論할餘地가업다.

하이제보다도 一層細密한 原理와方法을 規定한것이 포오엿다。그는 이야기의效果와 時間的기리에置重해서 構成의巧緻性을嚴密히 要求한作家엿다。時間의中斷과 作意의缺陷을 招來하기쉬운長篇을 否定하고 三十分乃至한두時間으로讀了해서 이야기의『이데』를 어지럽히지 안코 鮮明한 印象을 마즈막까지 持續할수잇는 短篇의 存在만을文學形式으로서 許容하얏다。單一의 效果를 미리 作定하고 그效果에 맛도록 事件을 結合해서 한作品의 첫머리의 文章부터가 그效果를살려야하고 作中한마디도 無用의語彙를 써서는안된다는것이다。人間의

心理 와緊張의律度를 正確하게解釋하고 興味의中斷을 極度로 警戒하얏다 初期의作品에서 시작해서 七十餘篇에 오르는 그의全生涯의作品이 한篇이나 이主張을버서나지는 안헛다。

체홉에이르러 이緊密한 포오의形式을 瀟逹하게 緩化시키고 一種無形式의形式을 賦與하게되여 短篇形成에 말하자면 最後的完成을수게되엿스나 그들以後에 아무리許多한作家가 輩出하야서도 그들先進의 形式的完成의 土台우에 서는것이요 그들의理論의 理解와配慮가업시는 作品의成立은 생각할수도 업는것이다.

新刊紹介

◀Le Papier 1 mars 發行所 京城府 齋洞町 四五의八 Le Papier社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定價十二錢

◀高麗時報 第八十七號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九番地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五錢

◀朝鮮統計時報 第九號 發行所 朝鮮總督府文書課內 朝鮮統計協會 振替京城二四四八番 定價十五錢

◀白波 第五輯 發行所 咸興府春日町二丁目二六番地 白波社 振替京城二八八九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三錢

◀아이생활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高揚 第一輯 發行所 京城府都染町一五〇 東文堂書店 振替京城二八三七番 定價三十錢

◀光成 第十二號 發行所 平壤光成高等普通學校 學生YMCA智育部 非賣品

◀朝鮮商工獎勵舘報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舘內 朝鮮商品調査硏究會 定價十錢

新刊評

發展과成果

―『現代朝鮮文學全集 詩歌集』을읽고―

崔載瑞

詩 한篇이나 두篇을 불숙내노코 뭇는대도 그詩가 원체놀쓰는사람이 아닌것엔 송계로 그 價値를 알아내기가 어렵다。그러나 그詩人의詩集을 通讀하면 우리는 그들詩의 位置와價値를 比較的明確하게 判斷할수잇다。詩는 말하자면 그사람 生活全體의 엣센스이기때문에 그사람의 特質을 가장率直하게 含蓄하고잇는 反面에 그사람의 生活面과의 關係에對하야는 一一히詳細함을 要치안는다。따라서 詩의本質은 本質로서만은알수업고 亦 全體的生活圖式안에占領하고잇는位置를 알어야 비로서 理解할수잇다。

우리는 한詩集을 읽을때 詩人이 거러온 發展의 자최를 알수잇다。또 그를通하야 그詩人의 世界와生活도 짐작할수잇다。이리하야 全體的 關聯下에서 볼때 個個의 詩는 속일수업는 本性을 나타내고 따라서 우리는 그判斷을 그릇하지안는다。詩의 本質은 그發展을 모르고는 理解할수업고 그發展은 成果를 떠나서는 차즐길이 업는 것이다。詩集의 必要와 意義는 여기잇다。

한詩人에잇서서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한詩壇에잇서서는 말할것도업다。詩를 너절히 알고 詩를 쓰는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一般人士들은 그時代의 詩集을 通讀하면 그認識을 訂正하는것이 通例이다。勿論 個個의 詩에 對하야 專門家의判斷을 가진다는 것은 期待할수업다치드래도 적어도 그詩集들을 通하야 自己네 時代가 거러온 자최를 回想하고 그發展을 깨다를수는 잇슬것이다。詩의 發展은 늘 知性의 發展을 表示하기때문이다。따라서 詩가 한 個人의 엣센스이라하면 그것은 또한 한 社會의 歡智의 總決算이다。잘되거나 못되거나 그한卷은 그社會와時代의 座標가될수잇다。우리는 그러한 詩集을 重大視하지안흘수업다。

일즉이 적지안은企圖를 가젓다고 듯는『現代朝鮮文學全集』의 一卷『詩歌集』을 읽으며 나는 역시 朝鮮의詩가 發展하야온 자최를 차즈려하얏다。이詩集은 물론 以上과同一한 企圖로써 編集된것은 아니나 選擇의原理라든가 排列의方法이 最後까지 以上의目的에 符合치는 안헛스나 一定의限度안에서는 그發展을 觀察하기에 不足함이업다。

事實 過去에 朝鮮詩壇을 開拓한 頌兒、春園、無涯、巴人、岸曙、廉水等諸氏의 詩를읽고 金東鳴、金起林、林學洙、鄭芝溶等 諸君의詩로 옴아갈때 發展을느끼지안는者 업슬것이다 感性의 洗練과 措辭의潔癖性과 더욱이 知性의 修練에잇서서 朝鮮詩는 確實히 發展하얏다 더욱이 林和君가튼 思想詩人에잇서선 새로운境地가開拓되고잇슴을 疑心할餘地가 업다。

過去의 우리詩人들이 얼마나 純眞하얏든가를 생각하면 잠깐 微笑를禁할수업다。勿論 이微笑란 우리가 先輩에 對하야 잇지안으랴고하는 親愛와尊敬을 表示하는 그것이다。또오늘 젊은詩人들이 얼마나 艱難한길을 것고잇나함을 생각할때 天眞하든 그時節을 그리워하는 쓸쓸한微笑도 될수잇다。何如튼 悲哀와苦痛이 그러듯 閑裕하게 表現되엿다는것은 부러운일이아닐수업다。

나는 八面玲瓏한 이詩集을읽으며 예어르을 오래간만에 만나게된 깃붐과 아울러 동무들이 現在걷고잇는 境地를 比較的正確한 透視畫法아레서 觀望할수잇섯슴을 幸福되게 생각한다。

우리는 發展을 通하야서만우리自身을 理解할수잇고 그發展은 成果에 차줄밧게업다。이번詩歌集은 不滿한點이 업는바아니나 이大目的을爲하야 一步前進의 役割을하얏다。욕심대로하면 每詩人의 詩集을가지는 同時에年刊詩集 五年刊詩集 十年刊詩集等을 續刊하야 朝鮮에도 포-ㄹ그레이브의『英詩珠玉集』이나 옥스포-드·에디숀이 나오기를 衷心으로希望하는바이다。

(定價 臺國二十錢 送料 二十二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 五八七八)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ー

「驚蟄」玄德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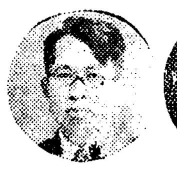
「題未定」鄭飛石作

文壇 不振說이 여기저기서 말성이되면서도 終始 이러타할만한打開策이 樹立되지못하는것은 오로지 新進作家의 活潑한 活動을보지못하는때문이다。그리고 新進作家의 活動을 볼수업는것은 또한 發表機關의 狹窄한탓으로 그進路가 杜塞된때문이라고 아니할수업슬것이다。

이에 本社에서는 우리 有爲한 新進作家에게 自由스러운 活動의舞台를 提供하려고 우선 三年間 本報新春文藝에 當選된 네作家의 短篇리레ー를 始作한것이다。

어 네作家의 短篇的力量이란 이미發表된作品에서 旣成作家를肉迫한다는 定評이잇섯지마는 그동안에 모두 精進에精進을거듭해서 이제 各各力作한편식을가지고 登場하게되엿스니 어 興味잇는成果를 우리讀者는기뿌게 期待하리라고밋는다。

「섬달밤」車自鳴作



「題未定」金廷漢作

來十日附夕刊부터連載

림질

不順한기후와 抵抗力의減退로 潛伏되어잇든淋疾은再發하게될뿐만아니라 더욱惡性인 중한症勢로 進行하게됩니다

림질은 感染된초기에 療法의선택을잘못한다든가 혹은의치중도에 치료를중지하는때는 기후의불순과不攝生으로인한 신체의쇠약과 抵抗力의減退의틈을타서 다시急性의症狀으로되어 內部의膀胱 攝護腺 副睾丸 子宮內膜 卵巢 喇叭管등의各器管에侵入하야 症狀을더深部로潛行식혀서 소위惡性慢性의림질을일으키게하고 때로는림질이關節 結膜 筋肉에까지移行되어 그무서운淋毒性關節炎 膿漏眼(風眼) 류ー마지스등의 重症까지일으키게되는것입니다 그런즉 이위험을방지하려면 늘상節制을직혀야될것은물론이지만 치료에는最善의方法을선택하여야만할點에 특히주의하여야될것입니다

再發의위험과銀內服의藥力

코로이도銀의効力!

本劑바로ー루는 京都帝大化學研究所의發明特許「金屬오르가노졸製法」의應用에依하야 治淋藥中에서 가장强大한殺菌 消毒力을가진銀을 限外顯微鏡이아니면분간못할超微粒子狀으로만들고 이에다特殊한鎭痛 利尿 收斂劑를配合하야 斯界에서처음銀의內服化를達成한最新의治淋藥입니다 즉超微粒子(코로이도)化에依하야 藥効를현저히增强식힌所謂倍加作用을達한바로ー루의主劑銀은 그內服에依한全身的治療의結果 在來의外用局所銀등으로는到底히맛지못할治淋效果를 發揮하는것입니다

服用後腸壁을經由하야 體內에吸收된바로ー루의强藥効는 血液의循環을利用하야 深部의諸器管에까지도잠침루되어 强烈한殺菌力은全身的으로微細히發揮하야 淋菌을滅殺식힘과더부러 炎衝을개이게하여서 患部의新生恢復을빨으게하여줍니다

그리고本劑의藥效는深奧內部에서外部로合理的으로治癒식혀 淋菌의內部侵入을방지하기때문에 症狀이前部尿道部에局限되어잇는 感染初期의淋疾에효과적일뿐만아니라 連續服用에도胃腸을害하거나糜爛된患部를자극식히는법이없이 殺菌效果와현저한吸着性이잇는特異한作用은 惡性 慢性의重症에도極히合理的이며 再發을미전에방지하여줍니다

이와갓치 바로ー루가淋疾의再發을방지하야 治癒를促進식히는데적합한 綜合的醫治作用을一劑에가지고잇는것은 銀의完全內服化에依하야 처음으로얻은 獨特한藥理입니다

京都帝國大學 化學研究所創製

바로ー루(銀오르가노졸산달油)는 京都帝大化學研究所內에잇어서 그特許施設의理化學的操作밑에서 嚴密製造되엇고 더욱히同大學附屬病院泌尿科및婦人科를爲始하야 全國著名病醫院에서 臨床的으로使用되어잇으며 그治驗成績이極히優秀한結果를얻게되잇으며 同大學醫學部皮膚科泌尿科敎室醫學博士片山義郞先生이皮膚科紀要第二十二卷第三號에發表하시사이처음醫學會에報告하엿으니 이것으로도 넉넉히本劑가 그얼마나權威와藥効가偉大한治淋藥인가를아실줄압니다 바로ー루의連續服用과自制攝生 이것이야말로 淋疾의最短期療法이라고서, 여기에推奬하는바입니다

(製法特許) 바로ー루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四十五錢

無代進呈 新刊「淋疾과그療法」四六判七十餘頁 新聞名을明記하야請求하시면 一名一冊에限하야 無代로進呈합니다

全道各地有名藥店에잇음 萬若品切時는直接發賣元에爲替나振替或은代金引換으로注文하시면衝送함 先金의時는送料는不要함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神田驛前) 振替東京三〇番·代表電話神田二〇五番 大阪市東區淡路町(大手橋西詰) 振替大阪七九〇番·電話北濱三五九番

仁川支局 電話三九〇番

四月七日낫부터四日間大公開 超特作名畫豪華版 每日晝夜二回公演 大地上映時間에限 時間과料金이變更 一回十一時半、二回三時、三回七時三十分 ▼特別料金▼ 上下階 大人三十錢 下小人二十錢 上小人十錢 머도ー로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 펄·S·바크女史 監督 시드니ー프랭크린氏 傑作名篇 大地 主演 폴무니氏 루이스·레이나ー孃 助演 꼬롯틴、챠ー리ー그레이프、데이리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現代名篇 監督 齋藤寅次郞氏 吼える銀ちゃん 共演 坂本武、飯田蝶子、大日方傳、東山光子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第一劇場

松竹キネマ 4月4日ヨリ4月10日上映プロ時間表

	1	2	3
ニュース	11・00―11・26	2・49―3・15	6・50―7・16
漫畫 お山の大將 ロカルニハーデイM・G・M作品 寶の山	11・29―12・32	3・18―4・21	7・19―8・22
漫畫 復活祭のボスコ 極彩色 スペイン舞曲	12・37―1・02	4・26―4・51	8・27―8・52
ボーエルニテーラーM・G・M超特作 踊る不夜城	1・06―2・35	4・55―6・24	8・56―10・25

明治座

四月四日부터特別大封切 와ー나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윌리암디터레ー氏監督作品! 沙漠의아츰 케이·후란시ー스孃 主演 에롤·후린氏 아이안·헌타ー氏 助演 호리디이네스코ー드氏 全勝키네마社超特作浪曲ㅌー키 熊谷草彌氏 監督 血祭中乘り新三 松本榮三郞 主演 大城富八郞 森野洋子 美島麗子 水木令子 助演 P.C.L超特作全發聲 荻原遼氏 監督 日本一の殿様 小笠原章二郞氏 山田良好氏 主演 高勢實乘 永井柳太郞 助演 東日大每ニュース 支那事變ニュース 電話光三九五 國際町 優美館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十円 平和堂 京城堅志洞

花娘樂劇團第一回公演 四月五日부터四日間 午前十時午後七時半 料金大人五〇錢小人三〇錢均一 映畫午前十時부터入場하신분에는無料上映 大每通信ニュース其他國産映畫二篇 ◆夢柳作 悲歌劇 夢想佳人 七景 ◆全一草作 農村風景 一景 ◆朴英作 喜歌劇 바라에데ー 十六景 戀愛變線曲 一幕 團成社 光電九五九

産業

棉作多收穫記錄
勿驚段當六百二十八斤
慶南統營金氏의努力結晶

棉作慶南에 자랑하는全朝鮮一의 多收穫記錄!慶南統營郡遠梁面乾葉島邑德里 金熙鎬氏(음)는 棉作의 段當收穫增加에 血汗의努力을繼續한結果 昨年에마치내 그功이나타나 段當實로 六百二十八斤이라는 全朝鮮第一의 驚異的 多收穫記錄을作成하엿다 그리고 同氏의既往五個年의 段當收穫을 보건대 昭和八年 三百二十斤 同九年 三百八十五斤同十年四百三十三斤 同十一年二百三十五斤 (風水害에依한減少)同十二年六百二十八斤 이엇다한다

農村團體改善하면 正租共販解消

共販制度의 機構改善問題로 그동안 關係方面에서 愼重考慮中이던바 이번에그 檢討內容의 具體化를 보기에이르러 이것을機會로 農村産業團體機構一切의 改合理化를 圖하리라한다。討議進行의 全般에對해서는 아직確實치는안흐나 農業倉庫、籾倉庫도 이機會에 整備도改善하고 經營도좀더 合理化시켜서 同倉庫運營의信用의 向上까지도 考慮하리라한다。또 農業倉庫、籾倉庫의聯合 或 共濟保險制度가든것도 計畫中이라고하니 이機構改善이 圓滑하게 進行되는境遇엔 機構와倉庫와의 關係가 一層緊密해질것만은 疑心업다。뿐만아니라 從來로 問題만튼 籾의共同販賣制度도 이에따라 自然解消될것으로 생각된다。

收益만흔副業
栗木栽培가第一
田作收益의四五倍確實

副業이라하면 누구나 또어데에서던지 本業을 齎爲하면서그사이를타서 손쉽게할수잇고도收益이 만허야할것이다 이에 가장조흔것이 山村의 副業으로栗木의 栽培인데 어栗木을 栽培한 三年째부터 收穫할수잇스나 本格的으로 收益을 어드랴면四五年은 걸리며 十年쯤되면 一反步當 七、八十圓은 收穫할수잇스므로 田地一反步收益에 比하야 四五倍에 該當한다그러면 어떠한 栽培法을 하여야만흔 收益을 어들고하면 한번 植木한後 내버려두는 粗放栽培에依한 週林法으로서는 到底히 如斯한 所得을 어들수업다 一升當九十粒以下의 大粒의 優良品種의 接木苗又는 實生苗를 一反步當最高 五十本쯤 植木하야 充分히 肥培 管理하는 所謂果樹園式方法을하지안흐면 아니된다 그리고 場所는 豪壽한耕地는 다른穀物을 섬는데使用하고 될수잇는대로 山側 田側의쓸데업는 傾斜地를 利用함이 조타 그러나 그傾斜가 五六度쯤이면 全面을開墾하어조흐나 그以上의傾斜度일때에는 될수잇는데로階狀의 樹林帶를남긴 階段式이나 點狀式開墾을하야할것이오 十五度以上으로 傾斜하는場所는 避함이조타 그런데京畿道에서는 이栗木을 植木할 者가 各郡農會에 申請하면 道에서 直接만은 조흔苗木을 配布하고 그우에 開墾方法 植付方法 其他栽培의 一切事態을 詳細히 가르켜주고 또十三年度로부터는 苗木代、開墾費金肥의 一部에 補助金을 交付한다하야 楊州栗로 有名한 京畿道의 山村副業이 有望하다

(寫眞은 接木한것)

日本漁業組合 奉天서座談會

【奉天】日本全國漁業組合協會에서는 滿洲販賣斡旋所를新設하고 滿洲市場에 積極的進出을企圖하는同時 全滿各地의 海産物取引業者의意向을 打診코저 各地에서 座談會를開催中이든바 奉天에서는 지난二日午後四時부터 奉天公會堂樓上에서滿洲販賣斡旋所 眞瀨主事以下 在奉天關係者二十餘名出席下에 海産物取引事情에對한 座談會를開催하고同六時에散會하엿다고한다

淸道棉增産計畫

【淸道】棉花耕作은 逐年增加의 一路邁進하고잇는데 淸道郡에서도 從前에 比하야 五十町步增産計畫을 세우고 麥作改良이 잘되지안는麥畑에 棉花의 麥間作이잘 되도록 보리품종 가려업드리고 適當한 時期에 播種하도록 方今指導勢를 取하고잇는中인데 今年植付面積은 一千四百十五町步에 達할터이라하며 將으로二百萬斤에達成케 한다는데 이에는一層努力하여야할것이다

漁船技術員講習
咸南水産會主催

【咸南支社發】咸南水産會에서는 오는五月二日부터 그달二十五日까지 二十四日間 元山府廳에서 漁船技術員養成講習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希望者는 四月二十七日까지道同會로 申込하여야 한다고한다

咸南漁具調査

【咸南支社發】咸南水産係調査한바 統計를보면 道內에서 使用되고잇는漁具는 三九種으로 一四萬四、一〇三個 그價格은三百만二、六九〇、七三六圓이나 된다 主要漁具別로보면 다음과갓다

	統	圓
揚網	五四六	九七、一〇〇
大敷網	七	七八、五〇〇
流網	二九	二三三、九〇〇
底角網	四三七	三七九、二六〇
繰網	一二三三	一六一、一九〇
敷網	一三二一一	四一二、九四五
巾着	五五	二六二、五〇〇
刺網	九二四四六	四一二、九四五
延繩	一八一九九本	二九、七九二

咸南製鹽高 六百四十萬斤

【咸南支社發】咸南道産業課調査를 보면昨年末現在 道內製鹽業者는 主業一七 從業四九로製造場數는 一三個所 釜數는 二四個나되는데 原鹽製造高는 六、四〇六三三三斤 再製鹽製造高 六二四〇、〇八〇斤으로 그價格은一三一、七〇四圓이나된다 第一多數 生産되는곳은 元山으로 一〇五、一二〇圓이며 다음咸州는一四、八二四圓이나된다

甘藷切干價引下
無水酒精原料難陷入으로
總督府愼重考慮

無水酒精工場問題에關하야 東拓은 原料甘藷의買上豫定價格切干一貫廿四錢은 採算上너무高價라하야 總督府側에再考를促하엿든바 朝鮮의甘藷段當收穫은 內地의五、六割程度에不過하야 反當二百貫內外로 이를切干으로하면 半減의百貫으로되여 反當收益은 廿四圓程度로서 他의對抗作物에比較하면 甘藷가比較的荒無地를利用하고잇스므로 조금有利하다고는하나 無水酒精原料로 그需要를充足함에는 耕作面積을 擴張하야 相當한肥沃地를 어에 轉換할必要가잇스므로 萬若 總督府가 東拓側의要望을 너허서 買上價格을 引下한다면 他作物과比較하야 甘藷가 반드시有利하다고할수업고 따러서 原料供給難을招來할것이아닌가고 觀測되여 總督府에서는 新品種의奬勵栽培方法의改善에依하야 反當收量增加를 計畫하면서도 買上價格 引下한은 矛盾된政策이므로 愼重한態度를 取할模樣이다

特殊鐵工組合 共同作業場設置

【平南支社發】前番創立을 보게된 平壤特殊鐵工組合에서 一日부터 下請負에對한 作業의配給을하기로되엿는데 創立趣旨에따라 共同作業場의 買收又는 建設을爲하야 諸岡組合長 八木理事는 府內서 適當한 位置물色中이든바 柳町 國際고무工場跡인 基地四百二十坪、建物二百四十三坪을 約二萬四千五百圓에 買收키로되여 契約이 終了되여 內部를 改造해가지고 共同作業場에充當키로되엿다 그런데 이組合에서는 最近熟練工이 不足되여 各工場에서 苦痛하고잇는 現狀에鑑하여 道、府와는 勿論 總督府側과도 折衝해가지고 熟練工養成에도 進出할 意向을가지고 準備中이다

輸入斡旋高
三月中百萬餘圓突破
奉天貿易會館에서

【奉天】奉天貿易會館 三月中의 輸入斡旋高는 約十萬四千圓인데 昨年四月以降의 累計額은 百萬圓을 突破하게되여 全滿各地輸入組合 商品市場에 多大한 效果를 與하고잇다고한다

甕津品評會開催

【甕津】黃海道甕津郡農會에서는 昨年以來로 堆肥、大豆、桑田、水稻籾多收穫의 各種 品評會를 開催코자 郡技術員이 管下各面에 出張하야 調査해가지고 그周價를 重히 品評을거듭해나려오든바 마치내 審査를 마치엇으로 지나간 三十日午後三時부터 受賞者三十五名을 郡會議室에 모아노코 有志及新聞記者多數參席下에 各種品評會의 授賞狀授與式을 擧行하얏다

萃果의炭疽病과 檢査制度의必要 ③

平北萃果檢査所主事 金焌

四、炭疽病發生과 萃果의肥培管理의關係

무슨病害를 勿論하고 剪定의 過度 施肥의 缺陷等等은 모다 果樹의 堅實한發育에 相反되는 것으로 따라서 그結實에 잇서서도 充實한 營養를 맷지못함으로 病害에對한 抵抗力도 極히弱하야 지금말하는 炭疽病의 發生도 容易할것이며 더구나昨秋가튼時節에 潮濕할때는 그被害가 一層더 甚할것이다。그리고 日燒의被害를받은後 本病을

誘發함이 만은 것임으로 除袋時에特히 日燒被害가업도록 深甚한注意가 必要하다。또는 藥劑를撒布할때에도 六月下旬에서七月에亘하야 몰드液撒布를 게을니할때와 果實에掛袋를하지안는다든가 或은掛袋를하얏슬지라도 早期除袋를行할때는 또한 本病이容易하게 發生한다。

五、炭疽病의驅除豫防

前에도말하얏거니와 本病의發生은 氣候關係가 그主要한原因임으로 어에對하야는 人力으로 直接한것이나 肥培管理에잇서서 栽培技術을利用하야 어느程度까지 防止할수가잇스니 即施肥에 잇서서 三要素의分量을 適當히하야 恒常萃樹의 健實한發育을 圖謀하되 特히窒素肥料의偏施를 삼갈것과 剪定할때 너무過度에 失치안케할것 結果枝의 堅實을 圖謀할것 等으로 爲先本病에對한抵抗力을 든든히 기를것이必要하며 이박게 掛袋를 行하야 果實面에病菌의接觸을 避할것과 또는除袋에 잇서서도 너무早期로 除袋를行하지안토록 할것이 緊要하다。

特히除袋할때日燒에注意함이必要하다。六月下旬부터 七月에亘하야 三四回以上의 볼드液撒布를 勵行할것이 또한本病豫防에 가장必要한것이다 元來가 볼드液은 一般病害를 豫防할뿐만아니라 本藥劑를撒布할때는 葉綠素가 튼튼하야지는故로 나무닙을 健全하게하므로 早期落葉防止에도 一助가되는것이므로 本劑撒布함은 極히必要한것이다。近來볼드液代身『쏘이드』라는 硫黃을主劑로한 藥劑가새로發明되여 三共製藥會社에서 어것을 널리販賣하는 모양이나 아직余는 어藥劑에對하야 그實效를 試驗치못하얏스므로 어것을 勸할수업스나 北海道農事試驗場에서 맨든 萃果藥劑撒布曆에는 炭疽病을 防除하기爲하야『쏘이드』를 撒布하라고 써여잇는것을보면 炭疽病에 對하야 相當한 **效果**를 가지고잇지안은가한다 그러나 北海道와 달리서 우리朝鮮의六七月頃은 酷甚한炎熱임으로 硫黃主劑의『쏘이드』가 或은 藥害의懸念도업지안타 그러므로이藥劑에對하야는 各其그效果를實驗하야 使用함이 安全할것이다。

六、炭疽病被害果實의處理

枝上에달린 被害果實은 각금巡視하야 發見하는대로 摘取하야 土中에埋沒할것이 必要할것이니 萬若그대로放置하야둘때는 압서도말한바와가치 病班에서漏出하는枯液이 다른健全果에 傳染될念慮가잇을것이며 況且이것을 그대로 다른健全果와함게 採取할때는 一層그傳染이容易할것이며 따라서 그被害率도클것이다 晝間에採取한果實은 곳荷造場에 集積하야두지말고 널리펴노아充分히熱의放散을 시킬것이、必要하며 그뿐아니라 恒常果實은서늘하게 保管하는것이 조흘것이다 本病의發生은 前述한바와가치 溫度가 어느程度까지 노픔때는 本病菌의繁殖이 旺盛하므로 萬一 病虫害果를 等閑視하야 荷造를하거나 또는 採取하야 한곳에 積置하는것은 果實이 晝間에바든 熱을夜間에 放散하믈 積置한果實때미에 몹씨過度가노파서 本病이容易케發生되는것이다。荷造할때에도 特히細心注意하야 病徵이無한것을 嚴密히選果할것이 必要하다

七、朝鮮萃果移輸出과檢査問題

非但炭疽病에限한것이 아니라 무슨病害虫의被害果를 勿論하고 적어도 移輸品에잇서서는 充分히嚴選하야 荷造할必要가 잇다 單只檢査通過에만 留意할것이 아니라 朝鮮萃果의聲價擧揚의意味에잇서서도 病害虫의驅除라든지 또는 擇果荷造에 至하기까지에 從來보다도 一段의努力이 必要한것이니 特히檢査制度가無한地方에잇서서 더구나 그럴것으로 밋는다。萬一 病虫害果를 等閑이알고 荷造出荷할때는 輸送途中에 더욱 被害를 넘는다든지 또는腐敗하야 問屋이나 或은顧客에게 不快를느끼게하는同時에 그物件에對하야 여러가지疑心을가지게되므로 結局은 生産者의 **信用**에 惰落될것은 다시더말할것도업거니와 이것이決코 一生産者의 信用問題가아니다。外國市場을 舞臺로하는 우리朝鮮萃果는 一生産者의 그릇된생각으로말미아마 朝鮮全體의萃果에對하야 그信用을 失墜케되는것이다。웨그러냐하면 朝鮮에서는 大邱사과 元山사과 黃州사과 鎭南浦사과等等의 各産地名을부처서부르지만 一段外國市場에나가면『朝鮮사과』或은『코리안 애플』로서 通하게되는까닭이다。이點에잇서서 生産者諸氏는 充分한自覺아래서 朝鮮萃果의品位向上에努力하기를바라며 兼하야近來에 諸外國領土에 輸出함에는 向便輸入國의嚴密한 植物檢査를 要하는나라가 적지안타。그나라의 植物檢査에不合格이라는 烙印을 맛게될때는 그理由와性質如何에依하야는 永永輸入禁止를當하게된다

가까운例를드러말하자면 米國萃果가『곳드링모쓰』(Codding Moth)라고하는 至毒한心喰虫으로因하야 大正九年八月에日本에 輸入을禁止한以來 米國萃果는 全然日本에 輸入이杜絶되고 말엇다。어와가티 植物檢査가 近來 各國間에 씨이때에 더구나 朝鮮萃果가 本內地에移出함에도 植物檢査를要케될에는 多難을느끼게되는것에 後의 朝鮮萃果는 病虫害驅除豫防에 倍前의研究와努力을할것이니 決코炭疽病에 限한것이 아니다。萃果生産者諸氏에게 十分의理解와 充分한自覺아래서 만흔努力을期待한다 (끗)

輸送不圓滑로 硫安配給減未免

朝鮮內肥料配給의 圓滑을圖키爲하야 總督府에서는 일직이可及的速히 取入하도록 各道로通牒한바가잇섯는데 其後의狀況을 보면 硫安을비롯하야 各種肥料도 輸送狀態가 如意치안허 이러한것만으로서는 若干의消費減을不免이라고보고잇다 即硫安은 四十二萬屯의配給豫定이나 實際에 잇서서는 昨年의實績보다 多少增加하는程度의三十八、九萬屯이라고보는데 石灰窒素過燐酸其他도 多少減을보게될것이다 總督府에서는 過般朝窒吉川氏의 入城을機會로 硫安配給에對하야 懇談을 거듭하엿는데 現在의輸送狀況으로서는 充分히配給하려면他種肥料의 輸送減이 不免이요 他種肥料를 充分히하면 硫安에影響이잇다는 狀態로 結局相互若干의減은 不免이라고보고잇다 그러나 어때문에 곳農家의生産力에 影響을미치는것은아니고 오히려 供給困難은 濫賣를防止하는役割을하는바가잇스리라고한다

肥料特殊叺生産 舒川配當五十五萬

【長項】非常時에 需用될 特殊叺과 肥料叺을 忠南道當局은各郡에 生産配當을한바 舒川郡에 五十五萬枚로 道內第一位인데 郡에서는 去三十日부터 四日까지 農家每戶當三十枚式을 分配식혓는바 只今까지의 出廻는 約二十五萬枚可量 旺仁市는一日 一萬五千枚가 出廻되야 旺盛한데 時勢는 다음과갓다

肥料叺 天位 十四錢八厘
特殊叺 天位 十五錢

食糧、酒精調達코저 甘藷栽培奬勵 (慶北)
今年計畫千七百町步

【慶北支社發】慶北道農務課에서는 無水酒精의 資料를造成코저 甘藷의 大增殖을 目標로 一段步當收穫 三百貫 一千七百町步의 栽培를 十三年度內에實現키로하고 그種子甘藷 七萬貫을九州로부터 移入하엿는바 近近各郡農會에 配付하야 虫害豫防消毒을한 後 一般農家에配付하야 今年度의食糧에 充當키로하고 明年度부터는 酒精酒成에 充當키로 한다고한다

私設保稅倉庫 奉天에新設

【奉天】滿洲人絹絲布輸入額二千數百圓의約七割以上을 輸入하고잇는奉天은 通關事務의圓滑化를期하고저 現滿鐵當局의奉天保稅倉庫는 너무狹隘하다하야 在奉天人絹取引業者等은 人絹主産地인 日本福井縣의 福井合同運送會社와協力 私設保稅倉庫建設을 計畫하야 天城內大北邊門 中央銀行分行에 다가『三百坪』收容能力의 家屋을選定하고 方今稅關當局에 認可申請中이라고한다

經工業→重工業
資本構成高度化
戰時下工業生産과
(二) 工場統計에나타난側面

工業發展의 實相을 産業別로보면 工場統計速報에는 紡織、金屬 機械器具、窯業、化學 製材木製品 印刷製本、食料品、瓦斯電氣九의 工業으로分類되엿다 이여서 生産額에 對하야 보면紡織工業이 三十六億五千四百萬圓으로써 第一位에잇음은 我工業構成에잇서서의 絹業 製絲業等의 優位를보이는것으로 例年과가트나 第二位以下의 金屬工業 化學工業 機械器具工業의活躍이 顯著하고 따라서 紡織工業의 全工業生産額中에 占有한 地位는 甚히 動搖하여젓다。昭和六年에잇서서는 紡織 食料品 化學 機械器具 金屬의 順序로 紡織工業의 生産額은 全生産額中三七·二%와 三分의一을超過하엿는데 그後 紡織工業의相對的地位는 低下하야 昭和十年에는 三分의一以下의 三〇、九%로되고 十一年에는 二九、八%에까지 低落하여버렷다 勿論 이것은 紡織工業自體의 生産額이 減少한데 依한것은 아니오 도리어 生産額은 輸出産業의花形인만큼 年年 增加하야 昭和十一年에는 六年의 一、九倍에 達한다 그러면 어相對的低下는 무슨 原因에依하야 齎來되엿느냐 勿論 어것은 金屬、機械器具、化學의 三工業部門의 飛躍的增加에依한것이다 昭和六年에는 第五位로 八、三%를 占有함에不過하든 金屬工業은 昭和十一年에는 第二位대로 飛躍하야 一八%를 占有하고 生産額은 五倍强에達한다 同樣으로機械器具工業의生産額은 六年의 三倍半에 達하야第四位로되고 化學工業의 生産額도 二倍半에達하야 第六位로되엿다

어五大工業部門의 昭和十一年의生産額을 昭和六年에比較하면 左와가티 顯著한變化가보인다。

(單位百萬圓)

	昭和六年	昭和十年	昭和十一年
紡織工業	一、九六六	三、三五三	三、六五四
金屬工業	四五二	一、八二一	二、三〇八
機械器具	四八八	一、四四二	一、七七六
化學工業	八一六	一、六七三	二、一一〇
食料品工業	八〇七	一、一六六	一、二五九
生産總額	五、二七四	一〇、八三五	一二、三五七

	昭和六年	同十年	同十一年
	%	%	%
紡織工業	三七·二	三〇·九	二九·八
金屬工業	八·三	一七·三	一八·〇
機械器具	九·六	一三·五	一四·〇
化學工業	一五·八	一六·七	一七·三
食料品工業	一六·二	一〇·八	一〇·一
生産總額	一〇〇·〇	一〇〇·〇	一〇〇·〇

右中 金屬、機械器具、化學의 三工業의躍進에依하야 輕工業에서 重工業으로의 我工業構成의 轉換의樣相의一端은 볼수잇스나 다음、보다詳細히 輕工業에서重工業으로의 重點의移動을차저보려한다 極히槪括的이나 이여서는金屬、機械器具、化學의 三工業을重、化學工業으로 他는輕工業으로하고 爲先生産額부터 觀察하려한다。昭和六年에 比較하면 重化學工業은 二四五%를 激增하엿스나 輕工業은 八一%바께 增加되지안헛다。따라서 生産總額에對한割合도 重、化學工業은 昭和六年의 三三·七%에서 十一年에는 四九·二%에達하엿다 輕工業이 어와反對의傾向을 惹起한것은 勿論이다 그가튼 重、化學工業의躍進은 極度의打擊을입은恐慌에서 即最低에서 어러나기때문이오 이에는만흔 遊休設備가動員되엿잇다

다음工場數에잇서서는 重、化學工業도 同期間에 八六%를增加하고잇고 輕工業은 二八%의 增加에 不過한다 生産額의 飛躍的增大에 比하야 工場數의增加가 大端치안흔것은 重、化學工業에잇서서는 恐慌時에잇서서의 만흔遊休設備의 存在에 基한것이요 昭和八、九年頃까지는 生産力에 相當한 餘裕가잇섯다할것이다 輕工業에 잇서서의好景氣의 段階은지나가고 最近에와서는그比重이重工業으로 옴기엿다 準戰時下의重、化學工業의擴張强行은 工場의 新設뿐아니라 工場의 部分的擴張을件할것은勿論이나 그가튼生産設備의 擴張은勞働需要를 增大한다。

이때문에 重化工業에잇서서의 職工數의增加는 顯著하야 昭和六年에比較하야 一四六%를增加하고잇는데 輕工業은 겨우二七%의增加에不過하다 따라서生産力의點에서 보드라도 重化學工業의地位는 노파지고 工場數에잇서서는 大工場이만흔關係에서 全工場數에對한割合도 六年의二〇·七%에서 十一年에는二七·六%로되여잇슴에不過하나 職工數에잇서서는 三三·九%에서三七·七%로上昇하엿다 昭和六年以降의 重化學工業과 輕工業發展의 樣相은 左와갓다

▲重化工業

	生産額(百萬圓)	工場數	職工數(千人)
昭和六年	一、七四八	一三、三七三	三九六
七年	二、三二八	一五、〇八四	四四八
八年	三、〇五五	一六、七四六	五三八
九年	四、一三六	二〇、一〇四	六九一
十年	五、一九八	二二、三一四	八二三
十一年	六、〇三六	二五、〇一五	九七六

▲輕工業

	生産額(百萬圓)	工場數	職工數(千人)
昭和六年	三、四四八	五一、〇六四	一、二六四
七年	三、八五四	五三、三三四	一、三〇七
八年	四、八二六	五五、一九四	一、三七三
九年	五、二五四	六〇、七一七	一、四四二
十年	五、六六八	六一、八〇〇	一、五五七
十一年	六、二三二	六五、五六四	一、六二三

兒童心理

어린애들이 작난감을 가지고 노는것은 어른이책을읽는것과 마찬가지로 智識을길르고 智識을엇는 것이다 在來의우리家庭에서는 어린애들에게 도무지 작난감을 좋흔것을사주지안엇스나 近日에는 어느家庭에를가든지 어린애잇는 家庭에작난감업는 家庭은드물게되엿다 따라서

兒童日用品店에 漫畫電燈裝置도一策

鐘路나진고개를 나가면 形形色色의작난감을 店頭에陳列해노코 어린애들이나어린애들은어머니와 아버지의발을멈추게한다 그러나좀더 그들의눈을즐겁게하고 발을店內로 끄러드리는데 效果的이라고 생각하는 漫畫電燈에 對한 簡單한裝飾法하나를紹介하려고한다 店內의모ー든電燈에다가動物이나 미키ー等의 漫畫를 그린카바ー를씨운다 그러면 어린손님들이 店頭에 이르자 自己들의조화하는 작난감을 찾기前에먼저 漫畫電燈에 눈을빼앗기게된다 그래서 그어린애들에게는玩具店이라기보다도 먼저 漫畫店이라는 印象이더强하게된다 그러므로한번와서 본 어린애들은 죽연히 그것을 이저버리지안코記憶하게되므로 다시 차저오게되는 것이다 이것은近日우리가書店에를가드래도어린애들이 漫畫만차저보는一種의兒童心理의傾向을利用한것이다

狀態利用

戰時와代用食問題 (1)
食糧의貧富는 戰爭의勝敗決定

南京이 陷落된지 어미四五個月이지나 먼것가튼 생각어드나 事變은 아직끗나지안코 長期戰時狀態를 繼續하고잇다 그러나 언제끄티날지 適確한 豫想은아무도 할수업을것이다

그러데 또 歐洲의形勢도 **險惡**의度를加하고잇는世界情勢下에잇서서는 모든것을 愼重히생각치안허서는 아니되나 其中에로라도 어떠케할수업는 食糧問題에 對하야서는 더욱그러하다 如何히 强大精銳한 兵器를자랑해도 食糧이 不足하여지면士氣가 阻喪함은 當然한 歸結이다 어느時代에잇서서의 戰爭이나 食料는 其勝敗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素의 하나인데 特히 近代戰에 잇서서는 더욱甚한事實을 發見한다 이食料問題의解決은 一朝一夕에 行할수잇는것이아니다 其解決의 必要가切迫한때에 用意가 不充分하엿다면 敗戰國의 汚名을 甘受치안흘수가 업다 이意味에잇서서 **食糧**問題의檢討는益益必要하다 따라代用食에 關한 檢討도極히重要한役割을가진 一分野이다

一、大戰에나타난代用食의必要

戰時에잇서서의 食糧問題의發展은 먼저品質의問題가 이러난다 即戰地에서活躍하고잇는 兵士에게 먹어여야할品質上 上等의것이必要하다 따라서 戰地兵士의需要를 充當하게되면 銃後國民의常食하는品質上 조흔食料는 不足을告하게되므로 이에代用食의必要가 생기게되는것이다

世界大戰當時에 어例를드러보면 그末期에잇서서 米國어參戰한때에第一로 어러난問題는 實로食料品의問題이엿다 當時에兩方은모두가 食糧不足으로 其勝敗는 武力보다도오히려 食糧에잇서서 如何히하면 食糧을獲得할가 獲得한食糧料品을 如何히잘配給할것가가 **勝利**의열쇠로 看做되여 잇섯다 따라서 米國은國民의 主要食糧인小麥粉 罐詰 乾燥野菜 果實을 戰場에 보내다 數千萬人分을 一時에 보내는것이므로 米國에잇는 銃後國民은 이日用食인 小麥 肉을 먹을수가업섯다 이에 國內에서는 徹底한「小麥업는날」「고기업는날」을 實施하는同時에 消費節約을 行하고 이不足을 補充키爲하야는小麥대신에 馬鈴薯와 玉蜀黍를 菓子와 麵類에 混入하야 代用하얏다

戰時의 食糧問題의 發展에當하야 第二로 問題되는것은 食糧의 生産數量이 減少하는傾向이 잇는것이다 應召에依한 人力과 徵發에依한 畜力이 不足하므로 食糧生産에 必要한努力이 減少하는一方 化學肥料의軍需化、輸送力의 減少로 肥料도 減少하고 漁業도 充分히 行할수업스므로 食糧의 生産減으로 나라난다 이로因하야 지금까지 利用치 안튼것이 利用家畜飼料 人間食料 **轉用**等이 問題가 된다 이것도 代用食의分野로 어例를 世界大戰에서보면 當時獨逸에서는豚等의 家畜을 相當히 飼育하고잇섯는데 食糧生産의 不如意로 其飼料이馬鈴薯 玉蜀黍 大麥等 人畜共用의 物資에注目하기시작하엿다 即一年에消費된 家畜飼料와 人間食料貯藏分으로 合計하면 戰爭開始當時는 國民五個年分의 食糧이엿는것이 戰爭이 것을 家畜에게먹인때문에 其他의食料는 急激히減少되엿다 實로家畜一頭의飼料는 사람五人分에 相當하엿다 換言하면 飼料를그대로사람의 食料로하기보다는 美味한肉으로 轉換시키기爲하야 實로五倍에가까운 食糧을 家畜에게 供給하얏다 그러나食料의不足이 顯著히增加함을따라서「맛잇는고기의少量보다는 배를채울수잇는食料를」要求하게되여 드디어 **家畜**을어시하고 그飼料를사람에게 轉用하게되엿다 即大麥의 麵麭 馬鈴薯의主食化 玉蜀黍의캐이크化가 그것이엿다

—(끗)—

クラブ 美の素 石鹸
구 라 부

自然히 健康한 若肌가 된다!

❶ 거품이 잘일고 氣孔속의 汚垢를淸掃합니다
❷ 살결의美를기루고 튼튼히하는貴重原料가 含有하고잇습니다
❸ 氣品잇는香氣는 使用後도 살결에 남어잇고 最後까지 부시러지지안습니다

クラブ カテイ洗粉
구 라 부 가 데 이

젊어지는美養素가다음과가튼 훌륭한美肌作用을합니다

★ 絶對로刺戟性이업스므로어린애기들의柔肌도거칠지안습니다
★ 軟水、硬水에拘치안트도 洗滌美肌의作用을發揮합니다
★ 아루가리性이업스므로洗粉에써서 샴푸ー以上의 效果가잇습니다
★ 使用後美養素의榮養作用으로거치른틈을막고 自然히여드름의發生을 防止합니다
★ 優雅한 芳香과그使用後의爽快感은 クラブ獨特한것입니다

補血强壯
造血아웃호르몬

ブルトーゼ
부 루 도 ー 제

各帝國大學病院常備藥

ブルトーゼ
アルゼン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グアヤブルトーゼ
コールブルトーゼ
ネオブルトーゼ錠

二・〇〇 三・二〇 二・三〇 三・七〇 二・六〇 三・三〇 四・〇〇 一・〇〇 一・八〇

「活動の源泉」御申越次第進呈

B 1316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京城府西小門町

金組理事中心으로 詐欺橫領事件綻露

被害者도三百餘名의多數豫想 忠南警察部서續續檢擧

【大田】대전금융조합(大田金融組合)에서 오래동안 이사(理事)로잇든 판구정삼랑(阪口正三郎)씨는 이사로잇스면서 자기의친소에따라 함부로 부정대출을하얏스며 자기자신도 거액의금전을 횡령(橫領)한사건이 발생되여 작년에 그자리까지 박탈당하고 수천조합원의 비난을 바더오든바 얼마전부터 충남경찰부에서 돌연히활동을 개시하야 판구(阪口)씨를 비롯하야 판게부에 유치하고 최경부(崔警部)가 자수삼인을 검거하야다가 경찰부에 유치하고 엄중취조중이든바 오일에는 다시 무슨단서를잡엇는지 다른방면에서 검거를개시하야 맹활동중이데 이사건에 피해를당한자가 삼백에달하며 피해금액도 거액에 달하리라한다 이와가튼대사건은 근래드믄일로 그의범죄범위는 상당이 광대할모양이라고한다

海州郡下에山火

【海州】해주군라덕면자리(海州郡羅德面楸谷里)와 동군서석면삼랑리(西石面鮮光里)경계산에서 지난삼일 오후영시붓이 이러낫는데 그부근에사는 주민들이 진화에힘쓴결과 동네시 약산십이정보의산야를 태운후 진화되엿다 출화의원인은 지나는사람이 담배불을 함부로던진데서 나지안엇는가 추측된다

長項의植木日

【長項】충남장항에서는 지난삼일 식목일에 수흥(水興)제련소(製鍊所)사이 십리길에 기념식수를한다 유지다수가 흐린날세를 무릅쓰고 팡이를손잡고 푸라다나스와 사구라 약천본을심어노핫다

滿洲入朝鮮移民 豫定地에安着! 延吉、安圖、樺甸三縣에

【延吉】만주국에의 조선농민이민은 양국당국의 금년도계획실현에의하여 드디어 지난이월하순부터 개척의용사를실흔 열차는 남신의 지역간도성(間島省)을향하여드러오기시작하엿는데 당지간도성공서(省公署)에서는 이민선에 이상이생기지안토록하기우하야 착착제일선의지역 명월구(明月溝)에 임시척정판사처(臨時拓政辦事處)를설치하고 백방의노력을다하여서 사월일일로써 이민총인원은 칠천오백구십사명을 다음연변(延邊)과가티 엄서시켯다고하는데 그이민들은모두 건전한 기개로개척의보무를당당하게보이고잇다한다

	戶數	人員
延吉縣	三五七	一八二九
安圖縣	八〇九	三八三八
樺甸縣	四〇一	一九二七
合計	一五六七	七五九四

平壤第三中學 開校는五月初

【平南支社發】평양제삼중학(平壤第三中)이 삼, 사, 오학년에 편입하는 숭중(崇中)재적생의검정시험과 서문고녀(西門高女)이삼, 사학년에 편입할 숭의여교(崇義女校)의 재적생의 검정시험은 기보와가티 각기시행하고 지난일일 각자에게 우편으로합격통지를하엿는바 제삼중에는 육일오전열시부터 입학식을거행햇는데 일학년사십여명의재적생중 입학허가가 된수는 백십오명으로 오십명가까운 수효의생도가 완전히 배움의 터를 일허버렷고 제삼중학에 편입시험을바든 숭중재적생 약삼백명중에서 입학허가가된 생도의수 혼는 도합국이 엄비에 부치나 결국 수십명이 넉아웃을 당하여 공부하지못하게될 모양이다 그런데 제삼중학에서는 아직 교유(敎諭)의 선정기타의 사정으로 개학식은 오월초순으로될 모양이며 서문고녀와 제삼중학의 일학년신입생모집도 기보와가티 팔일부터 원서교부를하여 십오일까지 마감으로 해가지고 십칠일부터 육일간시험을시행、이십오일합격자발표를 하기로되엿고 이와동시에 서문고녀의 이、삼、사、학년、제삼중학은 이、삼、사、오、학년의보결시험(補缺試驗)을 실시수용하기로되엿다 보결시험과 일학년입학지원자는 원서(願書) 이력서(履歷書) 사진(寫眞) 출신교의 소견표(所見表)등을 첨부하여 십오일까지평남도학무과(道學務課)에제출하라고한다

大同橋大改修

【平南支社發】평양의동안(東岸)과 서안(西岸)을 연결하는 오직한개의 교통선인 대동교(大同橋)는 가설된수년동안 한번의 수리도 가하지안햇기때문에 "페인트"는 퇴색햇슬뿐아니라 보도(步道)의 부목(敷木)이 전부 썩어 위험도 업지안키때문에 평양부에서는 국고보조를바더 공사비 일만사천원으로 시국하의 방공색(防空色)을 가미한 "페인트"를 다시바르는한편 보도도 일만유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부목을 전부걷어치우고 "콩크리-트"의 보도로 바꾸기로 되여 오일에 입찰까지 끗낫스므로 금명중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엿다

十七歲少年이 목을매고自殺

【江東】평남강동군 십칠세청소년이 목을매고 자살하엿다 지난사월삼일 강동군 만달면 송오리 고용태(高龍泰)의아들 인성(仁成)(一七)인데 자살한원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illegible] 비관끗 송오리(세고개)에서 목을매고 자살한것을 산에 나무하러가든 사람들이 발견하엿다

東洋第一의 引水턴넬築造

江界水電會社 長津에서江界로 距離約百里의水道

【平南支社發】비약하는공업조선에발을마추어 대규모의전기사업이 발전하는중 강계수력전기회사(江界水力電氣會社)에서는 오천만원의 거대한공사를압두고 방금 측량설계에 분망중인바 공사계획은 실로조선초유의 어마어마한것으로 강계읍에서 사십리떠러저잇는곳에 제일발전소(第一發電所)를두고 이곳으로부터이백팔십리나 먼곳에잇는장진(長津)에 저수지(貯水池)를파고 여기에서 물을끄러올개획이라는데 그사이에는 실로기리 약백리나되는동양제일긴 턴넬수도가 잇다고한다 전기와가티 장진읍부근은 저수지속에 가러안게되여 경찰서 금융조합 면사무소등 모든관공서는하강(下降)으로 옮기게될모양이고 민가도다수 이전하게되바 떠나가고떠나오는사람들을 아울러 공사경기가붓도다 비상히 분망하다고한다

全州郵便局 電話室見學開放

【全北支社發】전주우편국에서는 사변이래 통신사무가 복잡하여지고 더구나사변관계로 인하야 전화를 직접사용하는이들에게 전화기설비내용을 주지시키기위하야 아프로전화주간(電話週間)을 설정하고 실지견학을하도록 전화실을개방하기로 하엿다고한다

西朝鮮의動脈線 中央鐵道近着工

用地買收도極順調 (勝湖里⇄江東)

【平南支社發】서선의 중앙을 뚤코 달어날 서선의 동맥― 서조선중앙철도의 건설은 무연탄개발뿐만아니라 서조선지방의인문의발전을위하여기대되는바크므로 동회사에서는 하로바삐 공사시행의 인가도 어덧슴으로 제일기공사구역을 승호리(勝湖里)에서 삼등(三登)을지나 강동(江東)에이르는 삼십칠키로로 정하고 입찰을시켜 청부를줌으로 인데 방금용지매수도 순조로히 진행하므로 오월초순부터는 착공하게되리라한다 그런데 평양상공회의소에서는 이철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건설에압서 연선의 산업、경제상황을 조사할필요가잇다하여 오는십사일경 동소 팔목(八木)조사주임이 조사차로 출발하기로 되엿다한다

九歲小兒失踪

【奉天】평남 영원군 청원면 엽령리(平南寧遠郡靑遠面葉嶺里)에 원적을둔 박병선(朴炳善)은 저간 조선서 자기가족을 다리고 내봉하야 시내 서탑(西塔)옆은 리(玉泉里)에와잇든동중 지난어일 오후에 박병선의차남 태옥(泰玉)(九)이가 돌연실종되여 그의부모들은 방금 각처로 수사중이나 태옥의그림자도 볼수업서 매우 초조중에잇는데 이만주라는곳은 다른곳과달러 가지각색의 무서운범죄사건이 빈발하는곳이며 또는 마의도시 대봉천에서 어떠난 불상사건이라 더욱 우려된다는바 그의생사가지 못의문이라고한다

農耕資金으로 百萬餘圓融通

【奉天】사월의 농경기(農耕期)를압두고 삼강성(三江省)과 각현(各縣)은 그준비에 분망중인데 성당국에서는 파하농민의경제개생을 조장시키며 겸하야산업오개년계획에의한 농산물증산을조성하고저 중앙정부로부터일백이만원의 농경자금을 어더판하중소농민에게 대부하게되엿다고한다

南山學院昇格暗礁 天主敎會側保留意向

【永興】함남영흥(咸南永興)에잇는천주교회(天主敎會) 경영의남산학원(南山學院)은 그간교회측으로부터 사립보통학교(私立普通學校)승격인가신청이 잇서서 십삼년도부터 인가되리라함은기보한바잇거니와 그후일반의기대와 군당국의 진력으로 인가가 눈앞에온바 금번총독부학무국방침 변경도잇서 승격문제는 방금 귀국중에 잇는 덕원(德源)신주교(辛主敎)씨의 반개년후의 귀환을 기다려서 결정하기로 당분간 보류한다고하니 영흥교육계를 위하야 장차동교회의 태도결정이 자못주목되고잇다

南山學院長 全神父談

사일 기자는 남산학원장전신부를 방문한즉 씨는다음과가티 말한다 우리 남산학원의 사립보교승격에 대하야 도당국으로부터금후 매년경상비예산을 더증액시키라고하는데 그것은 지금 덕원 신교주(辛敎主)가 귀국중에잇스므로 도라오실때까지 저로서 결정치못하겟스므로 승격문제는 당분간 보류할작정이올시다 경비를 매년만원식이나 지출하다가 공립으로되면 교회로서 경영할수업게되므로 그것도 곤난이요 차라리 영흥군민으로서 반액을 염출할려이니 중등학교(中等學校)를 창설하자구요 글세요! 그것도 신교주(辛敎主)가 오신다음에 상의하여보아야 하겟는데 그러나 당국의 방침변경관게로 교회로서는 금후교육사업보다도 별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지나 안홀가합니다 운운

兩制度祝賀會

【群山】군산부의 조선인지원병제도와 교육령개정시행을제는 예정과가티 지난삼일오전열한시부터 군산공회당광장에서 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그리고 동일오후부터 군산부공회당에서 축하회가잇섯다한다

淸州變更校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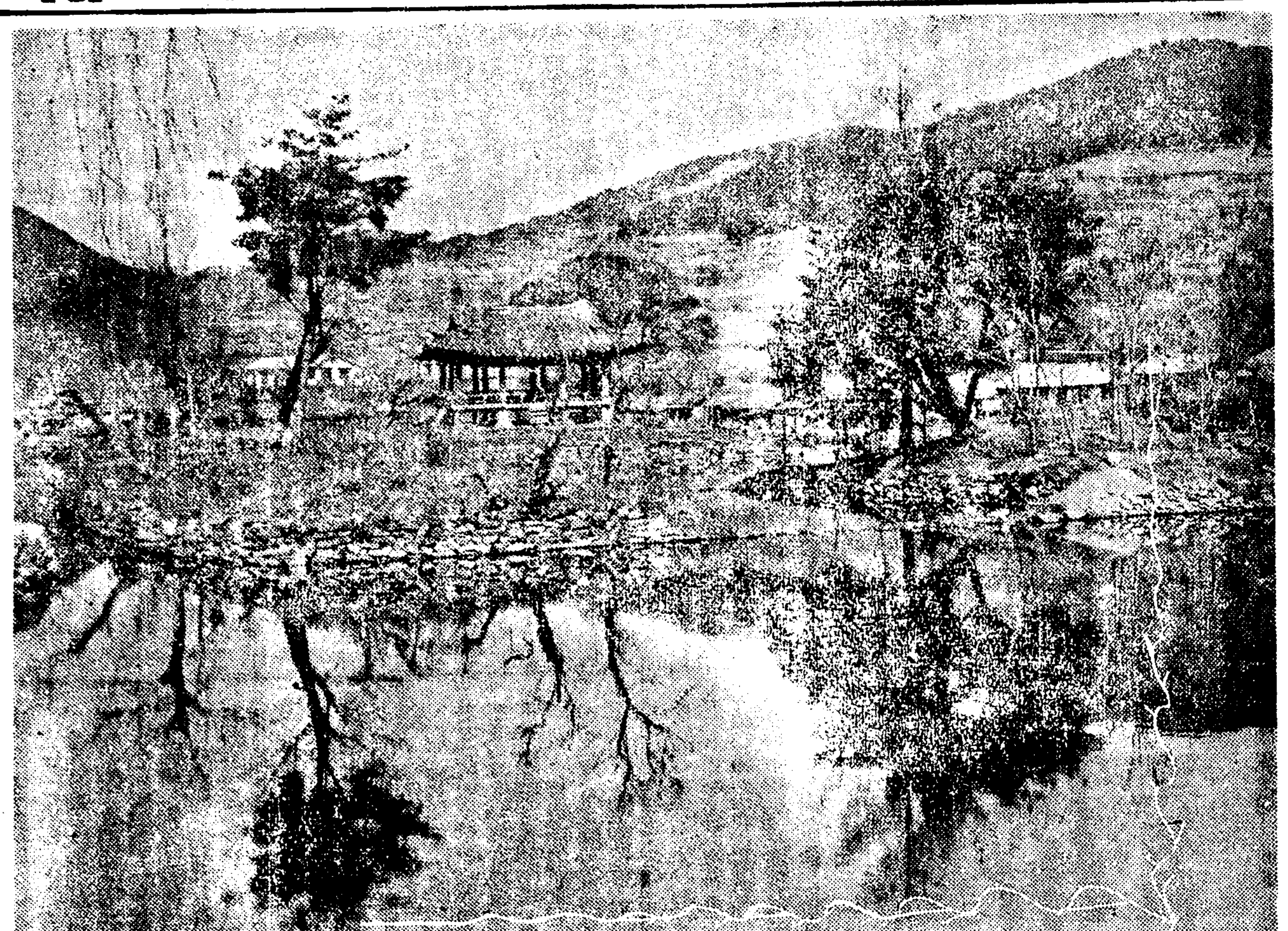
【淸州】충북청주의 초중등교명은 대개옛것에 의하기로되엿는데 그상세는 다음과가다한다

淸州榮町公立普通學校(舊) 淸州榮町公立尋常小學校(新) 淸州壽町公立普通學校(舊) 淸州壽町公立尋常小學校(新) 淸州石橋公立普通學校(舊) 淸州石橋公立尋常小學校(新) 淸州公立高等普通學校(舊) 淸州公立中學校(新) 淸州公立高等女學校(舊) 淸州公立第一高等女學校(新)

釜山土木談合事件 五名을또送局!

總計三十一名의多數

【慶南支社發】기보=부산토목담합사건(土木談合事件)은 부산경찰서에서 제사차로 지난오일아침에 부내 각처에서 토목청부업자 다섯명을 인치하야다가 엄중히 취조중이라함은 기보한바인데 그의일인 육일오전열시에 그들다섯명전부를 일건서류와함께 부산검사국에 송치하얏스며 동검사국에서는 주견(酒見)사석검사가 취조를 계속할터이라한다 그래서 동사건의 총송국자가 삼십일명에 달한다고하며 금번송국된자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 ▲釜山府本町五丁目 土井酒兵衛 ▲釜山府大新町六九九 田川悅次 ▲釜山府水晶町一의一六 松本隆介 ▲釜山府寶水町三丁目 田中喜三次 ▲釜山府榮町三丁目 木村安太郎



……古亭에春色……寧邊六勝亭所見

前室所生구박果報 稀世詐欺犯(夫婦)就縛

『내금비녀내여라』『돈도적은사람이왜야단』 木浦驛頭에버러진活劇

【木浦】목포부 남교동(南橋洞)一구번지에 거주하든 허세의 여사기사 김어진(女詐欺師金於眞)(四五)이가 그남편이기완(李琪煥)과 공모하고 가정부녀들을 상대로 수만원을 편취하여가지고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추어 백여명의 부녀자를 울리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한동안 일반의화제가 되엿든사건도 기억에사러질만한 요지음에 사건의 주인공의 부처가 경찰의손에 체포되여 목포에 나타나서 일반에게 새로운 흥미를늣게되엿다 그 체포된 경로를뭇건대 김어진의 부처는 자녀넷을다리고 지난이월이십륙일밤에 세인의눈을 교묘히 피하여가지고 목포역에서 기차를타고 경성(京城)에 잠간 내리여 동정을살핀후 다시북행을하야 국경인신의주(新義州)에 도착한후 팔원짜리 셋집을 어더가지고 우거하면서 그래도 후회를 염려하야 다리고간 자녀넷을 감금하다시 문밧게를 못나가게단속을하고 김어진은 그곳에서도 전처의소생인 무용(武用)(假名)을구박하얏다한다 십륙세된 소년무용은 타관에까지 와서도 심한계모(繼母)의 학대를 견듸지못하야 그아버지 리기완의 주머니에서 돈십원을훔처가지고 집을 뛰여나왓스나 머리를둘곳이 막막함을깨닷고 고향인 목포로 오게되엿는데 이것이 단서가되여 목포서 미촌(米村)부장과 김형사가 무용을 다리고 지난일일에 신의주에 급행하야 체포에노력한 결과 평북삭주(平北朔州)에서체포하야가지고 지난사일에 목포에도착하얏는데 여기미를 미리부터 알고잇든 피해자인 백여명의 부녀자는 목포역에쇄도하야 기다리고잇다가 김어진부처의얼굴이 홈에나타나자 피해부녀는 로소를통틀어하고『저도적년이왓다』소리치면서 경관의제지도 불구하고 달려들어『내돈내여라 내금비녀 내여라 내금반지 내여라』하며 일대혼란을 이르켯다 그러나 녀자는 『돈도적은사람이 웨 야단이야』하고 남자는 대개가 증서업는 채권이므로『당신돈은 쓴일이업소』함으로 더욱 흥분된 피해자들은 발을굴르며 뛰는것은 보기드믄활극이엿는데 지금까지 판명된 피해액은 만여원이나되나 취조에따라 의외로 다액에 달하리라하며 또만흔금액을 은익한 형적이농후하다한다

電車속에내버린가방 열고보니시퍼런紙幣 二千六百圓―곳主人에게로

【平南支社發】지난오일오후삼시사십분 제백삼호전차가 평양선교리(船橋里)역전으로부터 우편국아페 도착하여 승객이 전부 나린후에 가죽가방이 떠러저잇는것을 차장이동식(李東植)군이 발견하고 감독과가치 여러보앗더니 몰경 시퍼런지폐 십원짜리백원짜리가 이천륙백원이나 들어잇섯는바 때마침 이것을이저버린사람이 달려들어 그에게돌려보내엿는데 그는조선운송점고인(古仁)으로 영업소주임 박문백(朴文伯)으로 황해도마동(馬洞)으로 전근하는도중에 선교리 친구를 방문하고 도라오는 전차중에서 하마트면 큰일이날번하엿다고한다

鎭南浦의苹果 昨年에는豊産

【鎭南浦】소화십이년중 진남포평과 생산상황과 발송고는 다음과가튼데 즉십이년도중 진남포일대의 평과는 기후가비교적 온난한 관계상 그발육이조합고 결실기에 우량(雨量)이 적당하엿기때문에 수확은 평년작이상의 호성적을 보엿다는데 생산고는 삼백칠십만관에 달하야 작년에 비하면 십오퍼센트의 증가를보게되엿다

◇仕向地及發送高

朝鮮內	四八三、九五〇貫
內地	一、七二一、〇一八貫
支那	八、九一五貫
臺灣	一、八四八貫

甕泉洞에大火災 人家四戶가全半燒

【北後】안동군북후면(安東郡北後面)옹천동에서는 오일오후삼시경 김영곡(金榮谷)집에서 발화되자 바람이불어 부근집 사오호도 동시에연소하게되여 일대소동을 이르켯다 소방조원과 동민의 필사적활동으로 두시간후에 겨우진화하엿는데 원인과 손해는 방금조사중이며 소방수 강성무(姜聲武)씨는 중상을당하엿스나 생명에는 무관하다한다

釜山下關間에 旅客洪水繼續

【慶南支社發】관부(關釜)간의려객홍수는 날이갈수록 증가되여 지난육일아침에 부산에 입항한 관부연락선 흥안환(興安丸)에서 일천팔백팔십구명 동일시연락선 창경환(昌慶丸)에 여객칠백칠십오명등으로 합계 이천육백육십사명이란 다수가일시에 부산부두에 상륙하게되여 대혼잡을이루엇고 도각열차도만원으로 의외로한여지도업시되여 출발하얏다는데 이와가티 일시에 이천육백여명이 상륙되기는 관부연락선착항이래 처음보는신기록이라한다

鑛夫二名이慘死 江東元灘炭坑에서

【平南支社發】또 탄광에 불상사가 일어낫다 사월삼일오후한시반경 강동군원탄면남경리(江東郡元灘面南京里)에잇는 조선무연탄회사 원탄광내 지하삼백척의 굴속에서 낙반(落盤)으로 광부 송형필(宋亨弼)[illegible] 김병모(金炳模)[illegible]는 그아래에깔리여 즉사하엿다

못미들女子心

【平南支社發】정드리고 살든 여자가 아끼던돈을 가지고도망한것도 분하기는하나 그보다도 참을수업는것은 고대하던 집의『씨』까지 가진채 도망한것이니 어떠케하여서든지 차저주시오하고 애원하는사나이가 잇다 평양부교구정(橋口町)장동균(張東均)은 항상소생이 업슴을 슬퍼하여오다가 작년가을 신의주로송정(新義州老松町)에 살든 허경례(許庚禮)라는 여자를 만나 삼개월전부터 태기(胎氣)까지잇서 가문의 귀동자의 탄생을 고대하고잇던바 뜻밧게 지난사일오후두시경 그가업는틈에 그여자는 저축하엿던 현금일천원을가지고 행방을 감추엇스니 돈도돈이러니와 어린애가 귀하니 꼭좀차저서주시오하고 평양서에 수사원을 제출하엿다

江華에도假醫師

【江華】각지에서『가』짜로 행세하야 일대 센세이순을 이르키는사건이 연발하는요지음 강화군내에도『가』짜의사가 전성시기를 이루고잇는바 그중에도 치과(齒科)의사가 유십명이나잇서 어리석은 농민의 주머니를 짜고 잇다하야 불원한장래에는 경찰당국에서 일망타진을 하리라한다 지난일일에는 삼산면석모리(三山面席毛里)에사는 문모란 인물리청년이 또한 가의사로행세하고 시료하는 현장에서 체포한지 불과일주일이못된 지난오일에는 길상면길직리(吉祥面吉稷里)에 사는 김진섭(金振燮)에 유숙하며 가의사로써 당당히 행세를하는 현주소 불명의 설국웅(薛國雄)을 체포조사한바 여죄도 상당히만흘뿐아니라 현재압수도 상당하다 이는원적을 황해도계정(黃海道鷄井)에둔 사람으로 자기집은 십만장자로서 황해도일대에그를모르는사람이 업다하며 당자도상당한 인텔리청년이엿다니라

黃海道某富豪의令息 家庭不和로放浪生活中에犯罪

홀홀한스포츠맨이라고하는바 원인은 가정불화로 집을 떠나집시의 생활을 하고 잇는바 더욱이 그의첩 유씨(柳氏)는 지금으로부터 팔년전에 서로만나 오늘까지 지내왓다고 하며 그는 생활에 쪼들려 삼성리(三成里)모주점에 주모로 드러가잇든중 그남편과가티 체포되엿다 한다 그리고 설국웅의 본처에는 안해와자식까지 잇스나 부부간에불화하야 마침내 장래를 그릇치게 된것이라한다

若草製粉都賣 丸星商會 釜山府瀛州町
第一工場 釜山府瀛州町二五番地
第二工場 釜山府大新町二百番地
電話九三四番・振替釜山二九二八番

火 元作製 印コク印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二六 和田鐵印刻所製作所 電話本局

朝報案內

文化刺繡 無料教授 京城手藝研究所

自動車 運轉手養成 京城

社員招聘 年齡二十五歲以上 西朝鮮에限함 平壤府南門町九四 昭和生命保險相互會社 平壤營業所

高給社員招聘 平南北黃海道中心으로地方外務社員及出張所長을招聘함 平壤府寺町四六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支部 日本教育生命 電二三〇二番

和信商品券高價買入 地方에계신분은郵送하시오 平壤壽町(金千代座前) 伊藤株式現物店 電話一〇八號 二三六七番

社員招聘 一、年齡二十五歲以上經驗の有無に不拘努力奮鬪の士を望む 一、希望者は履歷書送れ面會日通知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봄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슴

新傑作 民謠 새로동가 못니저요 朴丹馬 빅타ー

性器強大藥 淸導補腎丸 早漏防止

興益公司藥品部

リート式穀物膨脹機 돈벌기대왕 兒島製作所

恩給 鄭商會

籐島支局 電話本局(2)三八八六番

肺病全快法 肺病은治된다 正當한療法 그릇된養生法 無料送呈 大阪府布施市 德林寺

京城競馬 四月 九日(土) 十日(日) 十五日(金) 十六日(土) 十七日(日) 二十二日(金) 二十三日(土) 二十四日(日)

醬油調味料 昭和アミノサン 釀造所

果樹苗木 農產種子 平壤府船橋里 山口農事部

生徒募集(第四回) 平壤測量講習所 募集人員六十名 出願期日四月二十日迄 考査四月二十五日 開學日五月十一日

歐米各國世界的特効藥完備 韓箕道內科醫院 京城鍾路六丁目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時代에適應한 最新強壯劑 特히一般虛弱 神身過勞 フェロトン 製造發賣元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平壤西門通

文化禮式部가鍾路로왓습니다 新事務所 京城府鍾路二丁目 電話光化門③四七八番

サンエッチ H.H.H. 靴を丈夫にする靴クリーム

經濟解說 ⑳

國防充實에障碍 軍需工業品躍騰!

物價의 騰貴한 바와가터 最近의物價騰貴가 시작하게前인 昭和十一年 六月부터 當時의 頂點을지은 昭和十二年의 四月까지 겨우 一年未滿동안의 騰貴率은 日銀調査物價指數에 依하면 一九三·六으로부터 二四八로 二割八分一厘의 激甚한 騰率을 示하고 其後投機熱의 冷却과 海外物價의 低落으로 反落하엿섯다。支那事變突發直後인 八月에는 二三四·七로 五分三厘의 下押을示하엿스나 戰時體制經濟의進行과 共히 어것을 底로하야 再次上昇하엿는데 昭和十三年二月에는 二四九·四로 昨年四月의 最高指數를 突破하얏고 七個月間에 騰貴率이 六分二厘를 記錄하얏다。

×

이두번째의 騰貴와 前回의 騰貴를比較하야 먼저눈에띄어는것은 두번째의 騰貴는 그 步調가 靜的인平面에 徐히堅實한것이다。어것은 投機가當局의 取締와業者의自制로 一般的又는個個商品別로 어떤程度抑制된 效果라고 볼수잇스나 어取締의制約下에 잇서서 依然執拗하게 騰貴하고 잇는 것은 注目할만한事實이다 初期의 價格取締는 取締의發動에 오히려 業者의 物資不足先高必至豫想을 刺戟하야 物價昂騰을 煽動한傾向이 엿고 其後反落도 어때문이라고할 수잇스나 어러한 刺戟은 永續的이엇는것어 아니므로 現在의 騰勢는 取締의反作用이 解消되고 其効果만이 發揮된 結果의 騰貴라고 할수잇슬것이다。따라서 換言하면 人氣市勢라기보다 需給市勢의 表現이라고 할것이다。生産費의 昂騰을 如實히 示現한原料市勢로서의 騰貴라고할수잇다。

×

이러케 結論되는것은 今後物資의 需給이政府가 企圖하는것가터되면 조흐나 그러치안흐면 軍需偏重政策의 소리아래서 業者의 協力만으로서는 商品價格이 잘下落치안을形便이니라 去益昂騰할것으로 여래서는 物價水準의維持、國際收支의 調整도困難하게되며 나아가서는 國防充實、國民生活의安定의 根本目的까지 脅威할것을 意味한다。

商工當局의重要生産月報에依하면 工業生産指數는 昭和十年의一四〇으로부터 昭和十一年에는 一五〇으로 約七分의增加(日銀都賣物價指數로는 六分四厘)를示하고잇스나 一方 工場統計速報에依한 原料及材料의 總使用金額은 昭和十年의六十七億三千四百萬圓으로부터 昭和十一年에는 七十七億二百萬圓으로 一割四分四厘가 增加하고잇다。따라서金額에잇서서 一割四分四厘를 增加하야 數量에 七分弱밖에 增加하고잇지안흔것은 商品價格의 騰貴에依한것으로 商工省調査의 全國都賣物價指數에依하면 昭和十年平均 七七·七에對하야 昭和十一年은 八〇·八로 四分의騰貴를示하야 數字는 반드시 一致치안흐나 商品價格騰貴가 工業生産에미치는影響을 明然히 證明하고잇다。

昭和十二年의 日銀都賣物價의 總平均指數는 十一年에 比하야 再次二割이上昇하고잇스므로 어價格急騰에 生産力擴充에 相當한打擊을 주고잇는것은 想像키에困難하지안타。또昭和十二年八月以降 今年二月까지의 騰貴 特히 軍需工業關係品의 著騰을볼때 現在進行하고잇는 物價上昇現象이 如何히 我國의 國防充實에 障碍가되여잇는가를엿볼수가잇다。

物價高와그對策

×

軍需工業關係品을 金屬、電工業關係品、化學藥品、燃料其他의 四部分으로 分하야 詳述하여보자。먼저 金屬關係品의 市價가 昭和十二年八月부터 本年二月까지에 어떤上昇을示하엿는가하면 (上昇의率ー割에서)

銑鐵 二·七 亞鉛 二·三
銅 六二 鉛 六五

石油 二二 重油 二一 揮發油 一二

右의算術平均은 一七·七 其他에 毛絲 一〇 皮革이七 세멘트가 二〇 고무가一四의 低騰을示하고잇스나 그러나 二의上昇이다。그리고 商工省調査에 依하면 金屬工業、機械器具工業、化學工業、瓦斯電氣業에잇서서 昭和十一年中의 原料及材料總使用額은 約三十二億圓이므로 其三分의二를 原料代로하고 右原料의 平均上昇率을 二割이라고 보드래도 原料代로서 四億圓을 더支出치안허서는 아니되게된다。

그러면 東京商工會議所가 調査한 數字를보아 分明한것과 가티 어中의輸入原料는 海外市場에서는 決코內地市價와가티 昂騰되어잇지안타。金屬市勢의 上昇狀況을記하면 戰時經濟에比하야 昨今의市勢의上昇은 銅三、四倍 亞鉛二倍 錫二倍 鉛三、四倍 水銀四倍라는 狀況으로 國防充實上 重要한에 잇서서 多大한損失을 招來하고 잇다고하지안흘수업다。

化學工業品에잇서서는 다음에 依하면 硫酸 一四一 黃燐 九四 硝酸 三八 ... 曹達灰 一一 晒粉 四 右의 算術平均은 一五·五이오 燃料로서는 ...

金屬關係의 騰貴傾向을보거라하야 甚히大膽한 試驗어나 右騰貴率을 算術平均하야보면 五四가된다。

×

더욱이 注意할것은 다음의 統計가 證明하는바와가티 此等 金屬原料는 모두輸入하는것이 아니고 我國의生産도 相當히 잇는것인데 生産費가 그러케 昂騰하지 아낫슴에 不拘하고 市中市勢만은 從來의二倍、三倍가되여 生産者가 巨利를 博得하고잇다는 말이다。

非鐵金屬生産輸入高(昭和十一年)

	輸入(噸)	生産(噸)
銅	四六、四三四	八七、〇〇〇
鉛	一二六、四〇〇	八、〇〇〇
亞鉛	八九、〇〇〇	三八、〇〇〇
錫	三、二〇〇	二、一〇〇
안지모니	三、六〇〇	一二三

—(계속)—

朝鮮의金肥使用額 五年間四倍增加

十一年中 內外地肥料消費十億圓

農業發達에 伴하야 肥料의消費는累年激增되어가는터인데 昭和十一年現在의 內外地通算總消費額은 十億一千九十萬圓에 達하얏는바 그內容을보면

▲內地＝消費額六億八千五十萬圓으로 總額의 六割七分弱

▲朝鮮＝消費額二億五千九百七十一萬圓으로 總額의二割六分弱

▲臺灣＝消費額七千六十八萬圓으로總額의七分强

또金肥、自給肥別로 分類하면

▲金肥＝消費額四億四千八百三十二萬二千圓으로 總額의四割四分强

▲自給肥＝消費額五億六千二百五十八萬五千圓으로 總額의五割五分强

그리고 金肥의 最近五個年의 消費推移를 보면內外地를 通算한 總消費額은 昭和七年에 二億三千三百萬圓을 示하얏든것이 十一年에는 四億四千八百萬圓에 達하야 二倍에가까운激增이어다 次表에보이는것과가티 內地의增加率이 六割五分强임에 反하야 朝鮮은四倍强이어오 臺灣은二倍强인것이 注目된다

內外地肥料消費額 (昭和十一年)(單位千圓)

	金肥	自給肥	計	比率
內地	三〇四、九五五	三七五、五五〇	六八〇、五〇五	六六·八%
朝鮮	七七、六六二	一八二、〇五六	二五九、七一九	二五·七
臺灣	六五、七一六	四、九七八	七〇、六八四	七·五
計	四四八、三三三	五六二、五八五	一、〇一〇、九〇八	一〇〇·〇
比率	四四·三%	五五·七%	一〇〇·〇%	

最近五個年間金肥消費額(單位千圓)

	內地 消費額	指數	朝鮮 消費額	指數	臺灣 消費額	指數	合計 消費額	指數
昭和七年	一九五、七七三	一〇〇	一七、二七六	一〇〇	二〇、七二九	一〇〇	二三三、七七八	一〇〇
八年	二二三、八六四	一一四	二八、七六九	一六六	二七、七二九	一三四	二八〇、三六二	一二〇
九年	二二八、八四一	一一七	四〇、三三四	二三三	三五、〇六〇	一六九	三〇四、二三五	一三〇
十年	二七六、七〇一	一四一	五五、四八〇	三二一	四三、四六四	二一〇	三七五、六四五	一六一
十一年	三〇四、九五五	一五六	七七、六六二	四五〇	六五、七一六	三一七	四四八、三三三	一九二

買方에 買進커안는모양이어다

朝郵總益五百萬圓

朝鮮郵船今期決算은 大體稍算에依하면 總收入五百萬圓으로 前期보다 百五十萬圓의 增加인데 純利益은 百六七十萬圓으로 其中百萬圓의 償却을行하고 六十萬圓內外를 公表利益으로 하려하는데 그處分으로서는 配當은六分据置하고 大體輸送하어업스나 別途積立金은 前期(十萬圓)의 三倍로增加할터이오 當選專務는 右決算案을가지고 大阪、東京에出張하야 重役會에 附議한後 二十九日 株主總會에 附議하리라한다

靑島航路受命第一船

朝鮮郵船靑島航路의 受命第一船釜山丸은 十五日仁川을 出帆할터인데 海州、鎭南浦로부터 小野田、朝鮮세멘트等各세멘트를 積載키로되엇고 復航積荷는 棉花라한다

移出貿易大躍進

◇…出超累計千九百八十萬圓 米移出激增이原因

三月中 朝鮮對內地貿易은 總計一億四千九十三萬八千圓으로前年에比하야 三千八十四萬一千圓約三割의 激增을示하얏는데 一月以降累計는 移出一億九千四百七十七萬圓 移入一億七千三百九十七萬圓 合計三億六千七百七十四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겨우三個月間에 六千百三十一萬圓을 增加하얏슬뿐아니라 本年은一月以來 出超가繼續되어 一月千七百二十六萬六千圓(前年四百五十六萬二千圓) 二月 十八萬八千圓(前年千百六十萬七千圓入超) 三月二百二十一萬圓(前年千九百二十三萬圓入超)로 累計千九百八十萬一千圓의出超를 示하야 前年同期의 累計二千六百二十九萬四千圓의入超에 比하면 移出의 躍進이 顯著하얏다 移出入別로 前年과의 比較를보면 移出三千三百七十萬二千圓 移入七百六十萬六千圓의 增加로서 如斯히移出이 激增된 原因은 米移出이 激增된 때문이다 米移出은 前年三月은 六十七萬一千石에 不過하얏스나 今年은 百十四萬石에達하고 十一月以降 累計本年五百八十八萬七千石으로 前年四百一萬石에比하야 四割二分의急增을示하얏다

魚油定量入札不調

基本契約改訂後 第一回의 魚油定量入札은 六日에行하얏스나 『라이온』、旭電化、小倉化學의 三社의 入札이모두 不調에終하얏다 魚油市勢는 三圓內外인데

重油統制 十五日부터

朝鮮內의 重油統制는 三月來以來朝石을中心으로 內外油各社間에서 數次에亘한折衝을 繼續中인데 外油側의 本社와의協議其他로 若干遲延되엇스나 大體來四月十五日부터 新統制에入키로되엇다 市價의嚴重한協定과販路配給에就하여서도 一元的으로統制케되엇다 朝鮮에서는 內地와相異한 需要狀況으로 石油統制는 까소린과 重油의 兩協定만으로進키로 되엇다한다

分解揮發油市販

朝鮮石油에서는 自動車燃料節約에關聯하야 分解揮發油를 市販키로되엇다 現在의 揮發油는 技術的으로말하면 直溜揮發油로서 原油蒸溜에依한 輕部分을精製하얏섯는데 分解揮發油는 重油로서 精製하는것으로 그特色은 內燃機關用燃料로서 重要한『안치녹크』性을 가지고 잇고『오쿠탄』價가 高하다 從하야『오쿠탄』價高한것과 그러치안은것을 比較하면揮發油의 效率에顯著한懸隔이잇다

一年間煙草賣上高 五千六百萬圓

比前年一割七分二厘增

專賣局十二年度中 煙草賣上總額은 五千六百二萬五千餘圓으로昨年의 四千七百八十萬五千餘圓에 比하야 八百二十一萬餘圓即一割七分二厘의 增加를 示하엿는데 어는 十一年의 煙草値上이 下半期에 不過하고 또 風水害에依한 疲弊가 相當한影響을 及하얏슴에對하야 十二年度는 米作이 未曾有의 豐作인 一方 戰地將兵에의 慰問用煙草가 好賣行를 示한것에 依한것이다

『鹽』消費增加

食料鹽의賣上도 大豆의 豐作關係로 需要가增加되어 十一年의 三十一萬一千三百十九톤에對하야 十二年度는 一割九厘增인 三十三萬七百五十四톤이다 本年度에 持越量은 七萬八千톤으로 一時杜絕되엇든 靑島鹽의 輸入이 實行可能으로되어 三月二十日의 第一回에이어서 五回에亘하야 一萬一千톤이 輸入될豫定이므로 鹽의供給은 相當히潤澤할것이 豫想된다

高原炭田開發

總督府片倉에難色

咸南高原無煙炭鑛은 片倉系의大東鑛業이 先願權을가지고잇고 어에對한 總督府의 態度는 注目되는데 總督府의 意向은아직 確定的이아니나 大體如左한 內意를가진것이라한다 片倉은 先願權을 가지고잇스나 重要鑛物增産法을 適用하면 先願權의 絕對性을 認치안어도조코 또片倉은從來의技術體驗으로보아 炭田의開發은能力에 缺乏하얏엿서 朝鮮의無煙炭統制上으로 新朝無로 하야금 開發에 當케함이 適當하다는것이다

人絹業視察團 會議所서座談會

日本人造絹織物工業組合聯合會에서는 岸理事以下 十名의 幹部로써 北支、滿鮮의視察調査團을 組織하고 三月十六日 以來奉天、天津方面을 視察調査하고 六日午前十一時 京城에와서 京城商工會議所의 斡旋으로 午後二時부터 當地當業者와 座談會를 開催하고 由村總督府中央試驗場長 西本總督府商工課長 稻垣京城府勸業課長 伊藤京城商工會議所理事以下의 商工關係者列席下에 當地業者 二十四名과 意見을 交換하얏는데 半島人의衣料로서 不可缺인 人絹工業이 朝鮮에잇서서는 消費의二割밖게 生産되지안코 他八割은 內地로부터 移入하는現狀에對하야 或者는 小資本經營에依한輕工業企業에對한 氣候、風土、勤勞、勞働力等의 女工募集의困難等 諸種材料를說하고 內地企業家에게 樂土와가튼 생각을주든朝鮮에 一抹의暗影과 不安을投하얏스며 或은內地業者側의 地業者와의取引上의 不圓滑 其他缺點을 指摘하며 移入稅의遞減에依한 今後對策等 三時間에亘한 座談會어엇는데 여것을機會로 今後業者對業者의 取引關係에는 새로운親善이 出生되고連絡을緊密히하야 重要輸出品取締法에依한 輸出絹織物檢査를受한製品어아니면 取引치안으며 專혀製品의向上과 聲價를 保持키로約束하고 午後五時散會하얏다

物資調整課 拓務省殖産局에新設

【東京電話】拓務省에서는 支那事變에依한 重要物資調整에關하야 內地及各外地의 連絡機關으로서 今回殖産局에 物資調整課를新設키로決定하고 五月初旬業務를 開始키로되엇다

東拓定款改正 臨時總會附議

東拓에서는東拓法의 改正決定에基하야 來四月廿六日東拓本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開催할터인데 附議事項은法令改正에伴한 定款案의改正으로 그內容은融資制設定 社債發行限度擴張 事業目的의 改正이다 副總裁는어와前後하야 任命될터인데 아즉未決定이라한다

朝鮮運送決算

朝鮮運送에서는 三月末마감한 當期決算을積算中인데 九日增田庶務課長은 右決算案을가지고 渡東하야 日本通運의諒解를得할터이오 五月定時總會를 開催할터인데 今期業績은 超記錄的의好成績어나 期末에 社船海龍丸의 遭難事件이잇서 어에關한損失어 相當할으로 어에對한 善後措置如何에

中支振興總裁 加藤前鮮銀總裁?

【東京】中支振興株式會社總裁로 貴族院議員 前鮮銀總裁 加藤敬三郞氏의 自薦이 秘密裡에 行하는데 加藤氏는 陸軍에서도 好感을으로 極히有力하다한다 即 北支開發株式會社는 重工業을中心으로한 北支産業開發이 主目的인關係로서 總裁로서 重工業經營의 産業資本家가 適任임으로 平生釟三郞氏가 有力視됨에對하야 中支振興會社는 主로서上海를 中心으로한金融、財政의 確立及復舊事業融資를 目的으로하는關係上金融資本家가 適任이고 加藤敬三郞氏가 有力視되기에至하얏다 特히 加藤氏는 北支中支의視察을終了하고 中國臨時及中國維新兩政府의 金融、財政確立에參與하얏슴으로 中支振興總裁는確實하다고보고잇다한다

經濟界消息

依하야 決算도未定이나 配當은六分据置豫定이라고한다

●地方專賣局長會議＝專賣局에서는 五月二日부터 三日間 地方專賣局長會議를 開催하기로되엇는데 同會議에는 內地、臺灣、滿洲國、關東州로부터도關係者가 列席되리라한다

今日의市勢 (七日)

株式 大揉合遂下放 主力株一齊臺割!

前場投崩

揉合後低弱로人氣惡化한데에 政局不安說 支那國有海運業을 米國에譲渡한다는說 東株減配說 外電不安等 惡材料의輻湊로 投物이殺到하야 寄付부터 東新三圓 鐘紡二圓六崩落으로 一大崩勢를보이고 繼續崩落으로 東新은百五十八圓五 鐘紡은二百六十一圓五의低價를 示現하채 反撥力도업시 大引되엇다

後場續落

後場은 東新二低 鐘紡二低로 續落裡寄付後 少反氣味이엇스나 다시落潮繼續裡에 大引되엇다

惡材輻湊로 急轉崩落

無材料와 人氣沈滯로 오래동안小幅浮動裡에 揉合을 거듭한市勢는 今朝惡材輻湊로 畢竟下放하야 東京東新은 去三月十八日의 低價百六十一圓五를 寄一本으로下廻하야 六十圓大臺割에된後 百五十七圓七(東京)까지慘落하고 鐘紡도(東京)二月十四日의低價二百六十二圓五를 下廻하야 二百六十二圓三의 低價에까지遭叩되엇다 어로써 저의大勢는逆轉될感이잇거니와 今朝에傳하는材料를 一瞥하면 如左하다

政局不安說

政局安定을傳하든때라 모두 意外視하는터어나 今朝市場에도 政局不安說은 日米關係惡化等의 理由로해서 相에게 重大決意를 進言한다는 政局不安說어 擡頭한 것이라고 傳한다。

支那海運業讓渡

在上海米國金融團과 國府招商局間에支那國有海運業(商船四十隻 各埠頭倉庫營業權等을包含) 讓渡契約어成立되엇다고 傳하는데 이는米軍그讓渡金額約一億弗이 戰費流用될것도 問題어지만 開港地中에는天津等日本軍占領地域도잇고 商船中에는 어미徵發된것도잇는것等으로보아 어미激烈한 不讓渡宣言을한以上 여러가지困難한問題가 隨伴될것이아니가觀測되어 어떤問題로因하야 或은日米關係에 다시어떠한 不美的問題가생기지안흘가 財界로서는深憂한 注目을하게되엇다

東株減配說

今朝東新의 暴落의 原因으로는 上記의 材料도 잇스려니와 그中에는 東株減配說까지등게되엇다 即事變前一割配當을한 東株가 事變後 業績不振으로 昨年下半期에는 減配를 不得已하엿는데 今年上半期에도 亦是業績은 不振이인데다가 增稅에依한 手數料引上等으로 株式賣買의 好味가 減해져서 新規投資는 縮蹐되고 去般山一의受株의 裏面에는 亦是生保側이엇든것이 分明하나 今後生保側에 依한 株式買受의 餘力으로 ...

市場六感

株 …大閑散市에 專藏大放▲昨後場에는 東京某有力買方이 數千枚를 投却한것어 低落原因어라드니▲今朝에는 惡材가 輻湊하야 참어오든 買方도할수업시 投하지안홀수업서 畢竟總投어은셈 投物一巡으로보는이도 無하나 整理는 未了?▲强行的整理라 日字로는 오래지안을것이나 大勢逆轉의感도 不無하야 一時深潮가 阻止되드라도 얼마동안은 民黨가될順序?▲다만 問題는 어落潮를누가 阻止하느냐가 남은問題▲前者로는 生保側出動에 期待하려면 지금은 어떠지?▲軍需株以外에는 減配의 危險이잇는株도 不無하야 大口側이잇는株도 不振하야 어저두는 低價가 那邊일지 今後興味는 大口側動向에 엇다할가?

米 …市勢는每標押目에서는 底强하며 保勢도나 硬材는그 感受性이 銳敏▲現下米價으로 보면 將來는 如何間 目前은 술더 下放하여야 可할것가튼데 一向保勢▲實米重壓 株式低落等 不良市況勢가잇슴에 不拘코 암비라는것은 可謂意外▲埠頭에는 米出時代를 나타내고 實勢物도 六萬石갓갑다니▲그리고 買方의 至買因果玉이 整理未了인채잇스니 當然히 사기도不能▲그래서 市勢는 依然되는까닭에 不動閑散?▲春眠曲어 조하가며 人氣는希期하니 어느때 여春眠을깨게라는고?▲物價高에 伴茫을바더할수업고 實米重壓으로 買할수엇스니 若局保勢乃己?

期米 少堅어나 頭重

前場少堅

小揚主義로 因하야 保合되는 市勢는 今朝亦不變의勢로 大阪初付五丁低인五圓〇九錢을 擴하고 當은一丁低인 二圓十八錢 先은七丁低落인 二圓卅七錢으로 據合으로 始值後 小康인 十七錢으로 上伸함에 中은四十四錢 先은 五十七、八錢으로 少堅되엿스나 阪地伸値로 因하야 細劉不動의閑散商狀을 呈하야 一張하더니 結局大阪比價十七錢을보고 六十五錢에止揚하다

後場堅調

後場은 二十二圓五十九錢인 六丁低로 始揚한後 二節六十錢으로 四節六十八錢을보여엿스나 五節六十二錢으로 다시反弛이엇다

依然小捌賣買

市勢는 좀더軟化할것가트면서도 一向下避하야 昨今엔 可謂春眠商情이다 方今米價으로 말하면 各埠頭에 相當한積米가잇서 그야말로 때아닌米出時代를 形成하고 大股間과 思惑側의持米도 滿庫形勢를呈하고잇다 그래서 어모리하야도 어전에對한 金利라는지 倉庫料 其他負擔이 加重되는만큼 滿算에 負擔할수박게업시 實米重壓은 날이갈수록 더할것이며 株式의 低落은 間接的影響을 주고야 말것어며 좀더 低落될 延하야 米界에도 어려운 氣運이濃厚되는것만은 事實이다 그러치만 相當市勢는 低押되는것만은 事實이다 根氣가 强한것을 表現하는 이것은 風한 物價高로因한 將來米價高를 深信하는 業者側의 買支로因한것가트바 果然依然保合中에 硬軟何方이던지 手放할 氣分은 感하지 못하는 이것은 興味處이다 當分間은 時勢는 深刻하여 가며 小捌主義로 그動機를 待機할것으로 看取되는바이다

物價로본米價

軟派도 論하면 前月七日의仁川三十二圓十九錢을目前天井으로 氣運이만흠에 따러實米重壓、株界不勢等을 根據로 하고잇스나 앙바되고 低落되지안는다 그런데 이가튼反對作用을 가지고 天井을 告한것은 最高公定價格決定時에比하야 一般物價는 二割갓가운上昇을 示하고 特히增稅後는 物價는 逐日上伸하야 어比準로 따져보면米價도 相當率의 騰貴가잇서야他物價와 平衡이될것어라는 萬年强氣側의 策動으로 思惑하는것어다 即米價를 物價로써 推薦하면 大阪二十六圓 通算으로二十七圓二 三十錢까지나上伸

朝取期米取組內容

(表 省略 없이 印刷: 當限 中限 先限 賣方 買方 各店別 數量)

正米 閑散裡 釘着

京城同調

極度의 賣行不振으로 一般은 新規買를 警戒하야 場面은 閑散이나 産地가 一向强하야 保合的先高觀으로 보든 賣惜으로 特殊商向小口買가 잇슴뿐이어 市價는不變이엇다 白米一三、一八〇 四等三二、六〇 ㊄三等三一、八〇 一等

仁川不動

東地는 依然强하야 賣物薄어나 內地入往도 依然不振으로 此邊材料出盡으로 目前의 目標를 失하야所持側도 滿腹에는 賣智 意向도 잇는데 買方은 氣候를 念慮하야 進出치안코 內地正米動向觀望으로 市中은 閑散하야 小口 必需買로 市勢도 全然不動이엇다 ㊂穀良三等三二、八〇 四等三一、六〇 銀坊主三等三二、六〇

釜山閑散

內往杜絕 低迷商況에 入하야 益益 商況에 小口賣買가 겨우 보어는 閑散한 推移로 不賣不買의 新動搖待商狀이다 ㊂穀良三等三二、二五 四等三二、〇五 一等白米 一三、一五

大邱釘着

新材待인때에滿算凡邊로 人氣는 全面的으로氣配하나 此邊通價觀의 突込自重으로 賣物도不添하야 當用小口買로 釘着이엇다 ㊂穀良 三等三二、六〇 四等三二、四〇 一等白米一三、九〇

群山不變

春暖關係로 産地는 漸次軟化模樣이며 思惑所持側도 硬材料를 物色하야 賣拔氣味어나 近者無材料어라 高價希望薄이오 低價에는 賣方態度가 强硬하야 精米側은 低價待로 相當한 買氣가 潛在하나 價格으로 商談어 進捗되지안코 場面은 閑散을 極하야 市價도 保合이엇다 ◎銀坊主三等三二、七五 四等三二、五五 一等白米一三、〇〇

木浦保合

目先材料의 出盡으로 此邊一息商狀인데買上漏落米의 流出念慮도 奧地、所持側의 依然强硬한態度로 賣物薄어되고 一方 買方도 押目買狙의態度로 아직 出動치안허 必需實買에限하야 場面은 閑散하고 市價定期保合으로 前日과同樣으로 不變이엇다 ㊂銀坊主三等三二、七〇 四等三二、〇五 一等白米 一三、〇五

今日財界 (七日)

◆米 (單位十錢)

	今日終止	前日終止	比較
仁川期米先限	三三·五〇	三三·五七	七低
大阪期米先限	三三·六五	三三·七八	一三低
京城正米一石	三三·〇	三三·〇	不變
白米(二等)	三三·〇		
正租(仁川)一等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前日終止	比較
朝取新	三二·〇	三四·一〇	二〇低
東新	一五八·五	一六二·〇	三五低
鐘紡新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終止	前日終止	比較
大阪三品			
綿絲			
人絹			
砂糖			

海外經濟 (六日)

銀行券 (六日)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市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取組高 ◆籌定代引日步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期限 ◆大阪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期米

◆朝取期米 ◆大阪長期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京城物價 (七日)

▲白米(升、單位錢) ▲麥粉(新二三斤、單位錢) ▲肥料 ▲紙物(單位厘) ▲石炭(無煙炭) ▲石油 ▲砂糖(百斤單位錢) ▲洋灰 ▲鑛物(單位錢) ▲海産物(單位錢) ▲染料(斤、單位錢) ▲人絹 ▲毛絲 ▲本綿 ▲木材 ▲牛皮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絲 ◆橫濱生絲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朝 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一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長六三九番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